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9월 7일(음력 8월 4일) 수요일 (주간) 제 542 호

‘친일파 재산환수특별법’ 등 촉구

촛불대법회

13일 조계사서 … 봉선사 · 민족문제연구소 주최

반민족행위자 이해창 후손의 땅 찾기를 좌절시킨 봉선사와 내원암이 친일파 재산찾기근절을 위한 범국민행동에 나선다. (본지 540호 1면 참조)

봉선사(주지 철안)와 내원암(주지 재문)은 조계종중앙신도회, 민족문제연구소 등과 함께 9월 13일 오후 6시 조계사에서 ‘친일파 재산찾기 저지를 위한 촛불대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종과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촛불대법회를 통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이고, 국회는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9월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내원암 측은 이해창의 후손 21인의 소송 취하를 거부하고, 9월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재판 계속’ 의지를 재판부에 전했다.

소 취하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봉선사 혜문 스님은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찾기 소송을 근본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내원암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이 위헌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피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원암 주지 재문 스님도 “어른 스님들의 뜻은 물론 전 불자들의 염원을 받들어 이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는 현재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며 원고 측 변호사도 사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8월 30일 합천 해인사를 방문 극락전에 모셔진 통일신라 목조 비로자나불을 친견했다. 사진제공=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에 화합기원문”

노무현 대통령 해인사 방문, 종정 법전 스님 예방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기위한 동판제작 사업 역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8월 30일 권양숙 여사와 함께 합천 해인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의 영접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시간 동안 해인사에 머무르면서 극락전에 모셔진 두 분의 9세기 통일신라 목조 비로자나불을 친견하고,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예방했다.

9세기 통일신라 목조 비로자나불을 친견한 노무현 대통령은 9세기 목조 불상이 아직까지 보존된 것에 대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부처님으로, 예술적인 가치 또한 높다”며 감탄했다.

이어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친견한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비로전을 지어 두 분의 비로자나불을 함께 봉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대화합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담은 기원문을 작성하여 비로자나불의 복장에 넣기로 약속했다.

해인사 법보전의 비로자나불은 최근 개금과정에서 통일신라시대(9세기경) 조성된 국내 최고(最古) 불상으로 확인된 비로자나불은 현재 개금불사를 앞두고 옻칠을 한 상태이다. 9월 10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일반에 공개해 불상의 자비로운 미소를 친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불교계 친일인사 63명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발표

민족문제연구소 등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 이하 편찬위)와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는 국치일을 맞아 8월 29일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대상자 309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종교계 인사는 157명으로, 불교계가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48명), 천도교(25명), 유교(14명), 가톨릭(7명) 순이었다. 불교계 인사가 가장 많은 까닭은 선정기준과 관련된다. 편찬위는 친일단체의 핵심간부, 친일논설 발표자, 부일협력 강연회 반복 참여자 중심으로 친일인사가 선정했는데, 당시 교세가 컸던 불교계에 단체가 많아 핵심 간부도 많았기 때문.

눈에 띄는 불교계 인사로는 일제시대 말 조계종단을 창립하고 조계사를 창건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지암 스님(이종욱)과 태고종 종정을 지낸 대륜 스님, 통도사 주지 구하 스님, 동국대 초대 총장을 지낸 권상로 박사 등이 있다.

지암 스님은 조선신궁 참배, 국방헌금, 조선사찰 전체에 국위선양무운장구기원제 거행 지시, 승려들의 지원병 지원 격려 등의 이력이 문제가 됐다. 구하 스님은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조선총독 테라우치를 위한 축하식을 열었고, 일본시찰단 단장이 됐으며 황군위문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친일행적을 보였다. 권상로 박사는 많은 친일 시국강연회에 참가했고, 전시 친일단체 최고 지휘부인 국민총력조선연맹에 참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친일인사 선정과 관련 조계종 · 태고종 등 주요 종단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두 스님의 친일이 항일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지암 스님과 구하 스님 문도 측은 “편찬위 쪽에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2면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어디 좋은 원고 없나요?

도서출판 민족사 ‘제1회 출판원고 공모전’ 열어

“참신한 원고가 없다.” “필자 발굴이 시급하다.” “불교 관련 원고가 일반출판사에 선점당하고 있다.”

불교출판의 침체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지적되는 문제들이다.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양질의 원고를 발굴하기 위해 불교계 출판사가 발 벗고 나섰다. 바로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가 ‘제1회 출판원고 공모전’을 개최한 것이다.

이번 공모전은 참신한 원고와 대중성을 갖춘 필자를 발굴해 불교출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민족사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필자와 독자간의 교두보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200자 원고지 600매 이상의 분량을 10월 30일까지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원고 내용은 불교입문, 교리해설, 수행 등의 불교적인 내용을 비롯해 역사, 문화, 수필, 아동 청소년물 등 분야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판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면 된다. 단, 시와 소설, 학술서는 제외다.

원고는 완성된 상태이거나 80% 이상 집필된 것이면 응모 가능하며, 미완성작일 경우 3개월 이내에 완성된 원고를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는 11월 넷째 주 불교계 신문을 통해 발표하며 상금은 대상작 1편에 800만원, 최우수작 1편 500만원, 우수작 3편에 각각 300만원이 주어진다. (02)732-2404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2층 도서출판 민족사, minjoksa@chol.com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 … 마감 12월 17일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5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 2006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39 ■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지 사장상)
  -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드립니다.

붓다뉴스에서 부다피아 정보를 만난다

‘현대불교 미디어센터(HBMC)’는 8월 31일부터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부다피아(www.buddhapia.com)의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붓다뉴스에 오시면 이제 실시간 교계 동향은 물론 기사별로 동일한 색인의 동영상(뉴스, 법문, 강의, 다큐), 사진(7만여 장), PDF파일 등 관련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섹션에는 ▲논문(6천여 종)/고서/잡지(21종 1만여 기사) ▲불교 용어사전(1만9천 단어) ▲기관/단체(2만6천여 곳) 정보 ▲스크린 세이버 ▲관련 경전/법문 ▲도서 정보(yosiamun.com 제공) ▲불교 지식검색 등 부가정보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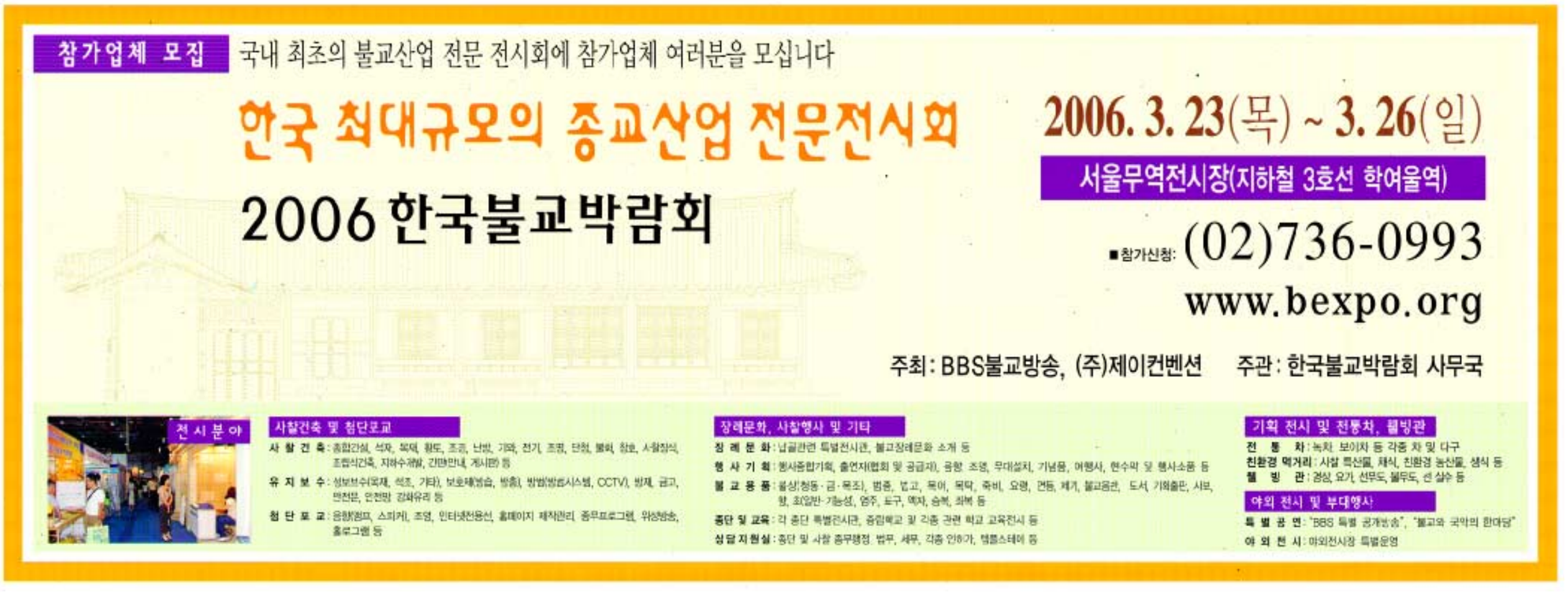


‘할’



그림 · 조태호

지운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불교계에 심려끼쳐 죄송”

‘월간중앙’ 법장스님 사과방문…범불교도대회 유보

‘월간중앙’ 8, 9월호 문제가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이장규 대표이사와 ‘월간중앙’ 김진용 대표이사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이장규, 김진용 대표이사는 8월 2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사과문을 전달했다.

월간중앙은 사과문에서 “지난 8월호 월간중앙에 역사적 근거가 없는 ‘갓쓴 양반들의 성담론’이라는 글이 많은 훌륭한 스님들과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9월호에서 ‘조계종의 4대 의혹을 캔다’는 제목으로 조계종단의 의혹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벗어나 본의 아니게 총무원장 스님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고 밝혔다.

월간중앙은 또 “실추된 종단과 불자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 재발방지를 약속드린다”며 △불교계 언론매체에 사과광고 게재 △월간중앙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 △월간중앙 8,9월호 책자 증판 제작 및 배포 금지 △모든 조치들은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이장규 대표이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2005년 8월 31일 12:00한 이행 등을 약속했다. 이와관련 월간중앙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약속사항을 이행했다.

월간중앙 불교 폄훼 규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월간중앙 공대위)는 30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1일 개최하려던 범불교대회 유보를 선언했다.

월간중앙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종단을 음해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집단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월간중앙 공대위는 또 “매스미디어의 불교왜곡 또는 훼불해종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으로서의 ‘천수천안 운동’을 조계사를 중심으로 전국의 사찰과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가운데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월간중앙 공대위는 이 외에도 “아직도 자기반성을 하지 않고 월간중앙 경영진의 참회와 사과문에 대해 반박성명을 내고 종단이 자기에게 공식사과를 하라는 등 적반하장을 일삼고 있는 8월호 성담론 기고자 백승종의 행위에 대해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승종씨는 29일 일부 언론사에 보낸 글을 통해 “중앙이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과를 발표한 점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한다”며 사과문을 파기하고 월간중앙과 조계종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월간중앙 공대위는 9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종합 보고회를 열고 공식 해산을 선언했다. 남동우 기자

“총장 용퇴하라”

東大 이사회서 장윤스님 요구

동국대 이사 장윤 스님이 홍기삼 총장의 용퇴를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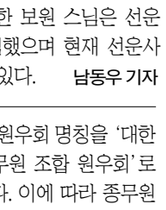
이 같은 발언은 8월 3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12차 동국대 이사회 기타 안건 논의도중, 최근 교수회와 대학당국의 갈등으로 인한 학사행정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장윤 스님은 “교수회 합의 내용을 보면 거의 백기를 든 수준이다. 이쯤에서 총장이 용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총장은 “결코 교수회에 굴복한 것이 아니다”라며 용퇴 요구를 비껴갔다.

한편, 서울 · 경주캠퍼스 교수회가 8월 30일 교수총회를 열어 홍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8일 경주캠퍼스 부총장의 사퇴, 서울 기획인사처장 사임, 교수연구업적평가제 시행 연기 등을 조건으로 대학당국과 교수회가 전격 합의함으로써 교수총회를 연기했다. 조용수 기자

선운사 중앙종회의원 보원스님 당선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의원 고창 선운사 보궐선거에서 보원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보원 스님은 1974년 사미계, 76년 구족계를 수지한 보원 스님은 선운사 총무를 역임했으며 현재 선운사 석상암 암주로 있다. 남동우 기자

김의정씨 단독 후보 등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선거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상 첫 여성 수장이 탄생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천수)는 9월 1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의정(사진)씨만이 후보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의정씨는 9월 24일 열리는 총회에서 중앙신도회 통합 2대 회장으로 추대될 전망이다.

김의정씨는 1995년부터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유철주 기자

‘종무원조합’ 설립키로

조계종 종무원 노조 설립이 철회되는 대신 종무원 조합 설립이 추진된다.

원우회(회장 양진수)는 9월 1일 임시총회를 열고, 원우회 명칭을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 조합 원우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무원 노조는 가까운 시일 내 임시총회를 거쳐 설립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선원장들이 중국에 가는 뜻은?

고우스님등 22명 5~21일, 선종 성지 순례

조계종을 대표하는 선원장스님들이 육조혜능으로부터 한국에 전해진 선종의 맥을 찾아 떠난다.

고우 무여 혜국 현산 인각 일오 의정 설우 정찬 스님 등 조계종 <간화선>수행지침서 편찬에 참여했던 선원장 22명이 참가하는 이번 선종 유적지 순례는 9월 7~21일까지로 중국 선사들의 주석도량과 수행처를 참배한다.

초조 달마선사가 면벽했던 소림사 달마동, 2조 혜가선사의 혜가사, 3조 승찬선사의 산곡사, 4조 도신선사의 동산선사, 5조 홍인선사의 오조사, 6조 혜능선사가 주석하던 남화사 및 등신불 등과 조주선사 관음원, 임제사 등을 참배 한다. 조용수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불교계 ‘친일인사명단’ 어떻게 볼 것인가

“‘위장친일’ 등 특수성 감안해야”

조계·태고 등 주요종단 ‘침묵’ 지암·구하 문도 등 ‘재고’ 주장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 이하 편찬위)와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가 8월 29일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명단은 해방 후 처음 이뤄진 친일 인사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시비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선정기준은 무엇?

편찬위가 정한 친일불교인의 판정 기준은 “조선불교단 · 조선불교중앙교무원 · 총본산건설위원회 · 조선불교총본사설립위원회 ·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등의 핵심간부, 일본불교시찰단 복지 황군위문단 참여자, 친일논설 또는 부일협력 강연회 반복 참여자”다. 여기에 더하여 친일 행위의 자발성과 반복성이 중시됐다.

친일단체의 핵심간부 경우에는 적극적인 친일 의지를 갖고 활동한 것으로 간주해 친일인사에 포함시켰다.

편찬위의 선정 기준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친일단체의 범주. 편찬위는 조선불교중앙교무원 · 총본산건설위원회 · 조선불교총본사설립위원회 등을 친일단체로 봤다.

근현대불교사 연구자 박희승씨는 “조선불교중앙교무원 등의 단체들은 교단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들 단체가 친일단체로 규정되면 조선불교까지도 부정되는 셈”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한동민 씨(수원시 전문위원)는 “1911년 사찰령이 공포된 이래 종독부가 불교계를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온 탓에 교단 자체가 친일화된 측면이 있어 친일단체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친일을 바라보는 불교계 내부의 시각이 새로이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집 진각종종학연구실 상임연구원은 “일제 시대를 살지 않았던 우리들이 그 당시를 평가할 때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며 “친일문제에 대한 불교계 나름의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부장 현고 스님은 “억불책으로 조선시대 500여 년간 사람대접조차 받지 못하던 스님들에게 호불(護佛)은 매우 중요한 가치였다”고 전제한 뒤, “이런 상황에서 스님들의 호불 행위는 친일로 비쳐질 소지가 있었다”며 “‘친일-항일’이라는 잣대뿐 아니라 ‘호불-배불(排佛)’이라는 관점에서 사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반응은?

이번 친일인사 선정과 관련한 반발 움직임은 지암 · 구하 스님의 문도 사이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위장친일의 개연성과 시대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친일여부 판단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지암불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암 스님(이종욱)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성담 스님(지암불교문화재단 상임이사)은 “지암 스님은 조계종단을 세우고, 조계사를 건립함으로써 오늘날 조계종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라며 “타종교들이 일본단체에 종속되는 상황에도 한국불교가 독자종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보면 지암 스님의 친일은 위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하 스님의 손상좌인 현문 스님(통도사 주지) 또한 구하 스님의 위장친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문 스님은 “당시는 겉으로 친일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통도사 대표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시대”라며 “오늘의 잣대로 보고 친일이라 판단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근현대불교사 전공의 김광식 교수(부천대)는 “구하 스님과 지암 스님은 항일과 친일의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인물로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해야할지 고민거리”라며 “사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진면목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찬위 측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해서 제시한다면 기꺼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반응과 달리 조계 · 태고종 등 종단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63명에 달하는 불교계 인사들이 친일인사로 규정된 것을 감안할 때 무반응은 다소 의외다.

침묵의 배경에는 참회의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엇갈린 시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고 스님은 사견임을 전제로 “오늘의 조계종은 정화를 통해 친일불교를 청산했기 때문에 친일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 또한 사견으로 “일제말기 조계종단은 분규 이전의 승단으로서 태고종과 조계종의 공통된 ‘조상’”이라며 “불교계가 함께 연구해서 사실을 밝혀내고, 잘못이 드러나면 함께 참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 ‘편찬위’가 발표한 불교계 친일인사명단

강대련 강성인 강재원 곽기종 곽법경 권상로 김경림 김경주 김구하 김동화 김법룡 김보련 김삼도 김상호 김설암 김송월 김영수 김영호 김용곡 김재홍 김정섭 김정해 김지순 김진월 김정암 김탄월 김태흡 김한송 박대륜 박도수 박병운 박영희 박원찬 박윤진 박찬범 박치상 변설호 손계조 심보연 유재환 윤상범 이덕진 이동석 이명교 이병호 이보담 이석두 이종욱 이철허 이태준 이혼성 이회광 임석진 장도환 정병헌 정창윤 정충의 최상문 최취허 허영호 홍태욱 황금봉 황벽응 (이상 63명)

봉 대전불교 사암연합회 제18대 회장 운봉스님 취임 축



존경하는 고승대덕 큰 스님을 비롯한 불자 여러분!
대전불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합과 단결이 요구되는 이 때 대전불교사암연합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어 그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면서 지역의 원로 큰 스님을 비롯한 각 사암의 대덕 큰 스님들의 지도편달과 불교계 지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으로 대전불교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삿된 것을 물리치고 정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혹자혹위(惑慈惑威)라 때로는 자비로서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포용하고 때로는 위용으로서 꾸짖고 제압하여 또 다른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벌을 가하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자비일 것이라 여기고 반드시 파사현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대덕 큰 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
미력한 소납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곳 한밭 벌 대전을 부처님의 정법도량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원명단

회 장 소원사 운봉

수석부회장	대원정사	도 안	인권부회장	득도심인당	현 수
상임부회장	송 림 사	대 연	유성사암회장	태 전 사	도 일
사 무 총 장	녹 야 원	형 권	감 사	대 성 사	지 철
포교부회장	광 수 사	경 천	감 사	보광정사	일 봉
섭외부회장	(동)동보광사	동 화	호 계 원 장	관 음 암	일 화
사회부회장	광 제 사	석 준	포 교 원 장	영복선원	진 성
재무부회장	청 화 사	효 경	학 술 원 장	지 장 암	우 석
의전부회장	일 성 사	영 봉	교 육 원 장	고 려 사	법 천
교정부회장	금강정사	용 주	심 의 원 장	구 암 사	북 천
조직부회장	달 마 사	원 욱	비구니원장	용 화 사	영 진
총 무 부 장	안 국 사	남 산	호 법 부 장	중 암 사	철 린
사 서 실 장	금 당 사	도 광	문 화 부 장	여 래 사	각 림
교 무 부 장	대승심인당	혜 언	인 권 부 장	신덕심인당	의 당
포 교 부 장	관 음 사	법 재	복 지 부 장	약사선원	은 혜
섭 외 부 장	대 원 사	법 광	사 무 국 장	사암연합회	이연희
재 무 부 장	법동사회복지	보 안	사 무 과 장	사암연합회	유현숙

대전불교 사암연합회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55-4번지 서우아파트 상가202호 • 전화 : 042)526-1080 / 팩스 042)526-1084

도반과 함께 '색깔' 찾다

불교 시민단체 활동가 만해마을서 워크숍

통일 · 환경 · 생명 · 복지 · 신행 등의 불교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80여명의 활동가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불교아카데미가 주관한 가운데 8월 26~28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진행된 '색깔 있는 조직 만들기-2005 불교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워크숍'(이하 활동가 워크숍)에서다.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고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불교시민단체 활동가 워크숍에 참가한 활동가와 가족들이 어우러져 율동을 하고 있다.

#한바탕 어우러지다!

지난해 3월 12~14일 열린 제1회 활동가 워크숍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지만 새롭게 만나는 활동가들이 적지 않다. 간단한 입제식에 이어 어색함을 풀기 위한 어울림 시간. 활동가와 가족들이 '올챙이송'과 '정글숲' 노래에 맞춰 율동을 시작했다. 50대 대선배와 20대 '초보' 활동가, 아빠와 딸, 남편과 아내가 손짓과 발짓을 하며 한데 어우러져 어느새 '도반'으로 거듭난다.

#조직 정체성 진단

이영철 NGO미래경영연구소장의 '색깔 있는 조직만들기' 강연시간.

1차 활동가 워크숍에서 '평생운동을 막는 장애요인 찾기'와 '2010년의 자기모습 그려보기' 등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논의의 초점을 '조직' 차원으로 옮긴 것이다.

활동가들은 '색깔 있는 조직 만들기 진단시트'에 각 단체별로 자가진단을 먼저 한다. 진단 결과 대부분의 단체들이 아직까지 자기 정체성이 선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철 소장은 △단체의 핵심역량과 새로운 가치를 결합시켜 대중화를 실현하고 △불교계 내 새로운 영역 개발을 통한 활동 △불교계 내외의 환경 분석을 통한 정체성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사소통이 문제다

둘째날 활동가들이 다시 머리를 맞댔다. 이번에는 불교단체 활동을 전개하면서 맞닥뜨리는 내부 문제들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Win-Win하는 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좌담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정웅기 정책실장은 단체 내에서의 출재가 관계와 활동가 간의 의사소통 문제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운을 뗐다.

이에 대해 조계사 이우용 포교계장은 "사찰과 단체 모두 주요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자주 바뀌면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민정희 국제협력국장은 "단체별로 자자와 포살을 활성화시킨다면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해 활동가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가족은 든든한 후원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활동가들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의 든든한 지지와 후원이 있기 때문이다.

활동가 워크숍에서 만난 가족들의 '힘'은 대단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정웅기 정책실장의 부인 홍경희(37)씨는 불교계 언론에 근무하다 단체로 자리를 옮긴 정 실장이 받아온 첫 월급을 잊지 못한다. 딱 절반의 월급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 8살과 4살인 두 딸이 자라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후원자가 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손상훈 사무국장의 경우도 비슷하다. 손 국장이 10년 이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부인 김인숙(42)씨와 딸 자영(10)양의 뒷받침 때문이다. 김씨는 "남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 오히려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글 · 사진/인제=유철주 기자

지율스님, 천성산 조사 활동 거부

합의정신 깬 시설공단 자료집 발간에 항의

8월 30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위한 시추가 시작됐다. 지난 2월 지율 스님이 100일 단식을 회향하며 정부와 공동 조사를 합의한 후 6개월만이다.

오후 2시 30분경 시추가 시작된 울산시 삼덕공원묘지 인근 시추 현장에는 구조지질, 지하수, 생태계, 암반공학, 지구물리탐사 등 5개 분야 전문가와 고속철도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시추를 지켜봤다(사진).



그러나 지율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언론기관, 법조계, 학계 등에 배포한 '천성산 공사 관련 자료집'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은데다 여론 몰이를 위한 작업임에도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하자, 지율 스님이 한국고속철도공단이 공동조사의 합의정신을 깬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것이다. 앞으로 지율 스님은 공동조사단 활동은 하지 않되, 고속철도공단의 인터넷을 통한 인신공격과 합의정신을 깬 자료집 배포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항의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단은 지율 스님이 빠진 상황에서 8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울주군, 양산 대성암, 조계암, 천성산 등 총 11군데를 시추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추 조사는 9월말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한 후, 순간 충격 시험, 공내수질검층, 공내유향유속측정, 텔레뷰어시험 등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천성산 대책위 서재철 간사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동조사의 의미가 크다"며 "천성산 터널 공사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밝혀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울산=천미희 기자

목탁소리

맥빠진 선우논강

한국불교에서 '선우논강'은 중요한 키포인트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선우논강에서 제기한 문제는 불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 왔다. '간화선과 위빠사나' '비구니 팔경법' 등 공개적으로 논하기 꺼려했던 불교계의 민감한 부분을 과감히 공론화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9일 열린 제12회 선우논강도 '대념처경과 간화선'이란 주제로 5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실감케했다. 그러나 막상 논강이 시작되자 '여기가 선우논강 현장인가?' 하는 의구심이 일었다.

미리 배포된 발제문은 이미 2년 전 열렸던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7회 선우논강)'에 나왔던 발제문에서 상당부분을 발췌했다. 논강 주제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나마 논평자 없이 진행된 토론이어서 맥이 빠지기는 마찬가지였다. 직접 수행에서 우러나온 자신만의 견해보다 용어해석이 주류를 이룬 토론장은 '장님 코끼리 만지듯' 의미없는 시간이 되고 말았다. 결국 반복되는 주제, 성의없는 발제, 맥 빠진 토론은 낮부터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킨 참석자들에게 아쉬움만 던져주고 말았다. 건전한 토론은 민주사회를 지탱시키는 기초이듯, 건강한 논강은 한국불교의 바로미터이자 미래불교의 등불이다.

선우논강은 목적에서 "자주모여 법에 대해 토론하라는 부처님 말씀에 따라 함께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논강이 살아야 불교도 산다'는 신념으로 거듭나는 선우논강을 기대해 본다.

■이준엽(호남 주재 · 부장)

북관대첩비 한국 온다

9월말 확정…10월 반환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정문부 장군과 함경도 지역 의병을 기리기 위해 1709년 세워진 북관대첩비가 10월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한일불교복지협회장 초산 스님은 8월 31일 "9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열리는 야스쿠니 신사 이사회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이 최종 확정된다"며 "반환 시기는 늦어도 10월 중순 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초산 스님과 열린우리당 김원웅,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은 8월 30일 개성에서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부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10월 반환에 맞춰 '한민족 대축제'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북관대첩비가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서울 도착 및 전시 행사, 개성에서의 북측 인도행사, 길주 복원행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철주 기자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인천 고교 순회공연

인천 무형문화재 범패와 작법무 예능보유자 능화 스님은 9월 3일 계산여고 공연을 시작으로 인천 인하부고 축제(3일), 무형문화재전승공연(10월 1~2일), 청학공업고교(12일), 부평여자공업고교(20일), 인천기계공업고교(28일) 등에서 공연한다.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예술활동에서는 범패와 작법무를 설명하고 대표적인 춤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을 선보인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이 의상 및 악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과 전통춤의 거리를 좁힐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허허당 향훈 스님 선화

부다피아 갤러리 오픈

선화가 허허당 향훈 스님의 갤러리 '허허당이 본 화엄세계(www.buddhapia.com/_Service/gallery/_000000005)'가 부다피아 갤러리에 마련됐다.

9월 1일 오픈한 허허당 스님의 갤러리는 30여개의 선화를 우선 선보이고 있다. 선화와 함께 스님의 만행일기도 접할 수 있다. 허허당 스님은 1978년 붓을 잡기 시작해 지리산 벽송사 방장선원에서 선수행과 함께 본격적인 선화 작업에 들어갔다. 강지연 기자

이웃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9월 18일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예년과 같이 불교계 각 복지관에서는 사회 소외 계층과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풍성한 추석 행사를 준비했다.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추석 떡' 송편 빚기다. 이를 위해 복지관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쌀을 지원하고 함께 떡을 빚는 시간을 마련해 명절의 훈훈함을 함께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 특색 있는 행사도 눈에 띈다. 동여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우석)은 9월 15일 '할매할배 선발대회'를 열어 복지관 홍보 모델을 정하게 된다.

한편 추석 준비에 한창인 복지관들은 생필품 및 추석 용품 등의 후원물품을 지원할 자비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김강진 기자

장 소	일 시	주요 행사	연락처
강릉종합복지관	9.16	저소득층 노인 추석 쌀 지원	(033)653-6375
공주 금강사회복지관	9.13~15	추석음식 나누기, 반찬지원	(041)856-6110
과천종합사회복지관	9.15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송편 빚기, 민속행사	(02)507-6319
동여수복지관	9.15~16	복지관 홍보 모델 선발대회, 차례용품 전달	(061)643-1966
부산 낙동종합복지관	9.15	독거노인 · 장애인 가정에 쌀 · 송편 지원	(051)271-0560
부산 용호종합복지관	9.16	어울림 한마당, 쌀 · 후원품 전달	(051)628-6737
부천 원종종합복지관	9.15~16	차례용품 나누기	(032)677-0108
서울노인복지관	9.16	차례상 차리기, 전통놀이 마당	(02)739-9501
서울 삼전복지관	9.14/9.16	지역 아동 떡 만들기, 전통놀이/노인 후원품 지급	(02)421-6077
서울 은평노인복지관	9.15~16	이용어르신 및 노인 송편 나눠드리기	(02)385-1351
성남 한솔복지관	9.12	장애우, 독거노인 등과 함께 송편 빚기 · 장기자랑	(031)716-4215
울산남구노인복지회관	9.8~9/9.23	생필품 증정, 추석 뒤풀이와 개관기념일 행사	(052)265-5221
인천동구재가노인복지센터	9.9	노인복지기금 마련 이벤트, 생필품 증정	(032761-3677
일산노인복지관	9.6/9.12	공연 등 추석잔치/독거노인 가정방문	(031)919-8677
춘천시노인종합복지관	9.12~17	'자비손' 송편 빚기(13일), 경로당 방문	(033)255-8866

불교박람회 참가 접수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불교산업 전문전시회 '2006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에서 8월 25일부터 참가 접수를 시작해 선착순 마감한다.

불교방송과 제이컨벤션(J.convention)이 공동 주최하는 '2006 한국불교박람회'는 기존 불교산업 관련업체들의 판로확대는 물론 새로운 불교시장 개척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06년 3월 23~26일 서울무역전시장 전관에서 열리는 '2006 한국불교박람회'에는 '사찰건축 및 첨단포교' '전통차, 웰빙관' '불교장례문화' '사찰행사기획' 등이 전시될 계획이다.

한편 2006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은 최근 박람회 홈페이지(www.bexpo.org)를 오픈하고 행사 소개 및 참가 · 관람 안내 등을 시작했다. (02)736-0993 강지연 기자

청암사 승가대학 총 졸업식 및 불사회향 법회

귀의삼보 하옵고,

불령산의 맑고 푸른 정기와 천년고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유서깊은 경학도량 청암사 승가대학에서는 **제1회(1987년)~제20회(2005년) 총 졸업식 및 제5차 중창불사 회향 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제방에서 정진 중인 청암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고, 평소 청암사를 아껴주시는 대덕스님들 및 불자님들께서는 왕림하시어 법석을 더욱 빛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법 회 안 내

● 날 짜 : 불기2549(2005)년 10월 2일(음 8. 29) 일요일
● 시 간 : 오전 10 시
● 장 소 : 청암사 대웅전
● 문 의 : 청암사 종무소 (054)437-0038, 437-9665
● 홈페이지 : www.chungamsa.org (한글도메인 : 청암사)

대한불교조계종 청암사승가대학

학장 의정 지형
주지 의진 상덕 합장

청암사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번지 전화 054)437-0038 / 팩스 054)437-9664 / 홈페이지 : www.chungamsa.org (한글도메인 : 청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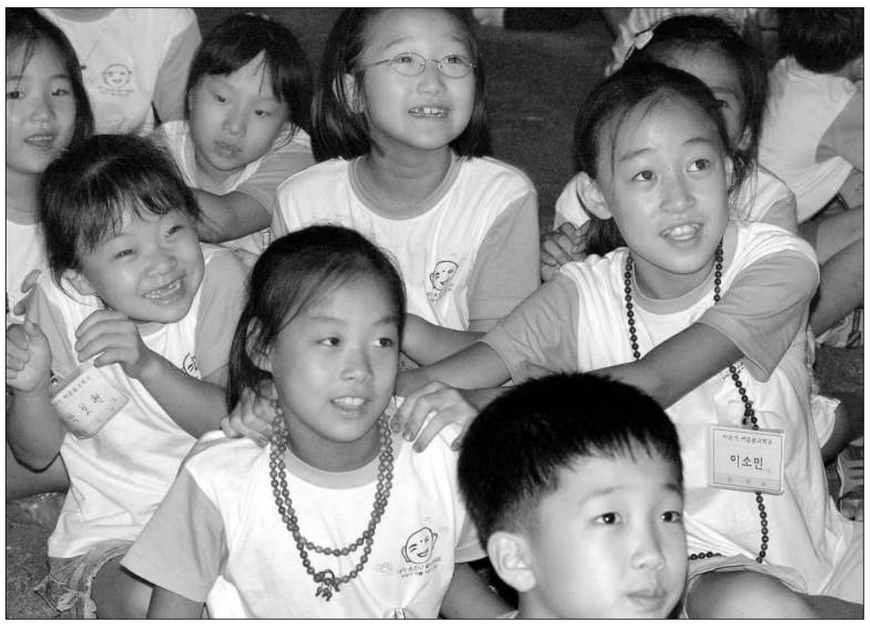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지금 불교계는 어린이 · 청소년 불자 층의 감소로 인해 불교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있다. 200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 · 고등학생 불교인구는, 개신교(50.2%)+천주교(15.5%)의 65.7%에 비해 절반 수준인 31.5%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린이 청소년 불자의 감소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어린이 · 청소년이 없는 한국불교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마당은 좀처럼 넓어지지 않는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무엇일까.

한국불교 미래, 전문지도자 양성에 달렸다

● 글 싣는 순서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13. 기자방담



어린이 · 청소년 포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 사찰의 원력, 우수한 지도자, 특화된 프로그램 등의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사진은 여름불교학교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 지지부진한 청소년 포교, 문제점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9월 현재 어린이 법회를 열고 있는 조계종 사찰은 1389곳 중 29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는 1만여 명에 불과하다. 청소년 법회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 조한곤 과장은 “서울 지역에만 300여 개가 넘는 사찰이 있는데 그 중 청소년 법회를 여는 곳은 10분의 1도 안된다”며 “파라미타가 지원하는 사찰학생회 역시 20여 개 안팎”이라고 털어놓았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가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전문 인력과 제대로 된 프로그램의 부재, 달라진 청소년 문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낡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포교방식, 물질적인 지원의 미비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지도자들은 국내의 독특한 입시전쟁도 포교의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스님과 재가자들이 바라보는 청소년 포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며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 강한 원력이면 못할 것 없다

사실 어린이 · 청소년 법회는 끊임없이 투자가 이어져야 하는 분야다. 투자는 계속되지만 당장 나오는(?) 것이 없기에 대부분의 사찰은 어린이 · 청소년 법회 열기를 기피한다.

전국에서도 불교세가 가장 약하다는 충청남도 지역에서 보령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정운 스님(세원사 주지)은 “스님과 청소년 지도자가 강한 원력만 세운다면 청소년 포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현재 보령시는 불교계에서 어린이 · 청소년 포교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 중 하나다.

세원사를 창건하던 1989년, 보령시 주민은 약2000세대로 중 ·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청소년 포교를 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스님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보령지부를 설립하고 시내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냈다.

1995년 개소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인식을 천천히 바꿔나갔다.

이렇게 세원사는 충남지역 청소년 포교의 거점 사찰로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2억 원을 지원받아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열었다.

정운 스님은 “사찰 재정이 어려운 곳은 청교련이나 파라미타 등의 청소년 단체에 반드시 가입해 행사보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포교에 원력을 세운 스님이라면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거창 정토사(주지 수현)의 경우 어린이 법회를 열자 전체 신도수도 늘어났다. 농촌인구가 대폭 줄어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요법회조차 열지 못하는 주변사찰들의 정황과 비교해보면 이례적이다. 정토사는 20년 전부터 어린이 포교에 매진, 현재도 스님들이 봉고차를 운전해 아이들을 실어 나른다. 이러한 열성적인 법회 운영과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부모들까지도 사찰 신도가 되고 있다.

수현 스님은 “농촌에서는 사찰이 운행하는 봉고차가 꼭 있어야 포교가 가능하다”며 “정토사 스님 5명은 모두 1종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법회에 오고자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간다’는 심정으로 포교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도자 교육 꾸준히 이어져야

청소년 포교영역에서 지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지도자와 청소년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포교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절한 불자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할 만한 기관은 많지 않다.

현장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종단이 앞장서 지도자 교육이나 제도적인 지원 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조계종은 그간 종단차원에서 청소년 포교를 담당할 지도자 육성을 위한 연수나 교육훈련 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원불교 교단이 중앙총부 교정원(중앙집행기관) 교화훈련부 내에 청소년국을 두고 매년 여름 청소년 지도자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청소년 포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포교원의 중장기 계획은 물론 예산편성에 청소년 지도자 교육을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청소년 지도자를 육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출가자는 의무적으로 청소년 포교 실습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도봉중학교 이경석 교감은 “종단에서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청소년지도자 연수를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장했으나, 그동안 예산과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며 “포교원 업무의 한 영역으로 청소년 지도자 교육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감은 또 “종단 내 수 많은 청소년 포교단체들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관계자 협의회를 구성 · 운영해 지원자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종립학교 내에 청소년학과를 개설해 청소년 지도자를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명지대나 극동대와 같은 기독교와 천주교 계열 학교들은 이미 종교성을 내세운 사회복지학부를 만들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불교계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 내에는 청소년학과가 없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은 “사회체육학과를 증원해 청소년체육지도학을 전공한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종립대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프로그램 다양화로 승부

‘N(Network, Next, New type)세대’를 대상으로 포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포교 전략프로그램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부산 금화사(주지 대안) 어린이 법회의 경우 한 달에 두 번씩 PC방에서 포교활동을 할 뿐 아니라 찜질방 수업까지 병행하고 있다. 절에서만 교육해야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N세대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법회를 줄이고, 대신 참선실수나 영어법회, 청소년 상담 등으로 아이들과의 접근을 꾀하는 사찰도 있다.

거제 금강사(주지 성원)는 어린이들을 위한 한문학당, 방과 후 공부교실, 연극 · 영화관람 등을 통해 아이들의 문화공간을 겸한 놀이공간으로 거듭나자 자연스럽게 어린이 법회참석자도 늘어났다. 특히 주지 성원 스님은 유아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어린이 집 운영으로 자연스럽게 학부모들도 불교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장에서 포교에 임하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교에 응용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200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7명은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사용 용도로는 인터넷 이용이 87%를 차지했다. 이 같은 N세대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통한 문자포교나 e-메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회원들과 지도법사가 실시간으로 리플을 달아가며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일회성 행사는 그만

의정부 지역 모 교회는 여름방학 성경학교에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가비 3000원을 받고 게임기, 롤러블레이드, 자전거 등 각종 경품을 내걸었다. 마치 그물로 고기를 낚듯 인근 아이들을 싹쓸이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못할 짓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름성경학교는 성황을 이뤘다. 어린이 · 청소년 선교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교회의 과감성에도 분명 배울 점은 있다.

조계종이 2005년을 기준으로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책정한 예산은 2억 원 남짓. 단위사찰이나 종단이나 어린이 ·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는 매한가지다. 단기간에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어린이 · 청소년포교의 어려움 때문에 이를 무조건 방치 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다.

어린이 · 청소년포교를 위한 기금 조성도 고민해야 한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나서지 못하는 사찰은 기금조성에 동참하고, 이들의 포교를 전담하는 사찰에 기금이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간, 불교계는 끊임없이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해왔다. 그러나 많은 정책들이 일시적인 행사성 기획에 불과했다. 사찰건물을 증축하고 짓는 불사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인재불사 없이는 불교의 미래를 자신할 수 없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위한 종단의 정책과 사찰의 원력, 전문 지도자의 양성과 활발한 현장활동이 어우러지는 인프라 구축이 바로 불교의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

조용수 · 이은비 기자

출가자에 청소년 포교 실습 의무화
기금조성 · 지도자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N세대 특성 반영 프로그램 다변화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4차 공청회

우리 위원회는 3회에 걸쳐 불교대학의 교육목표를 비롯하여 학과편제 및 교과과정, 우수교원 초빙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제4차 공청회에서는 **“불교대학(원) 졸업생의 진로개선방안”**을 주제로 하여 나날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졸업생의 진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 제 : **불교대학(원) 졸업생의 진로개선방안**

■ 일 시 : 2005년 9월 12일(월) 오후 1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 사회 : 학담 스님(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

◆ **발제 및 논평** (오후 1시 ~ 3시)

1. 제 1주제 : **불교대학(원)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과 개선방안**
   – 발제 : 김성철 교수(동국대 불교문화학부)
   – 논평 : 조의연 교수(동국대 학생처장), 차차석 박사(동국대 강사)
2. 제2주제 : **불교대학(원) 졸업생의 진로개선을 위한 불교계의 협력방안**
   – 발제 : 화랑 스님(조계종 불학연구소장)
   – 논평 :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용 행정관(청와대)

◆ **종합토론** (오후 3시 ~ 5시)
• 지정토론 : 불교계 기관 · 단체 등의 전문가
• 방청토론 : 참석대중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발전위원회

문 의 : 02)2260-3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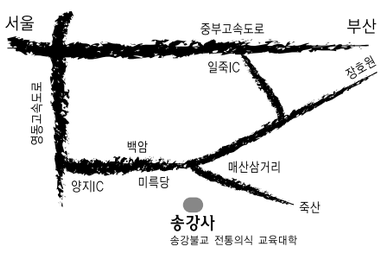
2005년 송강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시방세계에 가득 하길 기원하며.....
고(故)박송암스님께서는 열반하시기 10일전 소승을 불러 스님께서 정리해놓은 여러 자료와 범패의 짓소리 및 범음을 10시간가량 녹음해 주시면서 범패의 맥을 잇도록 당부 하셨습니다. 고(故)박송암스님의 유지를 받들고자 소승이 전승한 송암스님의 범패를 후학들에게 계승하기위해 **송강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을 설립하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과목

학 과	과 목	모집인원	수업기간
기초반	도량석. 종성. 예불. 각단불공	OO명	6개월
중급반	49재. 천도의식 (시련.대령.관욕.관음시식.상용영반.화엄시식)	OO명	6개월
특수반	복청게.천수바라.도량게.다게.사다라니.나비춤	OO명	6개월
연구반	**예수재.**수륙재. 점안의식	OO명	6개월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사진 반명함판 2매
● 교육기간 : 각반 주 1회 2시간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문 의 처 : 우편번호(456-89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송강불교의식교육대학장 오송강 합장
☎ 031) 676-5929, 핸드폰 : 011-9677-4877



"제대로 알아서 잘 전해야죠"

템플스테이 사업단, 해인사서 외국인 가이드 교육



템플스테이를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조계종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외국인 가이드를 대상으로 정확한 불교문화와 사찰예절을 교육하는 '템플스테이 가이드교육'을 실시했다.

"사찰양식이나 불교문화는 책이나 자료를 통해 배우면 너무 피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불교문화를 제대로 배워서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참석했어요."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사무국 주최로 8월 30일~9월 1일 해인사에서 열린 외국인 가이드 교육 참석자 이경미(28)씨의 말이다. 불교문화사업단이 처음으로 실시한 '템플스테이 협력 여행사 가이드를 위한 템플스테이 가이드교육'에 보내는 일어권, 영어권 가이드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뜨거웠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불교문화와 템플스테이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가이드들의 욕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8월 30일~8월 31일 교육에는 일어권 통역가이드 61명, 8월 31일~9월 1일에 진행된 교육에는 영어권 통역가이드 26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일어권 가이드는 무려 100여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고, 영어권 가이드는 참가자의 30%이상이 템플스테이 참가 경험이 있거나 템플스테이 가이드 경험이 있어, 첫 프로그램부터 불교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다.

오후 3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한 첫날은 템플스테이 사무국장 주경 스님의 '템플스테이 통역가이드의 역할' 강의, 저녁 공양, 예불이 이어졌고 미황사 금강스님의 다도 강의로 마무리됐다. 둘째 날에는 새벽예불, 참선, 숲길명상, 발우공양, 울력, 사찰안내, 불교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관광가이드협회를 통해 참석한 통역 가이드들은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스님들의 수행이나 한국불교가 갖는 세세한 의미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교육으로 한국불교를 제대로 알고 또 외국인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이번 교육 참석자 전원에게 일어와 영어로 된 템플스테이 가이드 교육보조 자료집과 한국불교에 대한 안내 자료집, 또 템플스테이 사찰이 소개된 지도 등의 자료도 만들어 제공했다.

영어 · 일어 통역사 87명 참가
직접 체험 위주의 교육 진행

한편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하반기 외국인 유치를 보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고자 인바운드 여행사 및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들을 초청, 8월 26~27일 양일간 경북 안동 봉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날 봉정사 템플스테이에는 여행사 및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들이 참가해 템플스테이 사업의 해외 홍보와 마케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템플스테이 사무국장 주경 스님은 "이번 가이드 교육을 시작으로 템플스테이 사무국이 사찰과 여행사간의 조정자로서 템플스테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통역가이드들의 불교교리 및 소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 사진/해인사=배지선 기자

지율 스님 2천마리 도롱뇽과 함께

'초록 공명과…'에서 수 · 종이 작품, 사진 전시



전국 도롱뇽 친구들이 수놓아 보내온 '2천마리 도롱뇽의 함성'.

100일간의 생명을 건 단식기간 동안 지율 스님의 뜻을 지지하며 전국의 도롱뇽 친구들이 수놓아 보내온 2천 마리의 도롱뇽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9월 6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민주공원 기획전시실에서 '초록의 공명과 도롱뇽의 함성'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전시회에서 이 도롱뇽을 만나볼 수 있다.

민주공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생명운동의 정점에 있는 천성산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함께'라는 주제로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준비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 땀 한 땀 손으로 수놓은 '도롱뇽의 함성(2000천 마리 도롱뇽 수작)'과 종이로 접은 도롱뇽 200,000만 마리가 바닥에 전시돼 장관을 이루며 천성산의 사계와 생태계 사진 150점, '초록의 공명' 영상물도 상영한다. 특히 직접 도롱뇽을 수놓고 종이로 접는 행사가 마련되며 신문기사 · 편지 모음, '초록공명' CD 판매 등을 통해 그동안 천성산 운동의 개요를 살피고 뜻을 모으는 시간도 갖는다.

지율 스님은 "천성산의 이야기는 개발로 신음하는 이 땅의 상징적인 이야기"라며 "도롱뇽을 수놓고, 도롱뇽을 접으며 천여 통의 편지를 함께 썼던 분들이 가졌던 생명에 대한 외경심과 사랑이 더욱 크게 공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462-1016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헌 물건에 새 새명을 이웃에겐 희망을!

대구 남구시니어클럽 소외계층돕기 바자회



대구 불교사회복지회 산하 남구시니어클럽이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단 '행복한 나눔가게' 어르신들이 사업 1주년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섰다.

아동의류, 신발 잡화를 취급하는 수입전문업체 '니지'가 기증한 700여점의 아동용품을 지역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에게 재기증하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날'을 마련한 것이다. '니지'가 기증한 물건은 운동화, 여름샌들, 가방, 의류 등 모두 매장에서 판매하던 새 물건이다.

8월 30일~9월 1일 3일간 열린 행사에는 구세군 대구 혜천원, 유리어린이집, 천광보육원, 영생애육원등 지역 아동복지기관 및 시설, 공부방 어린이 150여명이 다녀갔다.

'행복한 나눔가게'는 앞으로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물품을 테마별로 기증받아 재기증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053)474-1144 배지선 기자

효행불교 대중화 '앞장'

대현그룹 손현수 회장 안동 홍효사 28일 개원



효행불교를 대중화하기 위한 포교당 홍효사가 8월 28일 안동시 홍현동에 문을 열었다.

대한불교 홍은선원 안동불교회관 홍효사(주지 법광)는 2004년 10월 (사)대한불교 홍은선원을 설립한 대현그룹 손현수 회장의 원력으로 세워졌다.

행사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은해사 주지 법타, 고운사 주지 혜승 스님, 김휘동 안동시장, 대현그룹 손 현수 회장과 임직원 및 불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월주 스님은 "지극한 효심은 모든 도덕행의 근본으로, 부처님 가르침과 효심을 하나로 묶는 이 운동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은선원 이사회 의장이며, 홍효사 창건주인 대현그룹 손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효행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신라 42대 흥덕왕때의 국효 홍효공 손순의 효행실천을 근간으로 홍효사를 개원했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팔만대장경 동판 영구 보존 본격화"

해인사 '성공기원대회' 개최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동판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이 본격화됐다.

'민족문화 보존, 국민대화합을 위한 팔만대장경 동판간행 성공기원대회'가 8월 26일 가야산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렸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임직원 일동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는 주지 현응 스님과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 인사, 법장 스님 치사, 축사 기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우리가 간직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단순히 불교적,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민족 대단결의 의미가 담긴 동판 불사가 원만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 대회를 통해 팔만대장경을 동판으로 복원해 영구 보존하는 범국민운동이 본격화됐다"고 공표했다. 배지선 기자

APEC 성공 위한 특별 기도회
부산 종교 지도자 250여명 참가

부산종교인평화회의(상임대표 정각)는 8월 24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불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의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부산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기도 및 결의대회에는 정각 스님과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 개신교 정영문 목사, 천도교 안관성 종법사, 원불교 박순정 교구장 등의 원로와 방영식 목사, 최신길 원불교 교무 등 부산의 종교인 25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다.

부산시의 APEC 준비상황 보고, 축시 등에 이어 부산 APEC을 맞아 부산의 종교인들이 역할과 다짐이라는 결의문을 통해 품격 높은 시민정신과 국제적 시민의식 발휘, 부산의 세계화, 봉사 및 참여활동 등에 종교인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천미희 기자

제12회 가족사진 콘테스트
최우수상에 이태현씨 수상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이 주최한 '제2회 가족사진 콘테스트'에서 이태현(76세. 청각장애3급)씨의 출품작 '우리집 재롱이(사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20여점의 작품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제5회 추석맞이 지역주민 화합한마당 잔치인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열린 음악회' 때 전시할 예정이다. (054)776-7522 배지선 기자

헌다례 · 재즈 · 창 등 행사 다채

부산불교육대학(학장 강선태)은 9월 2일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과의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하며 문화공연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공연은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설 신행단체의 공연이 펼쳐졌고, 2부에서는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박수 채를 받았다.

1부 행사는 헌다례, 종성에 이어 심여회의 수화 통역으로 환희지 합창단의 공연과 환희지 사물놀이의 공연이 펼쳐졌고, 2부는 국악관현악 연주, 국악관현악과 함께하는 재즈, 창 등이 이어졌다. 천미희 기자

노고산 흥국사 혜명선원 건립불사 모연문



노고산 흥국사 혜명선원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28년(무진년)에 건립되어 해송 대화상 등 역대 고승대덕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동별당 건물이 노후하여 퇴락함에 중건할 시절인연이 돌아옴이라!

대한불교조계종 법전 종정예하께서 명명(命名)하여 주신 혜명선원(慧命禪院)으로 다시 건립하여 눈푸른 납자들이 수행 정진하는 수도권의 참선도량으로 거듭나고자 발원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무루 동참하시어 한량없는 공덕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천년고찰 약사도량 흥국사 주지 대오 합장

혜명선원 불사내역 및 복전금

대들보	10,000,000원	기 둥	8,000,000원
도 리	5,000,000원	추녀 · 사래	8,000,000원
창 방	4,000,000원	장 혀	2,000,000원
주춧돌	1,000,000원	한식 창호	500,000원
서가래	300,000원	부 연	100,000원

- 동참자 명단은 불사 내역별로 상량문에 올려 영구히 보존합니다.
- 백만원 이상 동참하신 분은 만년위패를 모셔드립니다.
- 50만원 이상 동참하신 분은 9월 4일(음 8월1일)부터 500일동안 매일 사시에 축원하여 드립니다.

혜명선원 건립불사 500일 기도안내

입재 : 2005년 9월 4일 일요일 (음 8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향 : 2007년 1월 19일 금요일 (음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계좌 및 문의 접수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4-01-0591-948 (예금주 흥국사)

전 화 : 흥국사 종무소 02)381-7970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약사도량 흥 국 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 전화 02)381-7970 / http://heungguksa.or.kr

각진국사 속가문중 650년만에 큰절



각진국사 추모재에 앞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과 고성이씨 대표 이한동 前 국무총리가 국사전에서 헌향하고 있다.

열반 650주기 추모재에 후손 500여명 참여

문중 추모재 정례화키로

"각진국사 할아버지, 엎드려 참회하옵나니 어여삐 받아주소서."

8월 31일, 송광사 제13세 각진(覺眞)국사의 열반 650주기를 맞아 국사의 속가 문중인 고성 이씨(固城李氏) 방손들이 송광사 국사전을 찾았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500여명의 속가후손들은 "오랜 세월 무심히 보낸 후손들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며 각진국사 진영에 꽃과 차를 올렸다. 무려 650년만의 큰 절이었다.

고성이씨 문중 대표 이한동(前 국무총리)씨는 추모사를 통해 "국사할아버지는 속가 문중의 크나큰 자랑이자 자존이며 긍지였다"며 "문중의 후손들은 나라를 융성시키고 민생을 복 되게 하신 국사할아버지의 뜻을 새겨 인류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데 힘 쓰겠다"고 다짐했다.

송광사 회주 법흥 스님도 법어에서 "송광사 16국사 가운데 속가 후손들이 기일을 맞아 추모하기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뜻깊은 일이다"며 "각진국사가 보이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추모재에 고성이씨 문중들의 참여를 주선한 이선전 포교사는 "문중 후손들에게 각진국사의 행적을 알리고 가르침을 되새기고자 한다"며 "문중차원의 추모재 참석을 매년 정례화 하겠다"고 밝혔다.

각진국사는 1270년(고려 원종) 고성이씨 아버지 문희공 휘 존비와 어머니 익산 이씨의 둘째 아들로 경남 고성에서 탄생했다. 속가 이름은 정(精), 출가 법명은 복구(復丘)이다. 10세에 조계산 제5세 원오국사를 은사로 삭발 득도하고, 1321년 송광사 제13세로 주석하며 20여 년간 종풍을 떨쳤다. 1350년 충정왕이 왕사로 봉하고 각엄존자라 칭했다.

글 · 사진/송광사=이준엽 기자

경기남부 교사불자 뭉친다

경기도 남부지역의 교사불자들이 신행모임을 결성할 전망이다.

안양, 군포, 의왕, 안산 등 경기남부지역 교사불자 40여명이 9월 8일 오후 6시 30분 군포 정각사에서 경기남부교사불자회 발기법회를 개최한다.

경기남부교사불자회가 창립될 경우 서울 · 경인지역을 한 지부로 묶어 관리하던 교사불자회의 조직 세분화는 물론, 거리가 멀어 참여를 주저했던 교사불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봉영 기자

청소년 B-boy 배틀대회 열려

월정사, 제2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제

제2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제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청소년 문화사업 일환으로 청소년 B-boy 배틀대회가 열린다.

월정사 문수청소년회 주관으로 열리는 배틀대회는 10월 1일 오후 2시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4시 30분부터 16개팀 배틀형식으로 진행된다. 갬블러 크루의 축하공연 속에 오후 6시부터 4개팀 배틀형식으로 본선전이 열리며, 결선은 최종 2개팀 배틀형식으로 치러진다.

1위를 수상한 팀에게는 장학금 200만원, 2위를 수상한 팀에게는 장학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참가팀 전원에 교통비가 지급되며 지방에 거주하는 참가팀에게는 숙박도 제공된다. 참가는 인터넷(foxlike1229@naver.com)과 전화(033-335-1318~9)로 접수.

이번 축제는 이 외에도 △석가모니불 진신사리 이운식 및 친견 △한국, 대만 채식향연 △천년의 소리 찾아 떠나는 별빛 걷기 △선(禪)음악회 △학술세미나 △각종 수행체험 등이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수원포교당, 청주에 청수사 10월 개원

지역포교 · 봉사자 확보 기대

수원지역에서 모범적인 포교활동으로 귀감이 되어온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이 충북 청주에 포교당을 개설한다.

청수사(주지 지견)로 명명된 이 포교당의 정식 개원 시기는 10월초께. 수원포교당이 청주지역과 인연을 맺은 것은 청주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면서 부터다. 청주북부사회복지관에 정기적으로 나오던 자원봉사자들이 포교당 개원을 요청한 것.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은 청주지역 포교와 봉사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이를 수락했고, 지난해 8월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39-5번지의 건물 3층에 자리를 잡고 기초교리 강좌를 시작하면서 전법도량의 면모를 갖춰나갔다. 법당과 요사, 사무소 등 100여평 규모인 청수사는 개원을 한 달여 앞두고 인근 불자들과 예비불자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8월 29일 열린 청수사 기초교리강좌 입교식 모습.

이 자리에서 성관 스님은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청주 포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043)218-9995

글 · 사진=혜철 대전지사장

송광사, 몽골 어린이에 불서 보급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영조)가 몽골불교재건을 위해 몽골 어린이 포교를 지원한다.

금년초부터 몽골어린이 포교를 준비해온 송광사는 지난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대표단을 몽골 현지에 파견해 지원방안을 협의토록 했다.

현지 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대표단에 따르면 몽골 간단사에서 몽골어린이 포교를 위한 실무를 논의하고 "어린이 포교에 필요한 물품과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울란바트로 간단사와 연꽃 고아원을 방문하고 미리 준비한 겨울옷 40박스, 학용품 10박스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한 대표단은 몽골 불교계로부터 몽골어 <불교성전>, <부처님 일대기> 보급이 시급하다는 건의를 받고 1만여권을 금년 말까지 국내에서 인쇄해 전달키로 했다.

한편 대표단은 현지답사 일정도중 몽골 대통령 영부인의 초청으로 영빈관을 방문하고 오찬을 나눴다.

이준엽 기자

금종 스님 자서전 출판기념회



금종 스님이 출판기념법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리산 천은사 주지 금종 스님은 9월 1일 대웅전 앞 마당에서 '자서전 <다시태어나도 이길을>(광문각 刊)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죽림정사 조실 도문, 종회의장 법등, 군종교구장 일면,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과 지역기관장, 신도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군포 정각사

교육 통한 실천불교 생활화



정각사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 신도들의 시각을 사회로 넓혀준다. 정각사 주지 정엄 스님과 신도들이 사찰운영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층아파트가 길게 늘어선 군포시 산본의 중심상가에 자리 잡은 정각사(주지 정엄). 지역불자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는 정각사는 신도시 포교를 일구는 도량이다. 다른 종교와 달리 신도시포교에 취약한 불교계의 안타까운 현실이 이곳 군포에서 만큼은 예외로 평가받는 것도 정각사의 지역포교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각사는 2001년 11월 개원한 이래 1000여 가구에 달하는 신도 확보는 물론 300평이 넘는 신행공간을 마련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좋은인연맺기' 운동 통해 중 · 고교생 가장 후원

신도 · 학인 모임, 지역민 혼합 봉사조직 체계화

뿐만 아니라 군포시청, 군포경찰서에 불자모임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지역불심을 하나로 모아나가고 있다.

이처럼 정각사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주지스님께서 앎을 실천으로 옮기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반야행(43 · 군포 산본동) 보살의 말에 그 답이 있었다. 교육인 셈이다. 여기에 신도조직을 효율적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고, 지역 · 계층별 포교전략에 따라 매진해 나감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엄 스님은 결식아동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 · 고교생을 후원하는 '좋은인연맺기'를 통해 신도들의 시각을 사찰에서 사회로 넓혀주고 있다.

정각사는 개원 이후 줄곧 불자로서의 소양을 키우기 위해 신도교육과 불교교육에 힘써 왔다. 올해에는 정식과정인 화엄불교대학을 개교했다. 1기 모집에 160여명의 불자들이 등록할 만큼 신도들도 열성적이다.

학생들은 봉사를 정기적으로 생활화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신 · 해 · 행 · 증'의 학훈을 구현해내고 있다. 군포 가야종합복지관과 매화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화성 자재정사 등지에서 눈부시게 활동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정각사는 지역단위 신도모임과 불교대학 학인모임을 적절히 혼합한 봉사팀을 비롯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묘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한 동을 한 팀으로 묶어 지역팀을 만들었고, 지역팀원들을 다시 불교대학 학인모임과 결합시켰다. 이들은 어린이 · 청소년포교를 비롯해 정각사 운영과 봉사활동 등의 중심을 이룬다.

정각사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이와 다름없으면서도 어린이 · 청소년 법회까지 운영하는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법회와 중 · 고등부 법회가 열리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PC방, 노래방을 갖춘 전천후 놀이터로 바뀔 정도다. 글 · 사진=박봉영 기자

자연 속에 천둥, 번개칠 때의 대기정화 방식

새로운 기술방식의 공기청정기



model:XL-15



model:Fresh Air

TEL : (02)2055-0202
FAX : (02)2055-027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딩 518호
www.o2air.net

공기청정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연의 원리를 재현한 'Living Air'의 특성"

無병균 천둥,번개가 일어날 때 지구를 정화해 주는 원리를 도입하여 실현된 100%살균 능력으로 신선한 공기 생성.

無필터 신소재 린트스크린 방식으로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성능의 저하를 막아 줍니다.

無소음 Thunderstorm Theory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작동의 소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반영구 후면 신소재 스크린과 카드플레이트의 세척만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 으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이동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뢰성 미국과 캐나다환경 보호청 및 국내 산업공해연구소의 시험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미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조절가능 5평에서 84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자연의 신선한공기 우리가 꿈꾸는 내일

자연에서는 공기가 천둥번개와 비로 인하여 깨끗해진다. 천둥번개는 오존을 생산하고 또한 양이온과 음이온을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 한다. 비는 오존과 이온을 지구표면에 가까이 내려오게 한다. 오존과 이온은 대기의 오염물질에 부착하여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제거 하고 지상에 떨어지거나 산화 시킨다. 리빙에어는 야외의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기기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공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공기를 여과하거나 나쁜 증세를 가리거나 희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청정한 상태로 정화하는 것이다. 이온화는 공기 중에서 먼지입자와 오염물질을 충전시켜 더 끌어당기게 함으로서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한다. 입자는 계속적으로 더 큰 입자로 커지다가 결국 그 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오존은 먼지에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해 준다. 이 모든 순수한 오존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Living Air의 생성 및 Fan에 의한 송출방식으로만 유지된다.

미국 Ecoquest사 제작 수입완제품이며 탁월한 기술력으로 스피커만한 크기로 84평까지 청정지대로 유지하며, 필터가 없으므로 교환의 수고가 없고 구입 후 별도의 유지비가 전혀 없음

인증서

▶ 산업공해시험성적서 : 오존수치(세계안전 오존(O_3) 안전수치 0.05ppm이하)
▶ CSA : 캐나다 표준협회 발행 산업안전규격 승인청
▶ EPA : 미국 환경보호청(검사인증서) ▶ 미국방성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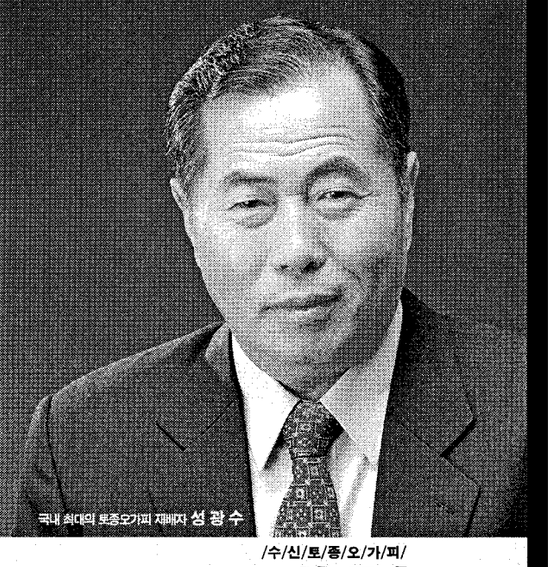


◀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발행 분진, 수은 검사 측정결과서

다중 시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사찰 및 복지기관에 꼭 필요합니다.

수신토종오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왕에게
측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토종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24년의 기다림 !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수/신/토/종/오/가/피/ 예헌 禮獻

품질로 평가받겠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 규격과에서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오직 900분께만 매월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갑을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오가피에서도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갑만 생산할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때문입니다.

수신오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복제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월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안겨드립니다.

※ 산삼배양근이 함유되어 있다는 모 업체의 오가피 제품은 성광수씨나 수신오가피와 하등의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예가 서병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청다완을 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다양한 포교활동 불심 '쑥쑥'

경기 수원 · 화성

수원 사암련 탄탄…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화성 용주사 신흥사, 생활불교 이끌어



화성 신흥사의 일일출가 수련법회. 신흥사는 수련도량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다양한 신행 및 포교 프로그램으로 지역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 수원

인구 110만명의 수원. 사찰 수는 50여 곳으로 인구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 경기지역 대부분이 그렇듯이 수원도 개신교세가 훨씬 강하다. 하지만 수원 불교는 위축되지 않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수원포교당과 청련암 등 상당수 사찰들이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심기에 나서고 있고, 조계종의 비구니 전문강원인 봉녕사도 수원불교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사암연합회도 단결력을 과시하며 불교 위상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수원불교 포교 1번지인 용주사 수원포교당은 교육 · 포교 · 문화 · 복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수원불교의 지형을 바꿔나가고 있다.

1986년 경기불교대학을 개설해 34회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있고, 수원서호노인복지관과 청주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지역복지에 기여했다.

또 부처님오신날과 성도재일, 그리고 10월 보름을 전후해 연중 세 차례의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지역문화창달에 이바지하고 있다. 남성 · 어머니 합창단, 다도회, 서도회, 봉사회,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 거사회 등 각급 신행단체 활동을 통해 신행문화를 활성화시켰다. '수원 불교는 수원포교당으로 통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원포교당은 모든 분야에서 발군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원포교당이 수원을 대표하는 포교도량이라면 봉녕사는 수원불교의 정신적 축이다. 한국불교 비구니계를 대표하는 강백인 묘엄 스님이 이끌고 있는 봉녕사 승가대학은 수원불교의 자랑이자, 비구니 인재 양성의 산실로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밖에 용화정사는 경로잔치와 수원구치소 · 안양교도소 등 재소자 교화에, 팔달사는 거사회 · 청년회 등 각급 신행단체를 통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또 청련암은 20년 역사의 불교유치원(연화유치원)으로, 진각종 유가심인당은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자치단체로부터 공공도서관으로 인가받은 어린이도서관(화홍 어린이도서관)으로 새싹 포교에 나서고 있다.

사암연합회의 활동도 안정적이다. 연꽃행사와 꽃심기 방생 등 시민들을 위한 행사를 열어온 수원사암연합회는 올해 수원시 불교음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사암련 행사는 대부분 사찰들이 물적 ·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만큼 단합이 잘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 화성

화성에는 두 곳의 큰 그늘이 있다. 한 곳은 용주사요, 또 다른 한 곳은 신흥사다. 용주사는 조계종 2교구본사로서 경기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고, 신흥사는 유일하게 어린이 정서에 맞게 지어진 '어린이법당'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어린이 · 청소년 수련도량이다. 이 두 사찰이 화성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화성 불교의 위상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특히, 용주사 인근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효행박물관 건립이 본격화되고, 또 2007년경에는 만의사 인근에 인구 15만의 동탄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화성 불교는 상당한 발전이 예상된다.

용주사는 교구본사치고는 비교적 '조용하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내실을 기하면서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아들 정조가 세운 용주사는 효행본찰답게 효행교육원을 건립하고 효사상 실천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승무제와 산사음악회 등 문화축제를 통해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또 스님들의 노후복지시설인 '서림당'을 건립해 문중 스님들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놓았다.

어린이 · 청소년 위주로 연평균 3000여명이 수련장을 거쳐 가는 신흥사는 수련도량으로서의 위상 못지않은 활발한 포교를 하고 있다. 한 달에 법회 참석 대중이 2000~3000명에 달할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흥사를 찾는 이유는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신심을 북돋워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이다.

칠석법회 때는 '좋은 부부인연상'을 시상하고, 우란분절 때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며 위로잔치를 여는가 하면, 학생회 창립기념일에는 문화축제인 '성불장터'를 여는 등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행사들이 많다.

또 어린이 · 학생 법회와 일요법회, 불교대학을 연계해 가족이 절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교대학 각 기수별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신행단체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는 것도 신흥사의 자랑거리다.

화성의 대표적 기도도량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의사는 경전독송과 참선 및 기도 프로그램 외에 24시간 법당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불자들의 신행을 돕고 있고, 봉림사도 지역 불교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명우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효찰대본산 이미지 뿌리내려

정락 스님 (화성 용주사 주지)



지난 10년 간 용주사를 상당히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주일에 평균 두 세 차례 대중법문을 다닐 정도로 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하자는 것이 정락 스님의 평소 지론. 효행교육관과 문중의 구참 스님들이 지낼 수 있는 노후복지시설, 성보박물관 등을 건립했으며 교도소 및 군 포교에도 적극 나서는 등 활발히 움직이면서도 밖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다. 효찰대본산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최근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효를 실천하는 청소년들과 불우한 어르신을 돕기 위해 '나눔통장'을 개설하고 '효실천 나눔 운동'에 나섰다.

수련시설을 확충해 템플스테이를 정례화하고 용주사 인근에 들어설 효박물관과 연계한 포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후학양성 30년, 비구니계 대표강백

묘엄 스님 (수원 봉녕사 주지 · 봉녕사승가대학장)



묘엄 스님은 1975년 봉녕사 승가대학을 설립하고 30년 동안 후학들을 지도해 온 한국 비구니계를 대표하는 강백. 승가대학 설립과 함께 학인들의 수행공간인 육화당과 사찰 최대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오늘의 봉녕사를 가꾸었다. 또 비구니 사찰로는 처음으로 율원을 개원해 봉녕사를 명실상부한 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끊임없이 배우고 배운 것을 회향해야 한다는 것이 묘엄 스님의 철학.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인 각자에게 한 가지 경전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해외포교·신행문화 확산 기여

성해 스님 (수원 팔달사 주지)



하나도 포교 둘도 포교. 성해 스님의 포교열정은 대단하다. 1988년과 92년 미국 뉴욕과 독일에서 불국사와 홍법원을 창건하고 해외포교에도 발을 내디뎠다. 현재 뉴욕불교국제봉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뉴욕불교를 이끌고 있다.

지역에서는 팔달사 신도회 청년회 등을 통해 신행문화 확산에 기여했으며,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문화관광지화하려는 수원시의 방침과 연계해 화성과 이웃하고 있는 팔달사 옆에 국제설법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선학원 중앙선원장을 역임했다.

재소자 교화 · 노인복지 심혈

성관 스님 (수원 용화정사 · 수원사암련 회장)

6년 째 수원사암연합회 회장을 맡아 수원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수원구치소, 여주교도소, 안양교도소 등 재소자 포교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경로잔치 등 노인복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불교방송 '지혜의 샘' 프로그램을 2년째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성관 스님은 보다 나은 포교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월 용화정사를 현대식 도심포교당으로 재건축할 예정이며, 장애인들과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을 발원하고 있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대명사

성일 스님 (화성 신흥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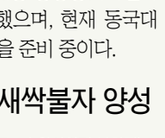


한국불교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대명사. 청소년수련원, 어린이 법당, 교육관 등을 건립하기 위해 10년 기도, 3000일기도, 2000일 기도를 연이어 했다. 오늘의 신흥사가 있기까지는 1986년부터 20년 세월을 한결같이 매진해 온 성일 스님의 원력이 뒷받침했다.

신흥사는 톡톡 튀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포교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 스님은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젊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을 정도. '포교는 신선하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일 스님의 지론. 지금 이 시간에도 '신선한 그 무엇'을 찾느라 해가 저무는 것도 잊고 산다.

수원불교 기반 다진 일등공신

성관 스님 (수원포교당 주지 · 실천승가회 공동의장)



수원의 스님들은 성관 스님을 확고한 포교 마인드와 실력을 겸비한 인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1986년 수원포교당 주지로 부임, 오늘의 수원 불교를 만든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사회복지법인 선재원 대표이사 등 현재 맡고 있는 직함만도 8개. 하루를 48시간으로 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국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박사논문을 준비 중이다.

어린이 도서관 건립 새싹불자 양성

혜정 정사 (수원 유가심인당 주교 · 수원사암련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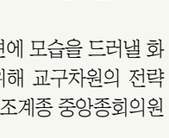


4000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혜정 정사. 그렇게 책 속에 파묻혀 지낸 50년 세월도 부족한 것일까. 혜정 정사는 어린이 도서관을 세우고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갔다. 책을 통해 새싹불자들에게 불심을 키워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교육원장 등 진각종 요직을 두루 거친 혜정 정사는 수원에서만 19년 간의 포교활동으로 지역불교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어린이 도서관을 전자도서관으로 만들고, 밀교수행과 교리를 널리 알리겠다는 발원을 하고 있다.

열린 절 표방, 지역중심 사찰 일궈

성직 스님 (화성 만의사 주지 ·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화성 불교를 이끌고 나갈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스님. 성직 스님은 편안한 절, 누구나 주인인 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포교라는 소신으로 만의사를 화성의 중심사찰로 발돋움시켰다. 신도들에게는 '버릴 수 있는 것부터 버리고, 배운 것은 반드시 행하라'며 늘 참회와 실천을 강조한다. 하심하며 온화함을 잃지 않아 신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용주사 부주지로서 2007년에 모습을 드러낼 화성의 동탄 신도시 포교를 위해 교구차원의 전략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도 겸하고 있다.

강한 추진력…대형 포교당 세워

월중 스님 (수원 용광사 주지)



1997년부터 용광사 주지를 맡은 이래 5년간의 대작불사를 통해 연건평 1000여 평 규모의 대규모 도심포교당을 일궈냈다. 9월 28일 낙성식을 앞두고 막바지 마무리에 여념이 없다.

월중 스님은 무슨 일이든 해내고야 마는 강한 추진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태종 총무원에서 15년 간 소임을 맡고 있을 정도로 업무능력이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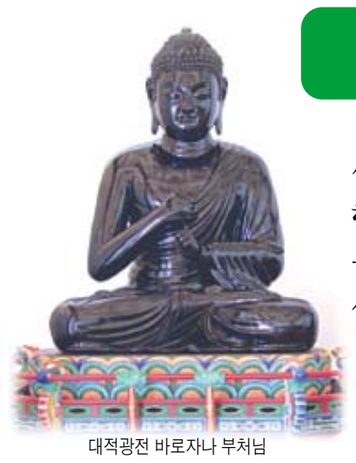
현재 총무원 교무국장과 의왕 대안사 주지도 겸하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교리강좌와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포교가 효과적임을 항상 강조한다.

해인사 비로자나불 100일 친견법회

● 기 간 : 불기 2549(2005). 9. 10. (토) - 12. 18. (일) 까지 100일간 ● 장 소 : 경남 합천군 해인사 보경당
● 내 용 : 두 분 비로자나 부처님 친견, 사리친견, 복장물 공개



법보전 바로자나 부처님



대적광전 바로자나 부처님

신라천년 목조고불 두 분 출현!!
해인사 비로자나불 100일 친견법회
두 분 비로자나 부처님 친견,
사리친견, 복장물 공개

청량한 한국불교의 정취를 담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9세기 통일신라 목조불상이 개금 불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법보전과 대적광전 부처님이 쌍둥이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밝혀졌습니다.
천 년 전의 먹빛이 생생한 명문의 발견으로
한국에서 가장 오랜 목조불상을 찾게 된 것입니다.
100일간 진행되는 해인사 비로자나불 친견법회에 많은 동참을 바라옵고,
1,200년 전 통일신라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비광명의 가피를 입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 ☎ 전화 055)934-3000~ 3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현응 합장



대통령 내외분 비로자나 부처님 친견

비구니전문강원 설립

태고종, 울산 보덕사에…초대 강주 일우 스님

총무원 교무부 직접운영, 학인 모집중



태고종 비구니 전문강원이 울산 보덕사에 설립된다.

태고종 총무원 교무부가 직접 맡아 운영할 태고 비구니전문강원은 사미과와 사집과, 사교과를 개설하고 9월 1일 학인 모집에 들어갔다. 초대 강주는 일우 스님(前 태고총림 선암사 강주 · 사진)이 맡았다.

태고종 소속 비구니는 총 1200여 명. 1월 초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여초 스님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재출범을 다짐하면서 종단내 비구니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태고 비구니 전문강원'의 설립은 태고종 비구니들의 종단관 및 정체성 확립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은 서울 법륜사와 파주 범륜사 비구니 강원이 문을 닫으면서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에 입학했었다.

그러나 선암사 강원은 전통적으로 비구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비구니들이 함께 수업하는데 불편이 컸다. 특히 선암사 경내에 비구니들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내 암자인 운수암에 거주하면서 등 · 하교하는 형태로 수업을 듣는 등 어려움이 많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 보덕사가 승가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량을 자체 정비하고 비구니 교육도량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보덕사에 '태고 비구니 전문강원'이 설치된 것이다.

태고종 교무부장 백운 스님은 "태고종은 매년 70~80 명의 비구니를 배출하고 있다"며 "태고 비구니 전문강원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후원 및 입학문의 교무부 (02) 382-7361~3, 울산 보덕사 (052) 264-5471.

김원우 기자

"우수한 인재들 종립대학에 多 모여라"

동국·위덕·금강대 10일부터 2학기 수시모집

각 종단의 종립대학들이 9월 10일부터 2006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을 시작한다. 특히 1학기 수시모집을 실시하지 않았던 금강대는 이번 2학기 수시모집에서 정원의 절반가량인 51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동국대(총장 홍기삼)는 일반우수자 전형과 불교계추천 전형 등 10개 특별전형으로 총 988명을 선발한다.

불자 자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불교계추천 전형(74명)'은 스님과 일반학생 전형으로 분류된다. 조계종 소속 스님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은 2005년 졸업 및 예정 인문계 고교출신이라야 하며, 조계종 산하 사찰 주지 또는 종립학교교장의 추천받으면 된다.단 불교계추천으로 불교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전과가 안 된다.

위덕대(총장 한재숙)는 9개 특별전형으로 총 497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신입생 모집정원의 50%를 선발하는 이번 수시 2학기 모집에는 불교계추천자, 취업자, 실업계고교출신자, 고령자 및 주부, 자매결연고교출신자, 기능우수자, 농어촌학생 특별 등 타 대학과 차별화된 다양한 전형을 실시한다.

위덕대도 '불교계추천(10명)' 전형을 실시하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종단 성직자와 신도를 대상으로 내신성적(100%)만을 심사해 선발한다.

금강대(총장 김유혁)는 2003년 개교 당시부터 엘리트 소수 정예교육을 추구하면서 수능성적 2등급 이내의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독특한 전형방법으로 대학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종교단체 추천자, 사회봉사자, 선 · 효행자, 국제화리더십 우수자, 학교장 추천자, 외국어 특기자, 전년도 수능우수자등 7개 특별전형으로 51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종교단체추천(10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의 성직자와 신도면서 종단대표의 추천을 받아 내신(70%)+면접(30%)만으로 선발한다.

조용수 기자

각 종립대 2006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 불교계 추천전형

학교	전형방법	인원	원서접수 및 문의	
동국대	1차 내신100% 2차 내신70%+심층면접30%	74명	9월10~16일	dongguk.edu, uway.com (02)2260-3031~4
위덕대	내신 100%	10명	9월 10~16일	uu.ac.kr, applybank.com (054)760-1060~5
금강대	내신70%+면접30%	10명	9월 12~15일	uway.com , allpybank.com (041)731-3050

진각종 전라교구청 신설

전주 항수심인당에…"지역 교화 발판"



8월 28일 열린 진각종 전라교구청 개설식에 참가한 진각종 스승들. 사진 왼쪽 네번째부터 회정 통리원장, 혜일 총인, 진성 전라교구청장, 휴명 회당학원 이사장.

진각종이 호남지역 포교 활성화를 위해 전라교구청을 신설했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8월 28일 전주시 태평동 항수심인당에서 전라교구청 개설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교구청 개설식에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항수심인당의 전라교구청 승격은 전라지역에 종단의 기반을 더욱 새롭게 하고 교화활성화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신임 전라교구청장 진성 정사는 인사말에서 "전라교구청은 앞으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과 관광의 중심도시에 걸맞게 포교불사를 제일로 삼아 교구체제를 반석 위에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총금강회장 원당 각자는 축사에서 "개설불사를 봉행하는 전라교구청은 전라지역에 육자진언 수행의 진리를 전파하는 중요한 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불사에는 혜일 총인을 비롯해 일정, 성초, 혜정 정사와 보인정전수 등 종단 원로스승들을 비롯 회당학원 이사장 휴명 정사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진각종의 교구청은 서울, 대구, 부산, 대전, 경주, 포항 등 7곳에 있다. 김원우 기자



8월30~31일 아산 도고온천에서 열린 총지종 경로법회. 500여 어르신들은 연예인 공연관람, 온천욕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얼~쑤, 경로잔치 한마당"

총지종 경로법회 성황…사찰 순례도

"이게 얼마만인가요? 2년 만에 또 뵙네요."

"그동안 몸 건강히 잘 계셨어요?"

어른신들에게 경로효친의 자비행을 실천하고 종도간 우의를 다지기 위한 총지종(통리원장 우승) 경로법회가 8월 30~31일 충남 아산 도고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2년마다 개최되는 경로잔치는 전국 사원에서 출발한 65세 이상 어르신 500여 명과 자원봉사자 50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총지종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메말라가는 가족의 사랑을 재확인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도고유스호스텔에 모인 총지종 교도들은 평소 전국에 흩어져 만나기 어려운 도반들을 만나 한껏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르신들은 30일 저녁 인기가수 9명을 초청한 장기자랑 및 공연을 만끽했으며 31일 오전에는 온천욕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들은 아산 인근 현충사와 수덕사 등도 참배했다. 강유신 기자

미륵종 울산종무원장 도신 스님 취임

미륵종 울산교구 종무원장 도신 스님 취임법회 및 교구 현판식이 8월 29일 울산 성불암에서 열렸다.

원로원장 정업, 종회의장 연봉 스님 등 30여 스님과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송정 스님은 "화합 승가를 구현하는 일은 종단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도신 스님을 중심으로 단결해 미륵종 울산교구의 발전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신 기자

미타종 간부수련교육 22일 금산 청림정사서

미타종(종정 벽암)은 8월 22~24일 금산 청림정사에서 간부수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수련교육에서는 종헌종법에 의거한 간부들의 책임과 직무에 대한 업무교육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미타종은 또한 24일 청림정사에서 인근 마을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었으며 30일에는 백마부대에서 전몰순국선열을 위한 위령재를 봉행했다. 미타종은 이어 9월 3~8일 태국 마하푸트남 사원 등지로 불교성지 순례를 떠났다.

강유신 기자

조계종 중진주지연수 180여명 참가 성황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올해 처음, 승랍 30년 이상 본 · 말사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한 중진주지연수를 8월 30~31일 아산 한국증권연수원에서 실시했다.

180여 스님이 모인 이번중진주지연수는 '사찰 자가진단 및 세무의 이해' 등 3가지 주제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해 수강하는 주제별 분반 교육으로 진행됐다. 올해 10년을 맞은 본말사주지연수는 종단 주지스님들의 재교육의 기회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용수기자

대흥·송광사 신도임원 10일부터 합동연수교육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주최하는 해남 대흥사, 순천 송광사 합동신도임원 연수교육이 9월 10~11일 해남 대흥사 보현전에서 열린다.

대흥사와 송광사 본사 및 말사 신도임원 및 포교단체 임원, 포교사들이 참여하게 될 이번 연수교육은 '조계종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신도회의 지도자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또 지역불교 활성화를 주제로 대흥사 주지스님과의 간담회도 마련된다.

이은비 기자

삼계종 창종

종정 서허, 총무원장 일초 스님



삼계종(총무원장 일초) 창종 및 종정 추대법회가 9월 5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봉행됐다. 이날 삼계종은 서허 스님(사진)을 종정으로 추대했다.

삼계종 종정 서허 스님은 1930년 아산에서 태어나, 46년 만응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49년 한암 스님을 증사로 구족계 보살계를 받았다. 김포 사암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천 연화사 조실이다.

삼계종 총무원장 일초 스님은 81년 해인사에서 월남 스님을 은사로 출가득도해 현재 인천 자원사 주지로 있다. 86~9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보유자 송암 스님에게 범패 작법무 전과정을 사사하고 2002년 인천시 무형문화재 범패 작법무 보유자, 2004년 인천 무형문화재 수륙재 보유자로 지정됐다.(032) 529-5191

강유신 기자

대승종 종도 연수 다보수련원서 열려



대승종(총무원장 청화) 종도연수교육(사진)이 8월 29~30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렸다.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150여 명이 동참한 이번 연수에서는 총무원장 청화 스님의 예불문 강의, 교육원장 도일 스님의 유마경 강의 등이 진행됐다. 청화 스님은 30일 회향식에서 "이번 교육을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계기로 삼으라"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수맥파 차단카드 나왔다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멜토차단캡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 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각종 질병을 유발 할 수 있다.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는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키며 차단한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77**

옴마니 반메훔 건강밸트

축복의 밸트!
성공의 밸트!
지혜의 밸트!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된다는 옴마니 밤매홈 건강밸트가 불교 법구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출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세상 사는 동안 악인을 만나지 않고, 정의롭게 살며, 나쁜곳에 빠지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해있을때 3불의 지혜를 받아 해결되고, 동서남북의 복을 받아 시작부터 끝이 하는일 마다 풍요롭게 되는 뜻을 담은 법구밸트다. 또한 일반밸트와는 달리 건강기능을 갖춘 밸트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산되며 허리와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는 맬토에너지까지 발산되는 천연가죽으로된 고품격 고급밸트로 만사 형통하는 선물로 품위가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53-12-102911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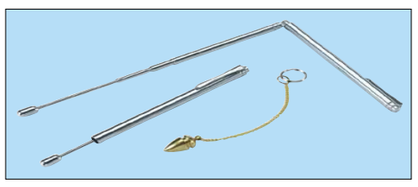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 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해주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성심으로 기도하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대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여의주 수진언 복지갑**은 지갑 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재물을 들어오게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천연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져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출시 6개월도 안돼 **관세음보살의 영험**으로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못받을 돈이 들어오고, 부도 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버는등. 숫한 화제를 낳는 지갑이다. 여성용보라색은 성공과 번영을 뜻하며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 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축원불공을 드리고 보내준다. 남성용5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53-12-102911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기 열풍

출장수맥 및 수맥파 감정 개업 또는 주말부업 노후 대책으로 인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수맥탐지기 엘로드를 배우려는 직장인과 부동산 중개사들까지 열풍이 일고 있다.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인까지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명안돼 이곳저곳을 뚫기 일수다. 수맥탐지 기술만 배우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 투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것이다. 氣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그림1



맬토차단캡



그림2 모아짐

집이나 들에서 예민한 銀나노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그림1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 차단캡을 놓고 다시 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 같이 된다면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신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 氣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 銀나노 엘로드와 탐사추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법책 셋트 가격65,000원
문의(02)741-4477
농협053-12-102911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군에 있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25,000원
문의 (02)741-4485 농협053-12-102911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내년 8월 31일까지 총 5986경판 인경 계획
국내 인쇄 최고 기술자 7명 전통 방식으로 재현



해인사 사간판 인경은 총 5,986개의 경판을 인출, 10질 3000여권의 책을 묶는 큰 불사다.

해인사 사간판 인경불사 첫 날

9월 1일, 법보종찰 해인사 장경판전 안에서 사간판 인경이 시작됐다.

장경판전 뒤 별도로 마련된 인경처는 혹 바람에 인경종이가 날아갈세라 비닐로 에워싸져 있고, 인경불사에 동참하는 7명 외에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상태에서 한 장 한 장 천년 전의 '인쇄기술'이 재현되고 있었다.

경판에 맞춰 재단된 '안동 한지'가 인경 기술자인 변영재, 김희수, 한홍익, 정숙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전달되자 능숙한 솜씨로 인경 작업이 시작됐다. 정성스럽게 갈아놓은 먹을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먹판에 몇 술 떠놓은 후 먹솔로 먹판의 먹을 묻혀 경판에 칠하고 한지를 조심스럽게 얹는다. 이 먹은 한국유일의 먹 제조 기능전승자인 경북 건천의 유병조씨가 해인사 주변의 소나무를 이용해 만든 것이다.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마력으로 한지 위를 슥슥 문지른 후 한지를 떼어내자 경판의 글귀가 차분히 인쇄되어 나왔다. 인경기술자들은 인경상태를 확인 후 교정을 보는 스님에게 넘긴다. 혹 인경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번지는 부분이 있거나 이물질이 끼어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대나무로 만든 꼬챙이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교정 작업은 인경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1차 교정은 교정도감인 해인사 도서관장 원창 스님의 감독 하에 해인사 강원의 두 학인 스님(지원 · 혜공 스님)이 맡았다. 인쇄된 한지를 넘겨받은 스님은 빠르게 그러나 날카롭게 인경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 들어갔다. 혹 한 획이라도 덜 찍힌 부분이 포착되면 여지없이 체크된다. 1차 교정을 담당하는 혜공 스님은 '사간장 인경 검수일지'에 경판 이름과 매수, 불량상태를 기록하며, 인경상태를 일일이 확인해 들어갔다.

천년을 이어 온 인쇄기술이 재현되고 있는 현장에는 '슥삭 슥삭' 마력으로 한지를 문지르는 소리와 한 장 한 장 한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릴 뿐 고요했다. 인경작업에 몰두한 동참 대중의 얼굴에는 어느새 송글 송글 땀방울이 맺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랑곳 않는다. 인경을 하는 기술자나 교정을 보는 스님이나 종이를 헤아리고 나르는 보살이나 그 자세의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다. 어느 수행현장이 이보다 더 명정할 수 있을까? 입은 무거우며 눈과 손놀림은 날카롭다. 선기가 서려있는 수행자의 마음을 닮았다고나 할까?

해인사는 주지 현응 스님을 위원장으로 종성 스님을 총도감으로 하는 인경도감을 설치해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응 스님은 "사간판 인경은 9월 1일부터 시작됐지만 준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고 1년이 지나야 인경불사의전 전 과정을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며 오랜 시일 정성으로 지켜봐야 하는 중요하고 거대한 불사임을 강조했다.

해인사는 2006년 8월 31일까지 사간판 5,986경판을 모두 인경 할 계획이다. 인경이 끝나면 1질당 약 300권의 경전이 만들어지는데, 10질을 인경 해 일부는 해인사가 오동나무 서가에 소장하고 일부는 연구 자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해인사/글=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소금물에 경판을 닦는 과정.



1차 교정작업을 거친 경전을 묶는 과정.

■ 최고 인경 기술자 변영재 거사는?

목판 훼손 없이 작업하는 것으로 유명

15세부터 인경기술을 익힌 변영재(58 · 사진) 거사. 그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경 기술 보유자다. 1960년대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경 불사에도 동참했고, 40여년 동안 서울 봉은사, 양산 통도사, 순천 송광사, 하도 쌍계사 등 전국주요사찰의 인경을 도맡아 했다, 게다가 머리카락을 이용한 마력을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기술보유자다. 또, 능화판(표지에 문양을 새겨넣는 판)을 이용해 배접을 한 후 제책하는 한국고유의 전통 제책법까지 인경의 모든 것을 꿰고 있다.



■ 인경(印經)이란?

목판에 새겨진 경전을 종이에 찍어 내 책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구체적인 작업 과정은 다양한 재료와 도구의 준비, 판전에서 경판 내리기, 종이 재단, 경판을 소금물로 깨끗이 닦기, 인출작업, 1차 교정, 1차 제본(가제본), 2차 교정, 제책, 제목 붙이기로 로 이어진다.

■ 재료와 도구



한지–변색되지 않으며, 잘 찢어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닥나무를 가지고 전통 기법으로 만든 한지가 강하면서도 부드러우며 깨끗할 뿐 아니라 보존 능력도 탁월하다.



먹–예부터 먹의 빛은 천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으로 만든 송연묵(松煙墨)을 으뜸으로 꼽는다.



마력–마력은 먹을 묻힌 경판에 한지를 얹고 그 위를 골고루 문지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목판의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찍히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 마력을 사용해야한다. 마력은 깨끗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다.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푼 뒤 30℃의 물에 넣어 어느 정도 주물러준다. 물에 푼 머리카락을 3일간 햇볕에 말린 후 하나하나 실로 꿴 후 밀랍을 묻혀 만든다. 하루 종일 인경을 할 경우 마력은 20일정도 사용할 수 있다.

■ 국간판과 사간판

법보종찰 해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경판은 국간판과 사간판으로 나눠져 있다.

국간판(國刊板)–국간판은 국가가 대장도감(大藏都監)을 설치하여 왕의 이름으로 제작한 경판을 말하는데, 1232년(고종 19) 몽고의 제2차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리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몽고의 침입을 막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에 걸쳐 만든 고려 팔만대장경판(81,258장, 국보 제32호)이 재조본국간판(再彫本國刊板)이다.

사간판(寺刊板)– 사간판은 지방관청이나 사찰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목판을 말한다.

해인사간판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두 동의 큰 판전인 법보전과 수다라장 사이에 있는 동사간전과 서사간전에 보관되어 있는데, 팔만대장경이 제작되기 전인 900년 전 제작된 것부터 1960년대 제작된 것까지 모두 158종 5,986판이 현존하고 있다. 이중 28종 2725판은 국보 206호로, 26종 110판은 보물 734호로 지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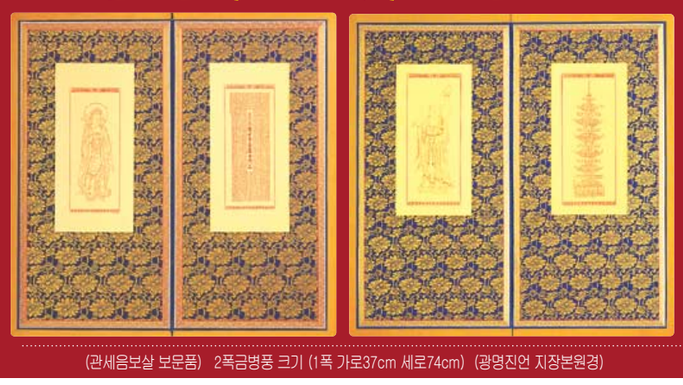


불경,금책,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 ·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호신용 소장용 영가천도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야랫배가 냉하신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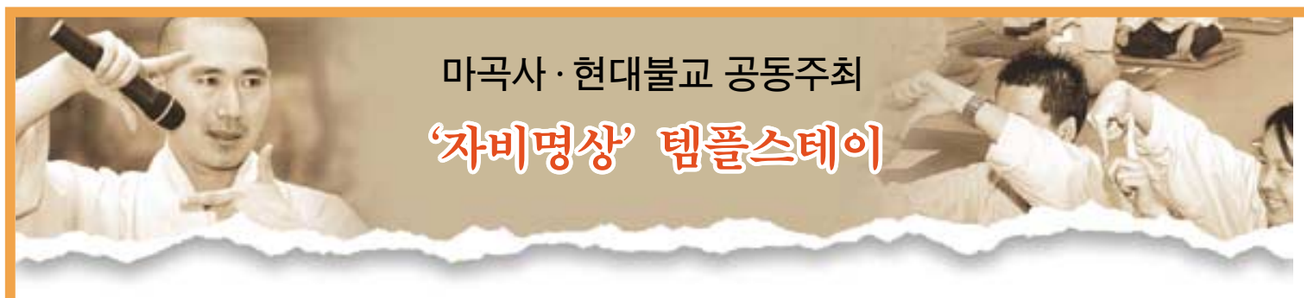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냉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마곡사 · 현대불교 공동주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나는 왜 여기 왔나. 무엇을 얻으러 왔는가. 60살 넘게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앞으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가 8월 26~28일 2박 3일 일정으로 마곡사에서 열렸다. 마곡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주최로 열린 9차 템플스테이의 주제는 '지혜나눔명상'. 삶 속에서 지치고 지친 어르신들의 짐을 가벼이 하고, 어르신들의 지혜를 가족과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폭염이 가시고, 공기가 선선하게 느껴지는 쾌적한 26일 오후, 비 갠 산사는 쪽빛 하늘로 18명의 참가자들을 반겼다.

미움도 사랑도 모두 짐입니다
홀가분히 내려 놓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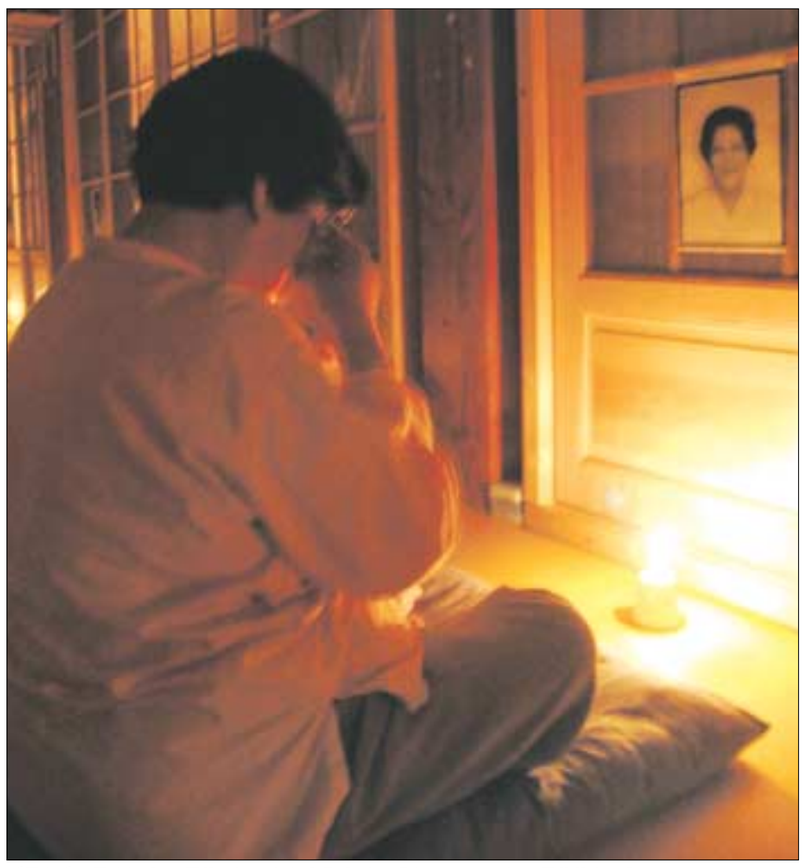
한사람을 두고 주위사람들이 돌아가며 칭찬하는 시간.



삼배를 받으며 나자신의 존귀함, 바로 내가 부처임을 깨닫는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즐거운 태화천변에서 여흥시간도 가졌다.



템플스테이 둘째 날 열린 죽음명상. 자신의 영정 앞에서 유서를 써 보며 삶과 죽음을 성찰한다.

"젊었을 때 마누라 속 많이 썩였지"

템플스테이는 이름 짓기로 시작됐다. 세상에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후회로 얼룩진 이름을 던져버리고 애정을 담뿍 담아 새 이름을 지어본다.

"제 이름은 복덕혜에요. 복과 덕과 지혜를 다 갖고 싶어서 지어봤어요. 욕심이 많죠?"

"제 이름은 맨드라미에요. 들어오는 길가에 피어있는 맨드라미가 고와서 지었죠."

는개, 산조, 봄향기, 세실리아, 무심, 오솔길, 햇살 등 하나같이 멋진 이름을 지어놓고 설명을 서로 주고받았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맹세로 마음가짐도 새로이 해본다.

9차 노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8월 26일 첫날 저녁,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시간의 진행을 맡은 이는 이성순 소장(심리상담센터 '노후가 아름다운 사람들').

이 소장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행에 관심 갖고, 성불하겠다는 원을 세워 놓은 줄로 알고 있어요"라고 운을 뗀 뒤, "하지만 마음에 한을 품고 있으면 마치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수행은 더딜 수밖에 없답니다. 먼저 마음에 응어리를 다 떨어내야 해요."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먼저 참가자들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를 물었다.

치매에 중풍까지 앓은 시어머니를 6년간 모시면서, 형제간의 갈등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 허전한 마음을 공부로 달래기 위해 학생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 철없이 뛰놀던 6~7세 시절이 좋았다며 그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고막을 다쳐 난청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70대 참가자는 "젊었을 때 마누라 속을 많이 썩였다"고 참회하고, "50대로 돌아가 잘 해주고 싶다"고 울먹이며 함께 온 아내를 꼭 껴안아 박수를 받기도 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마음이 한층 가벼워짐을 느낄때쯤 이 소장은 화제를 미래로 돌렸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 다가 올 미래, 즉 노후가 중요하다는 것.

이 소장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세요. 너무 힘들고 속상했던 시절이지만 모두 지나갔으니 이제 모두 내려놓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야합니다."라며 "밖으로 봉사하고, 내면적으로는 기도하며 다음을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둘째 날. 참가자들이 저녁 예불을 마치고 돌아온 연화당(수련장)에는 예기치 못한 광경이 전개됐다. 참가자 각자의 영정사진 18개가 벽에 붙어있었던 것.

죽음을 통해 나를 본다

참가자들은 각자 촛불 밝혀진 자신의 영정 앞에 앉아,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그대로 바라봤다.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와서 울고 있을까. 가족들 표정은 어떨까. 그때의 내 마음은 어떨지….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있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마가 스님은 유서를 쓰도록 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쓴 유서를 둥글게 모여앉아 소리 내어 읽어 보는데, 눈물이 먼저 쏟아져 읽기가 쉽지 않다.

"사랑하는 자식들아 보아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너희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가는구나."

"엄마가 욕심이 많아 너희들 마음 불편하게 했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것, 곱게 말하지 못했던 것, 모두 미안하고 부끄럽다. 이제 너희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모두 후회스럽고 미안하다."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두 짐입니다. 홀가분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내 노후가 편안해지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오."

템플스테이 마지막 날. 마가 스님의 당부가 이어진다.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줍니다. '잠깐 보고 말 사람'이라는 생각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주위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할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스님의 말이 끝나자, 불단 앞에는 세 개의 단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이 세 명씩 그 위에 오르고, 마가 스님과 묘운 스님 그리고 나머지 참가자들 모두가 이들을 향해 삼배를 올려 존경을 표했다.

삼배를 받은 참가자들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어릴 적 엄마의 품을 떠난 이후 존귀한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받아본 적이 얼마나 있던가. "스님한테 절 받기는 평생 처음입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삼배에 대한 답례의 말이다.

노후의 삶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모든 순서가 끝나고 한 참가자의 제안으로 마가 스님, 묘운 스님과 강의를 맡은 이성순 소장을 앞에 모셔 삼배를 올렸다. "큰 스님이 되십시오." "많은 것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삶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커다란 가르침을 각자의 가슴에 아로 새긴 후 2박3일의 템플스테이는 회향됐다. 참가자들은 이틀 전 마곡사를 찾을 때의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어떤 참가자의 말대로 극락과도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내가 살던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과연 세상 속에서도 마곡사에서 다짐했던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갖고 떠나는 느낌들을
돌아가서도 가질 수 있다면….
마곡사를 두고
바람을 두고
물소리 두고 갑니다. (참가자 맨드라미)

글 · 사진/마곡사=박익순 기자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걀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입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부터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활자에 불과했던 샨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 라마의 숨결이 더해지면서 <입보리행론>은 수행 지침으로 되살아 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델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이 법회에서는 <입보리행론> 제5장 호계정지품부터 제8장 선정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 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죄업 참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낭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학승과 티베트 불자까지 젖어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매번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입보리행론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 제 5장 호계정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종의 번역본과 종파 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행사일정

A팀 : 12월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B팀 : 12월 3일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리-인천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 주 관 :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다시 보는 화제의 신간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명리학 용신분석 기초를 모아 핵심만 정리!
알기쉽게 풀이한 교과서적인 한국 최초의 역학 지침서!

필자는 어느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주 속에 이것만 있으면 한평생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방법은 용신을 모르고도 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이점(利點)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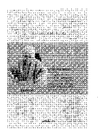
이책의 특징
● 삼대(三代) 복신 개념 도입
● 주용신(제1용신)과 부용신(제2용신) 개념 설정
● 격(格)은 월령의 본기만 인정한다.

이선종 지음 / 사륙배판 / 484쪽 / 정가 25,000원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 숫자와 속명
- 자동차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집 ·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번호 숫자와 사주필자
- 부동산(집 · 땅 · 가게 · 사업장) 금액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 교제 · 결혼 ·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해광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416쪽 / 정가 12,9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최근 이혼률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 :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13~6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특유의 관정비법으로 전수합니다.

전화: 02)720-5719/720-5682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륙재	각시식	사	바라나비	경
안	49재				바라나비	
식		재	식	물	춤	전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결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정통 중국 황실 육임학 비법 전수

- 평생운 流年運의 정확한 예측법
- 古宮(자금성)에 소장중인 秘書로 강의
- 대육임 현대응용 활용법 강의

御定六壬學會
(어정육임학전문연구학회)
055)362-2799
010-4850-3900

자동차 폐차 긴급속보

(바퀴만 달려 있으면 폐차 가능) 폐차 프로로 오세요
과태료+체납세금+앞번호판입류차+국민연금+기압류+고장차+행치한 자동차 때문에 노후된 자동차를 폐차 말소 못하고 계십니까? 걱정 고민 끝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화물트럭+승합차+버스)가능 사정상 우선 급 폐차 환영
이제는 폐차도 어디든지 찾아가는 서비스
최고가 매입(즉시현금지급)
모든 자동차 24시간 무료 출장 상담(공휴일 정상근무)
(국)가유공자 협동 사업장) 수출 부품 판매
대흥산업폐차 TEL 02)3471-4444~5
02)521-7000 / H.P 011-470-3118

사무장 채용 공고

- 기능 : 컴퓨터 문서작성에 익숙한 분, 승용차(스틱)운전 가능자.
- 휴무 : 1달에 3일
- 보시금 : 월 130만원(기타수당 있음)
- 사진이 첨부된 자필이력서를 종무소로 본인 직접 제출요망.

대한불교조계종 심복사
평택 031)682-5588

소백산 송이·능이 판매

054)634-3334
주문처: 농협(한희욱)
751081-51-060579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2동 269
심우사 한산 합장

사찰운영(동업,주주)모심

- 사찰위치 : 경주
- 규모 : 토지3500평,건물 300평
  (소자본으로 힘을 모아 사찰운영 같이 할 분)

처사님 보살님 동참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051)803-514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절에서 상주하실 분(50대 전후)
▷ 구파발 시연사
011-261-0572
02)352-0572

사미니,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서초 소재
02)3472-1080
010-7448-1080

행자모심

고졸이상, 40세미만
대학, 대학원 까지
책임지원함
02)917-3363

공양주보살님 행자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
033)671-6079

5년 전 포항시 기계면 구지동 안국사에 머물던 스님을 찾습니다. 성은 '이'씨 고향은 경상남도. 충남 한산섬 방생 같이 갔던 스님. 찾는 사람은 공보살
054)243-7235
011-802-998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9571-6479

불교사찰, 양로원 운영하실분

처사님, 불자님, 양인공동위임투자등기
▷ 토함산 경주 근내
부지평수 1,300평
011-587-9997

제주도내 사글세 사찰구함

꼭 하실분 연락바람
(오후 8시 - 9시 연락바람)
010-3083-3320

부전스님, 공양주, 행자 구합니다

011-576-2737

산세수려한 사찰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지내실
신심있는 처사님들은
연락바랍니다.
▷울산
052)254-512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창원
016-9315-3663

부전스님 구합니다

▷부산
010-3931-113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신림동
011-341-1017

비구니 부전스님 구합니다

▷부산 사하구 시내
011-509-012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 이하, 월 보시 120만원)
불심있고, 건강하고,
음식을 잘할 수 있는 분.
▷ 경주시 강동면
054)762-4269
017-531-777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울산시내
보탑사
052)275-0829

부전스님 구합니다

(비구)
010-7166-3195

본인이 생활력이 있고,

마음이 정직하며 믿을 수 있어
노후에 서로 의지하고 남은
여생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는 분
(본인 45년생 女)
011-775-8070

부전스님 모십니다

종무소에서 일하실 분
모십니다.
(면허소지자 우대)
▷경기도
011-259-5989

비구니 부전스님 사무직 및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4)636-022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동두천
031)867-3593

부전스님 자리 원합니다

(50대 중반 비구)
010-6289-8544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51)554-7253
017-569-022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66
02)353-3004

전통 음양학을 무료로 전수합니다

중생들께 삶의 열쇠가
되실 분은 연락주십시오.
018-511-1183

정 정 합 니 다

지난 7월 20일자 현대불교신문 14면 "일주문" 상에 휴암(영인)스님의 "대승종 교육원장 역임"부분에 대하여 "이는 종단분규당시 전임자에 의해 교육원장에 임용된 것으로 새로운 집행부(총무원장 법천 청화)가 탄생된 후, 당시 모든 임명이 무효가 된 만큼, 영인승려의 교육원장 임명역시 무효임으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에 의해 이를 바로 잡습니다.
2005년 8월 30일
정정인: 전 대승종 교무부장 영인(휴암)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사찰(급)안내

- 위치: 전북 함열 시내 국도변
- 평수: 1500평 종교용지
- 건물: 법당 40평
  요사채 1.2층 75평
  산신각, 제실 각 10평
  즉시입주 ● 가액: 3억원

011-747-2210

암자 또는 별장터 안내

- 위치: 거창 덕유산 지역
- 답: 800여평
- 전망 좋고 마을과 떨어져 있음
- 가액: 추후 결정

055)963-2097
011-583-2097

첨단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 책명 : 이책 읽고 불치명 나으소서

- 저자가 3개월 시한부 말기 암환자로서 수술, 재발, 말기현상은 물론 여러 합병증을 극복하고서 5년 여간 현대 첨단의학으로도 못 고치던 각종 암환자를 비롯하여 불치, 난치병으로 고통받던 3천여 분을 치유하게된 바로 그 방법을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 각종 암, 당뇨, 중풍, 협심증, 퇴행성관절염, 성기능 장애, 아토피, 부종복수, 자궁근종, 치매, 간질, 천식, 갑상선, 악성빈혈 등으로 고통받던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

주요목차 자연의학에선 불치병은 없다 / 면역력만 살리면 된다 / 체질을 쉽게 바꾸는 법 / 유황오리의 신비한 능력 / 자연치유력 키우는 법 / 암 정복 식품의 다수

※구독을 희망하시는 농협 023-02-237173 김용식 계좌로 8,000원 입금 후 성명과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참 좋은 생명의 집
02)844-1655~6

관음기도 성취도량

- 교통 사통팔달 산세수려 기도하는 분위기
- 최신식 실버타운 심신수련 기도처
- 독방사용, 숙식제공, 저렴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 편안하게 모셔드립니다 ● 선착순

010-9367-5982
주지 법사는 관음기도로 가피받은 사찰임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첩경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지도 혜도 혜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氣

절대 말이나 이론으로 하는게 아니고 몸으로 수련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오세요.

제1기 전문 기수련인 모집 (선착순 0명)

- 모집대상 : 스님 및 전문 기공인이 되고자 하는 분, 일반수련생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하실 분)

천지도법 기공협회 053)754-0082 / 011-549-8130
(대구 동부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사찰구합니다

- 장소: 부산시내 근교 (양산)
- 차량진입가능한 사찰
- 가액: 4~5억

051)637-3440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삼존불, 돌탑부처님 (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2억1천만원

033)766-0057
011-471-1996

행자 [예비스님, 남·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납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진천
- 법당: 20평 객실 10평
- 땅 100평 17만원
- 구옥 60년 넘게 세주고 살고 있음
- 가액: 2천만원

※절에서 휴양할 분과 밥해주고 평생 계실 할머니 구함

- 부처님과 불교용품 보시해 주실분 연락기다립니다

043)534-335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속초 ● 건평: 60평
- 내부시설: 황토방 전통쑥뜸 시설완비
- 포교할 스님이나 환자를 치료하는 스님 적합
- 몸만들어오셔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1-790-4809
033)631-4831

선 방 대 중 모 심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에서는 감포도량에 선방을 개원하고 동안거 정진대중을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산과 바다를 함께 아우르는 천혜의 대도량에서 큰 깨달음 있으시실 바랍니다.

- 무문관 : 15명 (법랍 10년~20년 승려증지참) - 비구
- 재가대중선방 : 40명(주민등록증지참) - 건강한 여성 불자
- 행자 : 10명(45세미만, 남·녀) - 대구큰절 중 택일
- 동안거 결제일 : 음력 10월 15일 (그 이전에 방부허락을 받으셔야 함)
- 감포도량 위치 : 감포 대본 2리(회곡)에 있음
- 선방 방부문의 : 011-881-9710 (감포도량 연봉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 입학 납골(053-474-8228), 행자문의 011-9852-0075

사찰 안내

- 위치 : 김해신어산(좌청룡 우백호 명당) 골프장이 그림같이 한눈에 마을 버스 1분 거리
- 사찰 입구:경남 영묘원(납골당) (신어산공원추모관, 고급다예존 형성중)
- 대지 150평 (법당1, 요사채 방 4개) 각방 화장실 및 샤워실
- 가액:시세 2억 상당(절충가)

055)323-8337
017-541-9987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구성면
- 면적: 2만평
- 산세가 수려하고 돌로둘려싸인 천하절경명산
- 가액: 2억6천만원

054)433-3533
011-9570-3533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 (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천도재 비디오 3개 (대령, 관욕, 시식, 배송) 완벽한 방송용 자막 커리. 할인가 6만원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일연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 대강좌 (9월13일개강)

매주 화요일 오후2시

<<삼국유사>>의 체재는 5권 9편 144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9편은 왕력(王曆)·기이(紀異)·흥법(興法)·탑상(塔像)·의해(義解)·신주(神呪)·감통(感通)·피은(避隱)·효선(孝善)으로 구성되어있다


김상현교수(동국대)

부처님의 근본선정수련법인

안반수의경 대강좌 (9월8일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4시

安般守義經은 아나(ana)즉 들숨(入息)과 아빠나(apana) 즉 날숨(出息)을 관하여 마음의 산란함을 그치고 선정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정(禪定)을 설한 대표적인 경전의 하나이다.


최종남교수(승가대)

동산어학강좌

티베트어 대강좌 (9월8일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7시

부처님이 설한 대·소승, 밀교 경전의 진리를 티베트어 원전을 통해 티베트대장경을 연구하고자 개설 최종남 교수(승가대)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사천지역
- 법당: 25평
- 요사: 55평 외 건물다수
- 부지: 530평
- 가액: 6억

- 위치: 전남 무안
- 법당: 15평
- 요사: 40평
- 부지: 12,000평
- 가액: 4억

-사찰부지-
- 부산: 430평
- 가액: 5억
- 충북옥천: 1,400평
- 가액: 2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①북한산토굴1000평-6억5천
②충주사찰1000평-3억5천
③북한산임법당임대-월85만원
④경기목조사찰2000평-20억
⑤서울토굴2000-20억
⑥서울토굴만평-30억
◆ 1억~10억사찰많음.투자상담
※ 직원,공양주,기도스님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동 2층건물의 2층
- 법당 15평, 전체 32평 시설일체 완비
- 가액 : 보증금 2백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52)258-499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강서구 녹산동 부근 경내에 500년생 괴목 2그루 (부산시 보호수)있음. 420평
- 법당. 요사(큰방1, 각방3) 등기필
- 가액: 3억

010-5655-1250
051)973-4562
051)941-8989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청주과광호텔앞
- 평수: 45평 3층건물중 2층
- 시설: 삼존불, 고급후불탱화 3점.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몸만 오셔서 즉시법회가능 시설비: 답사후절충

016-261-2068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땅 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18평 외 미륵불
- 요사: 23평, 용왕전
- 급매 1억2천, 약수물

- 위치 : 경기도
- 부지 : 천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7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포교당안내

- 위치: 울산시 남구 신정동
- 지하 1층 60평, 시설일체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는 스님 불사관계로
- 능력있는 분에게 좋은조건으로 양도

011-9511-8656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북구 구포시장내요지 2층 건물에 2층 65평 법당, 방3칸
- 가액: 전세 3000만원 시설비 답사후 협의결정
- 허가등록된 주차장운영 (월세 충당)

051)364-488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찰 안내

- 위치: 대전시내
- 대지 905평, 전 150평, 임야 320평, 총 1,375평 임야 전은 현재 주차장 밑마당으로 사용중이며 언제라도 건축을 하면 대지로 전용 할 수 있음.
- 법당은 새건물이며 시멘트슬라브 기둥세워서 2층으로 올릴 수 있음.
- 1층 120평, 지하 40평, 요사채 구옥 시멘트슬라브 약 40평 ● 가액 : 15억

011-209-742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 대지: 120평
- 법당: 18평
- 요사: 25평
- 양도가: 5억(융자가능)
- ※ 도심속 유서깊은 사찰임

- 위치: 부산시
- 대지: 50평
- 법당: 40평
- 요사: 80평
- 양도가: 3억3천(융자가능)
- ※ 역사깊은 도량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월천역에서 5분거리
- 평수 : 상가건물 53평,옥상 55평 사용가능
- 시설 : 삼존불 외 집기일체 주방, 화장실, 응접실, 방 2개 시설A급, 시장입구 주차장완비
- 아파트 주택 밀접지역, 위치좋음
-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꼭 필요한 분 연락바람

017-508-2675

자리중에 자리! 국내 최고의 자리!

영험의 자리!(백문이 불여일견)

- 신당동 중앙시장 건너편
- 평수 : 20평 (철학관운영가능)
- 보증금 1,000만원 / 월6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2)2236-2284
019-634-306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경계
- 건물(조립식) 대지 200평, 법당 25평 요사채 10평, 부속창고 20~30평 총 1600평
- 심야보일러 130m암반수
- 가액: 1억5천(절충가능)

016-9559-8889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강릉시 옥계면
- 대지 150평, 전 430평
- 가액 8천5백만원(절충가)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가액 : 500만원에 월35만원(절충가)

010-4841-349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소재
- 부지 : 3,000평
- 법당 : 40평(단청)
- 요사 : 50(단청)
- 산신각 5평(목조,단청)
- 가액: 2억7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의 멋진 사찰임

- 위치 : 경남 의령군
- 부지 : 약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30평
- 가액: 3억5천
- 특징: 100년 역사의 전통사찰로 계곡과 산세가 어우러진 청정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토굴(급)안내

- 위치: 단양. 새집 양도
- 대지(전포함) 839평, 집 20평
- 경관수려 A급, 전망최고 도로, 전기, 시설 되있음
- 부분 매매 가능. 가액 6500만원

010-6460-1316

포교당 안내

- 위치: 인천 서구 가정동 부근
- 3층 건물에 3층 70평 법당30평, 주지실, 사무실, 총 방5개, 참선방 4칸,주방, 욕실, 화장실 3개(실내외)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66만원 시설비2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9969-9895
032)572-750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
- 면적: 756평 법당 집기 일체
- 방4개, 창고 50평
- 비구니 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2억7천만원

010-3138-4897

사찰 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245평(전망최고)법당: 30평 요사채: 50평(화장실2, 창고1)
- 산좌수려(와우형),교통편리
- 가액: 3억
- 용도 : 사찰이나 수련원

016-626-4388
011-606-1976

※ 인연있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용산구 남영동 대로변 4호선 출구
- 2층건물 2층 ● 평수 : 약 6평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아미타 관음지장 후불탱화 신중탱화 모셔져있음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합 1천만원 월 30만원

033)647-5475
02)718-0324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서울에서 1시간30분)
- 화장터 장례예식장 300m사이
- 법당납골당 최고 명당자리 (민원없음) (건축설계, 토목공사 완료)

- 위치: 경기도 광주 (서울에서 30분)
- 대지: 290평 건평: 110평 새통나무 기와집 2동 대웅전 요사채 방8개
- 경기도 광주사찰 투자하여 운영하실분 모심

011-9109-3660/031)767-0837
011-9004-3613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교리
- 평수: 60평
- 즉시법회가능 시설일체
- 시설비: 2500만원 답사후절충

016-732-8163

포교원(급)안내

-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역 2분거리, 지장대 위치
- 3층건물 중 2,3층 2층법당 사무실 스님방 3층 요사채 방5개, 공양간 거실, 시설 일체 완비
- 시설비 1700만원(절충가능)
- 가액 : 2층만 사용시- 1천만원, 월80만원 2,3층 사용시-1천만원 월 100만원

019-9264-7000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신모라 사거리
- 평수: 약 40평
- 전세금: 보증금 3천만, 월10만 시설비: 절충후 결정
- 교통편리, 아파트 단지 인근 포교최적지로 즉시 입주가

051)317-0011

포교당 안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 5동 (영대전철역 옆)
- 총평수: 40평.즉시법회가능 법당(삼존불, 신중, 시왕, 방2개, 공양간) 집기일체 양도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5백 월 26만원 시설비: 1천2백만원

011-9850-2946

사찰(급)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주택중심가
- 대지 203평 현거래시가 250-260만원 정도
- 사정상 급 안내 평당 190만원 총 3억 8천 5백만원
- 법당 30평 요사채 25평 7층탑, 5층탑, 100년 이상된 고목 두 그루, 포교적합 도량, 화장실 수세식 4칸
- 주차 7-8대 가능 주인직접

010-3133-0018

사찰(급)안내

포교당안내

- 위치: 울릉도 도동
- 면적: 1000평 공시지가 6억 대웅전 25평, 삼성각 4평, 용왕각 4평 요사채 2동 40평
- 가액: 3억5천만원

- 위치: 부산 해운대 수비 4거리 지하철 출구 바로앞 포교최고적지
- 107평 옥상에 60평 법당
- 가액: 보증금 5000만원 시설비 5000만원

011-500-1777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60평
-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가액 : 1억8천만원 (3천5백만원 융자포함) 절충가능

011-9543-0226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남일면
- 법당 요사채1동 방3개
- 가액 : 6000만원

010-9537-0108
043)296-4480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중구 반구2동
- 총 45평 법당, 방2개, 거실1 삼존불, 영단절도
- 가액: 상담 후 절충

018-205-5979
019-9020-550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마산 해안도로 20분거리
- 땅: 450평 대지 150평
- 3층건물 시설A급 경치좋은 바닷가 바로 옆
- 가액: 6억
- 용도변경가능 현재 사찰 음식점 운영중

018-610-5526
055)222-0475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14억
-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6248-7345

사찰 안내 (전세가능)

- 대지 : 300평
- 건평 : 100평(2층 슬라브집) 법당 평수 약50평, 방6개, 부엌2개, 심야보일러2대, 식기세척기1대, 주차장 25대 확보.
- 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586번지 (50m 넓이 계곡을 끼고 있음) (부산-언양간 시내버스 10분간격 운행중. 버스정류소에서 도보2분거리, 정류 소에서 50m)

(절앞으로 4차선도로 개통, 절 주변 도시개발 택지 조성중)
- 용도 : 지장기도도량 또는 포교당, 기타 노인복지센터로도 이용가능, 현재도 노인 0명 하숙중임)
- 가액 : - 매매시 5억5천만원 (계약금, 중도금 포함 1억지불 후 잔금은 2년까지 할수 있음) - 전세시 3천만원에 월 100만원

055-374-3669 / 017-201-1323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녹번전철역 삼거리
- 유동인구 많음, 최고요지
- 3층건물중 2층 평수 40평
- 시설: 삼존불 외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379-1319

사찰안내

- 위치: 마산시내에서 10분거리
- 법당, 요사채 2, 산신각
- 대지 300평 주차장 700평
- 가액: 4억5천만원

011-9527-3461

사찰터 및 납골당터 안내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7호선 천왕역, 1 · 7호선 온수역 10분거리(마을버스 수시운행)

평 수 : 약 5014평중 1418평은 대지이고
나머지 3596평은 임야 (자연녹지, 공원용지, 그린벨트)임

도 로 : 현재 8m 도로 접함 및 30m 예정도로가 1분거리

특 징 : 사찰 터 및 납골당 터로 최고의 명당자리임

문의전화 : 018-302-5500
011-399-9271





토굴 안내

- 위치: 순천시내
- 임법당
- 가액 : 7백만원
- ※ 시설일체 완비, 즉시 법회가능

010-8227-0900

포교원안내

- 위치: 김해시 진영읍 새빌라 5층(28평)
- 삼존불(개금완료), 흑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방3, 거실겸주방
- 철학관 겸 살림할분 빌라+불단시설비
- 1억(은행융자 3500만원 포함)

055)343-8108
011-552-8086

사찰안내

- 위치: 추풍령 휴게소 김천IC (7~8분거리)
- 시내 이마트 10분거리
- 좌청룡 우백호의 명당(남동향) 4차선 도로에서 400m 해발 200m중 6부 중턱 총 1천여평중 (대지 400평)
- 가액: 1억3천5백만원

054)433-6315

사찰안내

- 위치 : 마산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 600평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 교통편리, 산세위치 수려함, 신축건물 고건축
- 가액 : 4억5천만원 (절충가능)

011-530-8490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나주시 인근 현도로에서 2차선 도로예정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 분기점 IC 5분거리 (1호선국도 7~8분거리)
- 대웅전(목조) 30평 요사채(목조) 20평 - 스님방1, 주지실방1, 종무실방1, 객방1 공양간(목조) 10평 방1개,화장실 목조 (해우소) 남.여 각1개, 화장실 겸 샤워실 1개
- cc카메라시설(내부외부 모두 설치) 총 490평
- 암반지하수 대형관정(130m 물량 100톤) 사찰주변계곡 물 흐름 안쪽으로 골프장 확정
- 가액은 꼭 보시고 의양이 있으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0-3627-0108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서2동 부산은행 앞
- 평수: 40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 집기일체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 됨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52)295-3700
010-4846-5194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011-834-8545
055)337-8600

사찰겸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부천역사 2분거리)
-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연립 5층의 2층 30평
- 법당1개,큰방2개,거실,욕실, 도시가스(살림해결), 금불상 삼존불,법단2단 목조각
- 가액:보증금 1천만원에 월 55만원 시설비 1천만원. 주차가능
-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보시는 분 적합

011-650-8481

육임나라(www.yukimnara.com) 운세 포털사이트 개통

육임나라 운세 포털사이트가 개통 되었습니다.
대답해 줄 말씀은 위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크게 도움 되실 것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육임임상활용서 및 CD프로그램과 육임학습서를 소개합니다.
형편에 맞는 선택으로 좋은 활인이 될것으로 믿습니다.

◈ 육임임상활용서 및 CD프로그램 안내

- 육임래정비법 (전 1권)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전 6권) 31만원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전 12권) 130만원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휴대용 (전 1권) 150만원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전 12권) 250만원
- 육임각일각시 출생택일길흉비법 (전 1권) 15만원
- 도사에게 물어봐 (전 1권) 3만원
- 육임신수비결 (전 1권) 30만원
- 육임신수비결CD (전 1개) 6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Ⅲ CD 4백만원
- 육임대계전서 (전 60권) 4백만원
- 월영도 (전 1개) 130만원

◈ 육임학습서 안내

- 효사육임강의록 제 5판 (전 12권) 30만원
- 육임오행수법제례의식집 (전 12권) 15만원
- 육임세밀정단법 (전 1권) 10만원
- 육임운명판단법 (전 1권) 13만원
- 육임비요형이상법 (전 1권) 15만원
- 육임강의CD (전 63개) 80만원

육임나라는 e-mail 서비스를 개시 합니다. 아이디를 신청하십시오.

E-mail 주소는 신청아이디 @ yukimnara.com으로 구성됩니다.
E-mail 사용은 http://mail.yukimnara.com으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용합니다.

■ 구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구입 : 02)993-8680
- 입 금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
- 수강신청 : 02)998-8683 육임학당 효사숙
- 운 세 : www.yukimnara.com
- 학 회 : www.taotemple.net
- 잡지구독 역학춘추 (동방육임학을 제호변경)

역학도서출판 · 운세컨텐츠개발전문

육 임 나 라 주 식 회 사

일주문



용성 스님 오도 119주년 기념법회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10월 2일 용성 스님 오도 119년 기념 법회와 광명관등 만등불사를 봉행한다.(063)353-0108



각원사 울산포교원 개원

천안 각원사 주지 법인 스님은 9월 4일 울산시 북구 호계동 각원사 울산포교원(주지 덕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052)293-5550



금오 스님 37주기 추모법회

보은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은 9월 20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금오 스님 제37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043)543-3615



개성 시범관광에 참여

조계종 사회부장 정념 스님은 8월 26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정관계 인사 등 개성 1차 시범관광단과 함께 개성을 방문했다.



한국투명성기구 부회장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퇴휴 스님은 8월 24일 열린 한국투명성기구(NGO) 32차 이사회에서 부회장에 선임됐다.



세계 정형·소아과 학술회의 참석

동국대 일산병원 이석현 원장은 9월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세계정형외과학회와 국제소아정형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 재위촉

시인 김지하씨는 8월 31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로 재위촉됐다. 위촉장 수여식은 9월 9일 총장실에서 열린다.

군종특별교구 부주지에 계성 스님



현풍 유가사 주지 계성 스님(사진)이 8월 25일자로 조계종 초대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을 보좌하는 부주지에 임명됐다.

군승 출신인 계성 스님은 최근까지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군불교 활성화에 진력해 온 '군포교 통'이다. 스님은 교구장 일면 스님이 교육원장을 맡을 당시 교육부장으로 활동하며 인연을 쌓아왔다. 강화 전등사 주지로 있으면서 계성 스님은 프랑스군이 강탈한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를 2001년부터 시작, 지역 축제의 반열로 올려놓는 등 활발할 활동을 펼쳐왔다. **강유신 기자**

"불심도 '최고상궁' 되고자 노력"

봉은사서 '나의 불교신행생활' 털어 놓은 탤런트 여운계씨

"40년 동안 연기하면서 늘 부처님께 기도했어요. 나의 연기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읽혀지게 해달라고, 감동을 주는 연기를 하게 해달라고. 덕분에 제가 톱 탤런트인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설 만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했네요."

드라마 '대장금' 수랏간 최고상궁 여운계씨(사진)가 8월 28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를 찾았다. '나의 불교 신행생활'을 주제로 명사초청법회에서 봉은사 대중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근래 좀처럼 주인공을 맡아본 적이 없지만, 이날 법회의 주인공은 여운계씨.

어렸을 적 부모를 따라 성당에 다녔던 여씨가 불교를 믿게 된 것은 2년간 출가생활을 할 정도로 불심이 깊었던 남편을 따라 절에 다니면서부터다. 일정이 바빠 자주 절에 갈 수 없었지만 그 때마다 마음이 편해 좋았다.

대학시절 연극을 했던 인연으로 연기의 길에 들어선 여씨는 극작가 유치진이 세운 '드라마센터'라



는 연극극장에서 연기를 배우면서 본격적인 배우생활을 시작했다.

방송국이 설립되자 곧바로 탤런트가 됐다. 신인시절부터 맡았던 노인역이 벌써 40년째다. 요즘에는 아직도 살아있느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듣는다.

그런 여씨는 이날 "강의는 처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사실 불교를 너무 몰라서 불교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불교공부 좀 하라고 늘 채근하는 남편은 경허 스님 일화를 들려주며 남이 대신해줄 수 없다고 채근을 해요. 이제 시간이 나면 저도 여러분처럼 정진하는 사람이 될 거에요."

절에 자주 가지 못했고 불교공부도 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살았다. 하고 싶었던 연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아이들도 별 탈 없이 자란 게 아마도 기도 덕인 것 같다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얼마 전 다녀온 금정산 삼양사에서 '금자씨' 이영애 씨가 1박 2일 기도를 하고 갔다는 말을 듣고 불자탤런트로 불리는 자신이 미처 하지 못한 것을 후배에게서 배운 것 같아 마음을 굳게 다졌다.

"80살 넘은 미국의 어느 배우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나이까지 연기하는 사람으로 남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부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늘 기도하는 연기자가 되겠어요."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추병직·오영교·이재용 장관 등 참석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자 정부기관장 초청법회



불자 정부기관장 초청법회에 참가한 추병직(첫번째) 건교부 장관, 오영교(세번째) 행자부 장관, 이재용(여덟번째) 환경부 장관, 황우석(일곱번째) 교수 등이 축하점등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권한대행 김의정)는 8월 29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불자 정부기관장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이재용 환경부 장관, 이용희 국회 정각회장,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했다.

법장 스님은 "불심을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공직을 수행한다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공직자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대해 <반야심경> 독경으로 하루를 시작할 만큼 불심이 돈독한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독경을 하지 못하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은 하루종일 찜찜한 기분"이라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깊은 뜻을 음미하면서 직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 "법전 종정예하께서 마음 자체의 이치를 바로보는 지도자가 되라는 가르침을 주셨다"며 "뭇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환경부장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콜럼비아에서 전날 밤늦게 귀국한 황우석 교수는 "강행군 일정이었지만 오늘처럼 의미 있는 법회에 초청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답례했다. 황교수는 법장 스님으로부터 심산(深山)이란 법명을 받기도 했다.

김의정 중앙신도회 회장대행은 "오늘 법회에 초청된 정부기관 장관님들은 부처님 법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정일 스님 입적 1주기 다례재



남산당 정일 선사 입적 1주기 다례재가 8월 27일 서울 보광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법주사 조실 범행 스님, 선학원 이사장 도형 스님,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 등 800여 명이 동참했다. 도형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선사의 법은에 보답하기 위해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대전불교사암련 회장 운봉 스님 취임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 운봉 스님 취임법회가 8월 29일 대전 그린타워에서 봉행됐다. 운봉 스님은 "지역불교계의 화합을 도모해 모범적인 사암연합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사암련은 수석부회장 도안 스님(대원정사), 상임부회장 대연 스님(송림사) 등으로 임원진을 구성했다.

불교 전문밴드 '해조음' 창단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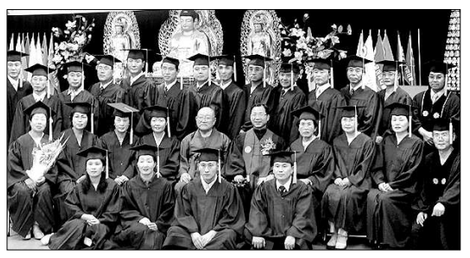
부산 해인정사(주지 수진) 부설 그룹사운드 해조음 창단 공연이 8월 31일 해인정사에서 열렸다. 1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창단 공연에서 수진 스님은 "오늘은 한국불교 최초로 불교음악 전문 밴드를 창단하는 날이며 불교음악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경주시니어클럽 현장체험학습



경주시니어클럽(관장 진병길)은 8월 29일 시니어클럽 회원 5개 사업단 2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단별 활동상황 견학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청도 운문사 등지에서 열린 체험학습에서 진병길 관장은 "이번 행사는 사업단별 각종 활동을 공유하고 단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동산불교대·대학원 졸업식



동산불교대(이사장 김재일)는 8월 28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제23회 동산불교대학과 제14회 동산불교대학원 졸업식을 함께 진행했다. 동산불교대는 이날 대학원 졸업생 4명을 포함해 3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재일 이사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공부에 정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무 묘법 연화경

시대에 맞는 생활불교의 지평을 여는 신 종단으로서 종도(스님) 및 법사, 전국 각 지역 종무원을 모집합니다.

년령, 학력, 출가이력, 경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법사 및 행자는 년령과 남,여 관계없이 일정의 교육을 실시하여 수계함

묘법 연화경으로 각종 예불 및 의식을 무보시로 가르쳐 드립니다.

대한불교 묘법 연화종
총무원장 만오 연해광 합장

• 총무원 : 창원시 중앙동 70-9번지
• 문 의 : 055)263-4984, 018-432-4984

생활철학 강좌 학인 모집
(책임지도)

명리, 성명, 관상, 육효, 풍수지리

• 강 사 : 만오스님(현 창원 전문대학 강의중)
• 대 상 : 스님
• 모집인원 : 20명
• 보 시 : 50만원
• 접 수 : 9월 30일까지
• 강 의 : 10월 1일부터 – 10월 30일까지 (부족한 스님은 날짜와 관계없이 알때까지)
• 문 의 : 055)263-4984, 018-432-4984

정통 철학의 맥을 이어온 학문, 우주의 근본원리를 탐구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알게되면 부처님의 12인연법은 물론 운명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님은 신도들의 상담에 필수적인 것이고, 우주의 이치로 실로 정연하여 한치의 착오가 없는 만고 불변의 학문이요, 대도(大道)라 할 수 있다.
즉 철학은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다.

창원시 중앙동 70-9번지 성한빌딩 4층 묘법정사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55-1114



불자 세상보기

임 배 근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내성만 키우는 부동산 정책

정부가 8 · 3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대했던 근원적 대책보다 솜방망이 대책만 내어 결국 부동산 시장참여자들의 내성만 키우게 됐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공론화 과정과 여론청취를 통하여 부동산 문제를 풀겠다는 접근방법부터 잘못되었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이해집단의 저항과 이해집단에 포획된 정치권의 묵인으로 강력한 대책은 그저 그런 정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경우만 보더라도 당초 60%부과 방침에서 50%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이번 대책으로 실제로 영향 받는 계층도 극소수 2~3% 계층에만 국한되어 영향력도 미비하다. 또한 영향을 받는 계층도 부동산 불로소득에 비하면 쥐꼬리만한 세금은 충분히 강담할 수 있어 또다시 투기는 재연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조세저항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기운이 보이거나 정권 교체시 이번 대책은 바뀔 수도 있어 국민 머리속 깊이 박힌 부동산투자 불패신화는 쉽게 잡지 못할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투기지역 아파트 가격은 최근 2, 3년 사이에 2배 이상 폭등했다. 5억원하던 아파트가 10억원이 되었다면 단기간에 아무 노력 없이 불로소득이 5억원이 생겼는데 보유세를 1%로 친다해도 1천만 원 밖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누가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겠는가.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 이정도의 세금으로는 큰 효과를 내기 힘들다. 1가구 1주택 경우라도 불로소득 성격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 한다.

특히 10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경우 양도차익도 큰 만큼 세금을 매겨야 한다. 지방의 1억원 아파트 한 채와 투기지역 1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한 채를 동일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조세부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공급중시 정책보다는 수요억제정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번 수도권 미니신도시 건설과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적 아파트 분양 가격책정, 부동산 업자와 아파트 주민의 부동산 가격담합 등 갖가지 불공정 거래관행, 투기적 수요를 부추기는 허위과장 분양광고와 불로소득이 용인되는 상황 하에서는 판교 사례에서 보았듯이 공급은 오히려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다.

난립된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비와 그들의 불공정 거래관행도 제도적 보완으로 척결해야 한다.

부동산 특히 토지 시장에서 수요는 가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지만 공급은 제한되어 있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실패부문이다. 특히 국토의 가용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에 맡겨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경제원리를 내세우며 정부의 시장규제를 비난하는 것은 그럴듯한 명분을 가장한 부동산 과다소유자의 기득권 수호의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아파트나 토지 가격이 폭등한 것은 소유자가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한 정당한 대가인가. 한마디로 불로소득이다. 국가가 전액 환수해야 한다. 불법 불로소득이 합법으로 인정되는 한 누가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를 할 것인가. 자금의 물꼬를 건전한 경제부문으로 흐르도록 해야 경제체질도 튼튼해진다. 투기는 위험부담을 안고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투기라기보다 위험성 없는 수익보장형 로또다. 세금정책 이상의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것은 부동산시장을 시장실패영역으로 인정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토지공개념 차원에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간화선 세계화의 '물꼬' 트길

9월 25일부터 하와이 무량사에서 5주에 걸쳐 일요일마다 간화선 법회가 열린다는 소식이다. 고명한 선원장스님들을 초청하여 차례로 법문을 청해 듣고 문답을 나누며 참선실수 시간도 가지는 등 무차선회와 같은 행사가 되리라고 한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동시통역으로 법회를 진행한다고 하니, 한국 간화선을 서양인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서양의 물질문명이 인류의 바람직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며 동양의 정신문화가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견이 실현되는 과정의 일환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근래에 서양에서도 불교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동양의 불교문화권에서 각자 자신의 불교전통을 가지고 서양 각지에 진출해서 포교활동을 펴고 있다. 티베트와 일본, 중국, 스리랑카, 타이 등 각 지역의 불교가 나란히 있는 광경을 보면, 과연 그 모두를 불교라는 명칭으로 싸잡아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채롭다. 거기에 한국불교도 나름의 전통을 들이밀며 끼어들 필요가 있다.

보조국사 지눌이 간화선을 소개한 이래 한국 선종에서는 전통적으로 간화선이 핵심 수행법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한국불교는 조선시대 오백년 동안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간화선을 중심으로 전통을 지켜왔다. 바로 그 전통을 가지고 서양인들에게 선의 종취를 전해주는 것이 불교의 세계화에서 한국불교가 담당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어떤 종교가 새로운 지역에 진출해서 포교할 때, 현지인 성직자가 배출되기에 이르면 하나의 중요한 고비를 넘는 셈이 된다. 그것이 곧 포교의 일차적인 성과이자 본격적인 토착화의 시발이 되기 때문이다. 불교의 경우에는 재가신도뿐 아니라 출가 수행하는 현지인 승려의 배출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 선종의 해외 포교에서는 현지인 가운데 마침내 출가수행을 결행하는 이도 나오고, 그리하여 한국 선종의 정통 수행법인 간화선을 익히고 현지에서 가르치는 혜명(慧命)을 잇게 되면 큰 고비를 하나 넘는 셈이 될 터이다. 이번에 하와이 무량사에서 열리는 선법회가 그 초석을 닦고 지평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힘 있는 침묵

"국왕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정사를 행하고 악한 일을 덜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보시,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사섭법으로 은혜를 베풀면 국가가 편안하고 흥할 것이다." 〈방등경〉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상상을 초월한 발언들로 인해 정계는 물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로 시작된 노 대통령의 상상초월 발언은 "권력을 통째로 내놓는 것도 검토 하겠다" "2선 후퇴, 임기단축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야당의원들의 무분별한 하야론으로 확대 재생산돼 어지러운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의 입에서 정제되지 않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일련의 발언에서 국민들은 측은지심 보다는 경거망동을 먼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야당 정치인들까지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하야' '중증 자아병' 등을 거론하는 모습은 눈살을 찌뿌릴 만하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무서운 불길같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일체 중생의 불행은 그 입에서 생기니,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다."라며 한마디 말도 경계할 것을 설했다.

나아가 거짓말, 발림 말, 이간질하는 말, 나쁜 말을 10가지 중죄(重罪)로 꼽아 살생, 도적질, 음행과 같은 중죄로 여겼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해관계에 따라 오해를 낳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다. 하물며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힘있는 침묵'이다.

■ 박봉영(취재부 기자)

제언 '불교 대안학교'의 필요성

이학송(파라미타 연구위원)



훌륭한 교육적 여건 십분 활용해야

대안학교에 대한 내용이 부쩍 늘고 있다. 한국에서 대안학교 설립 주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종교계이다.

원불교가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 등 6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경주 화랑고는 폐교를 활용하여 설립되어 모범적인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개신교는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회원교 7개교 등 15개 학교가 운영되거나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가톨릭은 1998년에 지정된 충북 양업고등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유독 불교계는 단 한곳도 없다.

근년에 가톨릭 내부 워크숍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한다.

'개신교보다 이 땅에 훨씬 먼저 들어온 가톨릭이 신자 교세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의료와 복지 쪽에 신경을 쓰느라 학교 교육을 통한 선교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었다 한다. 일부의 의견이겠지만 불교계에서 깊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반면 개신교 내부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하여 급기야 한국사회의 중심에 우뚝 선 가장 큰 공로를 공교육의 틀 속에서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세워 학교선교를 잘 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에는 기독교 학교 선교의 새로운 모색으로 대안학교를 통한 선교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교육과 가정의 위기를 기독교 세계관(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대안학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에 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 '공교육에 대한 기독교대안학교의 정체성'에 대해 심포지움을 열고 기독교 대안교육의 앞날을 논의한 점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만 하다.

이 시점에서 불교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욕망의 절제와 수행을 통한 평화로운 세상, 연기사상에 입각한 모든 생명체와 자연과의 조화를 가르치는 불교사상이야말로 욕망과 갈등의 구조 속에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하며, 그 이념을 교육의 틀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불교정신으로 이뤄지는 불교대안학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한국 불교계는 참선 중심의 수행생활, 자타불이에 입각한 자연보호 사상, 다양한 명상 수련방법의 공유, 대부분 자연 환경 속에 위치한 사찰 등의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불교학교의 이념을 실천해야 한다는 원력과 기술적인 문제만 잘 접합한다면 이상적 교육모델을 이뤄낼 수 있다. 오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발우공양법이나 참선 수행법 등을 현대적 교육과정으로 잘 조율한다면 훌륭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 또 대중공사 등의 정통 회의법을 화합과 질서,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의 모범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 불교계는 기존 지니고 있는 좋은 여건과 재료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바깥 세상의 정치적 상황이나 어설픈 서구식 사회제도 등에 휩쓸려 불교 고유의 정체성과 색깔 있는 포교에 아쉬움이 많다.

주요 종단의 정책의 사 결정 과정이나 사회적 대응 등이 과연 불교적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많은 것이다.

평화 통일 후를 대비한 동포 교육까지 준비하는 타 종교의 모습, 교파를 초월한 학교 선교 모임 등을 보면서,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 통불교 정신을 이웃종교에서 나 볼 수 있다는 착잡함에 젖어든다.

하지만 시간은 충분하고 미래는 밝다. 불교계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 범 종단별로 좋은 학교 하나씩 선의의 경쟁을 하자, 누구나 입학하고 싶은 불교정체성을 지닌 학교 만들기를 불교대안학교에서 시작해보자. 원력 있는 곳에 성취가 있다는 믿음으로.

'현대'만평 심 민 섭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19기 「전생요법 · 빙의 치유」 특별강좌



상담학 박사 임재형

무료공개강좌 9월 22일 13:00~16:00까지
개강안내 9월 23일 10:00~18:00까지 (매주 금요일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같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사 주 명리학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기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1만원을 송금하시면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 실천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 회장
한국치유목회대학원 겸임교수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i세상 속으로, iTV, TJB, CMB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외 다수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기업체 등 에서 강의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 화 : (042)255-0734~5
•주 소 :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 · 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도와주세요

급성골수백혈병 노찬호 씨



"가장 부러운 건 '건강한 젊음'이예요."

25세 노찬호씨(사진). '건강'이 세상에서 가장 부럽다며 힘없이 웃는다. 이제 환자복에 길들여진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질 때면 한숨이 나온다.

찬호씨는 지난해 2월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11월, 예상보다 빨리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건강해졌으리라는 기대와 달리 뇌와 골수에 병이 재발했다. 거기다 종양까지 생겼다.

찬호씨의 병에 가족들도 가슴 아프다. 상반신 지체장애를 가진 아버지는 특히 찬호씨의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 가슴을 친다.

3000만원의 빚까지 얻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찬호씨는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

"빨리 나아 한 사람의 건강한 청년이 되어야지요." (02)734-8050 **김강진 기자**

남쪽 지진해일 잊으셨나요

'아난다 장학재단' 월 1만5000원 후원금 접수
매달 스리랑카 청소년 250명에 각 1만여원씩 전달

지난해 12월 스리랑카를 덮친 지진해일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지나간 사건'이 되어버린 남아시아 지진해일. 그러나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피해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보인다. 국내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아버지' 와치싸라 스님(안산 마하보디사 주지)이 운영하는 '아난다 장학재단'의 문을 두드려보자. 스리랑카 지진해일 피해지역 학생들에게 학용품 구입에 필요한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다.

와치싸라 스님은 올 4월부터 피해지역인 히까도와 지역 초등~고등학생 250명에게 각각 매달 초 9000원~1만 2000원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곳의 학생들에게는 다달이 기다려지는 '자비 손길'이다.

스님이 스리랑카 '새싹'들을 돌보기로 마음먹은 것은 지진해일 피해 직후 한국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스님에게 맡긴 올 1월부터였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쌈짓돈을 꺼내 만든 성금 1200만원은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동포애고 자존심이었다.

이 성금으로 만든 것이 '아난다 장학재단'. 와치싸라 스님은 "가장 뜻 깊은 일이 피해지역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이라 생각했고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10제자 중 한명인 아난다와 같은 지혜를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재단의 의미를 설명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음과 정성만으로 재단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간 이 사업을 크게 홍보하지 않아 꾸준한 후원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아이들에게 제때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스리랑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월 1만 5천원의 후원금을 내고 마하보디사 법당에 있는 '자비의 등불'을 켜면 된다. 이렇게 '등불 가족'이 되면 스리랑카 아이들에게 후원자의 이름으로, 또는 익명으로 장학금이 전달된다. 등불 하나가 마하보디사 법당을 밝히고, 아이들의 손에 학용품을 쥐어줄 수 있는 것이다.

와치싸라 스님은 "지진해일 재해 지역 사람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도록 한국 불자들의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cafe.daum.net/mahabodhisa, (041)402-8300

후원계좌 : 국민은행 995701-01-115477(예금주:와치싸라-랑카불자협회)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민수 머리랑 스님 머리랑 똑같네"



"민수 머리랑 스님 머리랑 똑 같네."

8월 29일, 병원 입원 4개월째를 맞은 민수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달마도를 그려 민수를 돕겠다고 나선 일허 스님(밀양 영천암 주지)이 민수의 병실을 찾아 민수와 민수 아버지의 투병에 힘을 보탰다. 민수는 일허 스님의 방문이 영 낯선 모양이다. 독한 치료약 때문에 빠져 버린 자신의 민둥 머리와 닮아있는 스님의 삭발 머리에 자꾸 눈길이 간다.

민수는 지금 4차 약물치료를 완료하고 골수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또 다시 5차 약물 치료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백혈구 수치가 0까지 떨어지는 위기도 있었지만 다행히 민수는 감염도, 고열도 없이 잘 견뎌줬다. 의사들마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잘 견디고 있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일허 스님은 "2~3년 전 나도 심근경색으로 대수술을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며 "민수도 틀림없이 병을 털고 일어날 것"이라며 격려했다. 일허 스님의 정성이 담긴 달마 그림 속에 민수의 밝고 건강한 웃음을 발원하는 마음이 그득 담겨 있다.

hompy.buddhapia.com/help minsu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민수돕기에 일허 스님이 달마도 100장을 보시하셨습니다. 달마도(사진)는 35×45(㎝)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장당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달마도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 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 006001-04-095472 국민은행, 예금주: 김강진(현대불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자양종합사회복지관 토요급식팀**

국수 한 사발에 사랑 '듬뿍'

8월 27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서울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6인용 탁자가 여덟 개 남짓 놓여 있는 작은 공간은 어느새 어르신들의 이야기 소리로 가득하다. 11시가 되자, 테이블은 이미 꽉 찼고 바깥으로 이어진 줄은 길어진다.

어르신들만 아침부터 복지관을 찾는 것은 아니다.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한 끼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미 10여명. 부엌은 일하는 손길로 분주하다.

이날의 메뉴는 국수다. 한 그릇 음식이라 비교적 간단할 것 같지만 재료준비부터 시작하려니 바쁘다. 그러나 오랜 시간 봉사 했기 때문인지 행동은 여유 있다.



"국수 맛있어요" 어르신들의 한 마디면 늘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양종합사회복지관 토요일 급식 봉사자들. 사진은 8월 27일 봉사 모습.

그런데, 봉사도 좋지만 가족들과 함께 토요일 아침을 맞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까.

"글쎄요, 그냥 나오는 게 습관이 됐는지 집에서 노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4년 넘게 자양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 황숙희(53)보살.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챙겨주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어르신들에게도 '국물 더 드릴까요, 국수 더 드실래요' 여쭤보기 바쁘다.

"어르신들만 여기서 재밌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재밌어요. 사람도 사귀고 얼마나 좋아요."

황보살을 거들던 송영의(45) 보살은 즐겁게 살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웃음 짓는다.

그러나 봉사자들도 피곤할 때가 있다. 이런 피로를 이겨내는 특효약은 어르신들의 칭찬 한마디.

"국수가 아주 맛있어. 시장에서 파는 국수는 비할 바가 아냐."

한 어르신의 칭찬에 신순이(54)보살은 신이 났다. 아들과 함께 봉사하고 있는 신보살은 꼼꼼하게 어르신들을 챙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150인분 음식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정성이 부족하기 쉬운데 신보살 같이 꼼꼼한 이가 챙기기에 항상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자양복지관의 토요일 메뉴가 늘 '국수'인 것은 아니다. 어느 땐 수제비, 또 다른 때는 카레를 내놓는다. 복지관에서 재료를 후원받으면 거기서 어떻게 더 다양하고 맛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 보살들은 그것이 항상 고민이다.

"우리가 크게 도와드리지는 못해도 정성들여 대접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스스로도 신난답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가족여행 후원해 주세요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조부모-손자 세대 가족을 대상으로 제주도 여행을 기획하고 있다.

급식 봉사팀은 "우리도 조그만 정성은 보태려고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한 번도 가족여행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불자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02)458-1664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쫄~깃한 사랑 나눠 먹어야 제맛

사랑의 떡방앗간 보살

김옥순

향기도반의



경로당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부처님의 화신이란 믿음으로 절에 가듯 경로당을 찾는다는 김옥순 보살이 어르신들에게 보시할 찹쌀떡을 만들고 있다.

어디선가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다. 빨간 헬멧을 쓰고 바람 같이 나타난 사람은 울산시 동구의 또순이 아줌마로 불리는 김옥순(58) 씨다. 울산시 동구 서부패밀리 아파트 상가에 있는 서부패밀리 떡방앗간 사장인 김씨는 오후 나절 내내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새벽 5시에 출근해 오전만 떡방앗간에서 일하고는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다가 오후 6시가 돼서야 돌아오곤 하는 것이다.

"가는 곳이요? 내가 좀 볼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 경력만도 벌써 30년입니다. 오토바이 없으면 볼 일을 다 못 볼 정도로 바빠요."

떡방앗간 사장이 떡 만드는 일도 아닌 일로 뭐가 그리 바쁠까? 오토바이를 따라 가보면 금방 답을 알 수 있다. 김씨의 오후 시간은 어김없이, 울산시 동구 경로당 48곳을 하루에 2~3곳씩 나눠 둘러보고 그 곳 어르신들을 만나는 일로 채워지고 있다.

벌써 29년째 하고 있는 일이다. 1977년 통장을 처음 맡았을 때,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점심 한 끼 대접해 드린 것이 인연이 되었다. 따뜻한 밥 한 끼에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피어나던 웃음을 잊지 못한 김씨는 매년 경로당 어르신을 초청, 잔치를 열었고 효도 관광도 시작했다.

가진 것 없이 객지에 정착한 김옥순씨의 전 재산이라곤 맨 몸뚱

경로당 어르신들 효도관광 29년째
'한두 번 하다 말겠지' 벌써 40회째

이뿐. 경로잔치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연탄 장사, 밤 깎기 등 궂은일을 가리지 않았다. 연탄 얼룩이 묻은 옷을 입고 때론 밤물로 얼룩진 옷을 입고 다니던 김 씨가 어렵게 번 돈으로 경로잔치를 열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한두 번 하다 말겠지'하는 냉소가 대부분이었다.

"그때는 정말이지 거지처럼 하고 다녔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했지요. 악착같이 벌어서 1년 동안 모았다가 하루 잔치하는데 다 썼으니 비웃었지요. 그 때 속상한 것, 무시당한 얘기 다하려면 책 한권으로도 모자라요. 하하하."

처음 3년간은 가족들의 반대도 심했다. 없는 형편에 자식들 키우기도 힘든데 남을 돕는 건 가당치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행복한 웃음은 김 씨를 놓아주지 않았다.

3년이 지나자 남편 김재우(59)씨까지 돕겠다고 나섰다. 2박 3일, 혹은 4박 5일의 효도관광을 떠날 때면 직장에 휴가를 내고 따라 나섰다.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동네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모시기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도 김 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봉사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석류장과 아산재단상을 받았지만 상금 2천만 원을 고스란히 어려운 이웃의 치료비와 장학금으로 다시 내놓자 오해는 말끔히 벗겨졌다. 봉사 활동 20주년을 맞아 기념품을 돌렸을 때는 김 씨를 찾아와 김씨의 한결같은 마음에 감복했다며 손을 잡고 우는 사람들이 생겼을 정도다.

올해 29년째를 맞이한 경로잔치는 40회를 넘었다. 처음 200~300명이던 경로잔치 인원이 이제 1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전국의 명승지는 안 가본 곳 없는 효도 관광도 봄, 가을 두 번은 빼놓지 않았다. 효도 관광은, 자식들 따라 객지에 와서 외롭고 쓸쓸한 일상을 보내던 어르신들에겐 특별한 외출이었다. 어떤 할머니는 여행 떠나는 기쁨에 졸도를 하기도 했다. 정신을 차리는 할머니를 지켜보며 김 씨는 울음을 삼켰다고 한다.

"제 업이라고 느껴요. 이제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경로당에서 전화가 와요. 그럼 바로 오토바이 타고 달려가죠." 어제 밤에도 9시에 떡방앗간 문을 닫고 경로당으로 달려가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옆에 있던 아들이 한마디 거든다.

"해결사죠. 경로당 어르신들끼리 싸움이 나도 어머니를 찾아요.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어머니 말은 들으니까요."

어르신과 함께 하는 시간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숙업이 돼 버린 김씨와 어르신들과의 인연은 그렇게 깊어갔다.

김 씨에겐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 만큼이나 변함없는 세월동안 이어오는 일이 또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아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됐던 사찰 법회에 공양물 올리기다.

태어나자마자 심한 병치레로 목숨이 위태롭던 아들을 위해 무작정 찾은 곳이 집 근처의 공덕사. 백일 사진조차 찍어놓을 엄두를 못 낼 정도 였던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 이제 떡방앗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그 모든 게 부처님의 은덕임을 믿고 있다.

그 인연으로 시작된 공덕사엔 오늘까지도 모든 법회 때마다 떡 공양을 올리고 있으며 방생법회가 열리면 그 법회에 필요한 공양

안거철엔 통도사 선원 등 공양도
"죽는 날까지 나눔 멈추지 않을 것"



지난 5월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동구 소재 48개 경로당 어르신들을 초청해 치른 김옥순 보살 주최 경로위안잔치.

물은 반드시 김씨 몫이 된다. 그 뿐 아니다. 통도사 불국사 등의 선방에도 하안거 동안거 때마다 대중공양을 올리기도 했다.

"전 법명도 없어요. 이름이 없어도 내 마음이 부처를 만들고 내 마음이 다 알아서 한다고 믿어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지 내가 할 짓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절을 암만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바쁜 시간 쪼개 108 염주도 돌리고 기도도 게을리 하지 않는 김씨지만 절에 가서 보내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고백했다. 경로당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부처님의 화신이란 믿음으로 부처님을 뵈러 절에 가듯 늘 오토바이를 타고 경로당으로 달려간다.

"30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한 잔치를 열 계획"이라는 김 씨는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겨서 낯익은 얼굴이 잔치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고자 한다. (죽어서) 이고 지고 갈 것도 아니니까 떡방앗간으로 버는 돈은 모두 모아서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경로잔치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재삼 다짐한다.

떡은 나눠 먹어야 제맛이라는 옛말이 있다. 나누는 일로 떡의 제맛을 제대로 살려내고 있는 서부패밀리 떡방앗간 김옥순 사장의 오토바이가 출동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 씨는 오늘도 최고의 쌀과 정성을 쏟아 빚는 떡만큼이나 달콤한 사랑을 오토바이에 싣고 경로당으로 향한다.

울산/글=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찬양합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법가
- 법문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홍서원
- 산회가
-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괘도를 구매하시는 모든분께
고승열전도서 - 용성큰스님, 운허큰스님
(정가16,000원) 2권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사은품은 선착순 100분께만 드립니다.)

마하몰 MAHAMALL www.mahamall.co.kr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02-732-1520 / 2004-8218~9

나의 수행법

보현행원 체험기 - 박정준 (下)



청소하면서 하찮은 벌레에도 그 생명의 귀함에 감사했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에서도 찬란한 삶의 모습을 찬탄했다. 그리고 지난 중간고사 기간엔 독서실에 오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말도 해 보았다.

요즘 아이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타인이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의 끼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녀석들이 나의 칭찬 몇 마디에 쉽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닌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엔 내 경험 상 흔치 않은 일이다. 참으로 진솔하고 단순한 칭찬 한마디가 한창 민감하고 거친 아이들의 마음을 바꾼 것이다.

평범한 너와 나,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가야할 부처의 길이 있다. 본래부터 밝은 본성인 부처 마음이 중생의 어두운 마음에 가려져 있으니, 그 어둠을 감사와 찬탄의 말로 거두어 내고 부처의 길로 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선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길을 확인해 주셨다. 나는 부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알려주신 그 길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내 수행의 끝은 나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 너머의 세계, 즉 일체 중생이 모두 함께 부처가 되는 그 길이 내가 가야할 길이다.

연초에 끝없이 추락하던 마음이 평온해 졌다.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만나는 이웃 모두에게 '잘했다'란 칭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보현행원의 실천이 나의 본래 모습을 찾도록 해 준 것이다. 나의 잘난 것 못난 것 모두 받아 주시는 부처님께 일체의 나를 바치고(供養), 일심으로 보현행원을 통한 부처의 길을 가고자 다짐했다.

우리들은 늘 곁에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지 못하며 느끼지 못하고 산다. 눈을 돌려 창밖으로 펼쳐진 모습을 보라! 어느 것 하나에도 그 아름다움이 없는 곳이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그냥 투명한 하나의 색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물을 판단하게 해 준다.

하지만 찬찬히 보면 그 빛은 바로 우리들 무지개의 본질이다. 알 수 없는 투명함에서 영롱한 무지개가 우리 주변의 만물을 비추고 있는 것이며, 그 빛은 만물의 성품에 따라 자신을 아낌없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조화로운 우리들의 세상인가? 그 빛은 아무런 색깔과 편견 없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든 막론하고 그들 각자의 아름다움에 영롱함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런 빛을 받고 있는 우리들 자신은 느끼지 못하지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가 그런 무지개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며 살아간다. 자신은 비록 느끼지 못할지라도 온 누리에 그런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으니, 우리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노래하며 보현행원의 길로 가면 된다. 이런 자그마한 사실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마운 줄은 보현행원을 알기 전까지는 몰랐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다. 모두에게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란 불성을 깨우는 소리를 들려주자. 각자 부처의 마음으로, 커다란 축복의 생명을 찬란하게 피워가자. 그리고 그것은 그토록 장엄한 화엄의 세계일지니.(끝)

> 하찮은 벌레 보고도 생명의 귀함에 감사
> 생활에서 우리가 가야 할 부처의 길 발견

자력? 타력? … 중요한 건 믿음

'불교수행은 자력(自力)인가 타력(他力)인가?'

불교에 갓 입문한 초심자라면, 누구나 갖는 질문이다. 얼핏 보기에는 쉬운 문제일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물음이다. 특히 자력의 입장인 선수행과 타력적 성격이 짙은 염불수행을 두고 보면, 얼른 이해하기 힘들다. 게다가 최근 간화선 수행이 대중화되고, 염불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다.

때문에 최근 들어 수행단체는 물론 학회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 한국정토학회(회장 법산 스님)의 경우, 9월 2일 '불교신앙의 자력과 타력의 문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여는 등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초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과 염불수행의 입장을 살펴보자.

자·타력 대표 수행법 '선-염불'
출발점은 조건없는 믿음
"깨달음 얻기위한 방편일뿐
완전한 자력도 타력도 없어"



선수행은 스스로의 깨달음이 강조되어 '자력'의 입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불교자료사진



염불수행은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한다는 면에서 타력의 성격이 짙다. 현대불교자료사진

#선(禪), 과연 자력인가?

'본래성불'을 강조하는 선. 화두일념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 수행은 단연 '자력'의 성격이 강하다. 자신의 청정성(淸淨性)을 믿고 사무치게 자성(自性)자리를 찾아가는 수행원리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수행의 자력은 '믿음'에 근거한다. 즉 '믿어야 선의 세계에 들 수 있다'는 말이다.

보광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선 수행에서는 불타의 말씀보다 조사의 말을, 경전보다 조사의 어록을, 계율보다 청규를, 불타의 수행법보다 조사의 수행법을 더 중요시 한다"며 "오히려 조사불교가 화두참구를 신앙화하고 다른 수행법보다 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염불은 정말 타력인가?

<무량수경> 대중강의를 하고 있는 효란 스님(연천 오봉사)은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스님은 아예 염불은 '불력(佛力)'이라고 강조한다. 스님은 "염불은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을 생각해 구제하는 마음이다. 염불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수행이기 때문"이라며 "한국불교에서는 이를 '선정일치(禪淨一致)'라고 강조해 염불과 선이 같다"고 설명한다.

반면 염불수행이 타력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강동균 교수(동아대 철학과)는 그 전제를 '대승불교의 자리이타(自利利他)'에서 찾고 있다. 즉 중생 스스로가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정토사상이 일깨워준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특히 "정토사상에서 타력은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을 의미한다"며 "중생이 중생일 수밖에 없는 면목을 <무량수경>에서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밝은 눈'은 자력, '빛'은 타력

보광 스님은 자력과 타력의 관계를 '밝은 눈'과 '빛'으로 비유한다.

스님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내 눈이 밝아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내 눈이 밝다고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며 "내 눈이 자력이고, 빛은 타력이다. 때문에 자력은 타력에 비해 아주 일부분"이라고 말한다. 즉 내 눈이 밝다고 해 이 세상을 볼 수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피력이나 다른 중생들의 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불교에서의 진정한 타력이라는 설명이다.

#자·타력은 방편, 성불 위한 길일뿐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불교수행에서는 완전한 자력도 타력도 있을 수 없다"며 "자·타력의 양 극단으로 나눠 인식하는 것은 수행의 '포용성'을 그르쳐 결국 깨달음을 얻을 수 없게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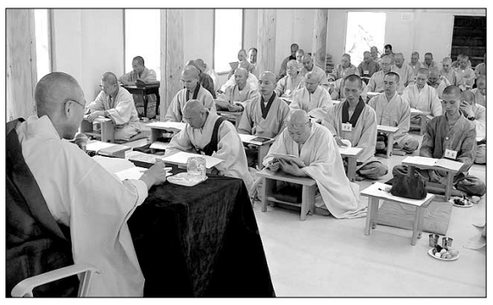
가령 자력적인 측면이 강한 선수행의 경우에도 <금강경> <능가경> 등의 경전에 의지하는 부분, 스승의 지도를 통한 화두참구 등이 바로 타력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스님은 또 "선이든 염불이든 불교수행 그 자체는 자력적이지만, 깨달음을 얻는 적극적인 계기는 대부분 타력적"이라며 "자력과 타력의 문제는 하나의 방편으로 단지 성불을 위한 길이 다를 뿐"이라고 강조한다.

효란 스님도 마찬가지다. "선이든 염불이든 믿으면 하나"라고 말한다.

스님은 "육조 혜능 선사의 제자들이 염불수행을 하던 선도라는 대사를 보고, 육조 선사에게 '우리들은 죽도록 참선만 하는데, 저들은 염불만 하니 무슨 이익이 있어서 하는 거냐'고 묻자, 육조 혜능 선사는 '일구미타무변염(一句彌陀無變念 : 일념으로 믿고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 염불하면) 불로탄지도서방(不勞彈指到西方: 손가락 튕기는 힘도 들일 것 없이 서방정토에 태어난다)'라 말했다"며 "이는 수행자의 인연에 따라 수행법이 다르고, 수행법의 우위는 없다"고 강조한다.

김철우 기자



50여 논객들이 재연 스님의 주제 강연을 듣고 있다.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
선우논강, 50여 논객 열띤 토론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여전히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논쟁 대상이다.

8월 29일, 남원 실상사에서 열린 제12회 선우논강 '<대념처경>과 간화선'에도 5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해 수행에 관한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재연 스님(화엄학림 학장)은 '<대념처경>의 심(心). 념처(念處). 법념처(法念處)와 화두 참구'란 주제 강연에서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선정보다 지혜를 중시하고 △각각 화두와 법을 챙겨 △긍극에 견성과 해탈에 이르는 수행으로 부처님의 세계관과 수행 방법론에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한 '두 수행법의 다른 점'에 대해 "참구대상, 직관과 분석, 불립문자, 인가 등에 서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03년에 열린 제7차 선우논강에서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란 주제로 제기됐던 것으로 이번 논강에서는 구체적으로 간화선을 대표하는 화두와 위빠사나의 근간인 <대념처경>을 상호 비교하는 자리였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철오 스님과 해강 스님은 "화두를 정해진 대상이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사마타에 가까운 수행으로 오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 경험이 있다는 지우 스님도 "위빠사나 입장을 분석으로 표현하기보다 관으로 보아야 하며, 간화선에서 불립문자는 깨달음의 세계를 문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지 경전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천안 호두마을에서 수행 중인 김열권씨는 "위빠사나 수행이 간화선과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된 것은 한국불교의 발전을 뜻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글·사진/남원=이준엽 기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동 팔공산 계곡
전화번호 : (053)324-1289 지수 대진 합장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월정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기 마음속에 들어 있는 심원을 찾아내는 일, 그것이 수행이다. 대승의 바른 믿음을 발해 물러서지 않는 수행의 길을 걷다보면 본질을 투시하고 실상을 관조하는 안목을 얻는다. 그렇게 발현된 지혜의 안목은 영원히 자기를 살린다. 그래서 수행은 생명을 걸어볼 만한 일대사의 일이 되고도 남는 것이다. 생명을 걸어 생사가 둘 아닌 깨달음의 자리에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부산 광안동 새말귀선원(선원장 춘당 이황우, www.saemalgui.org)이다.

새말귀선원에는 '전 생애를 통틀어 수행보다 중한 일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이 거사불교의 횃불을 치켜들었던 백봉 거사의 뜻을 이은 춘당(春堂) 거사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매주 금요일에는 <금강경>과 <유마경> 강의를, 토요일에는 철야 참선과 <선문염송> 법문을 듣고 있다.

모습없는 '나' 찾는 일에 생명 건다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⑫ - 부산 광안동 새말귀선원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일요일 새벽 5시까지 철야참선 정진을 하고 있는 부산 새말귀선원의 학인들.

8월 27일 철야정진을 앞둔 새말귀선원을 찾아 춘당 거사에게 '새말귀'의 뜻부터 물었다.

"스승님이 재가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안한 신화두(新話頭)의 우리말입니다. 재가자들이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화두를 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양에 속하지 않는 허공과도 같은 것이 내 육신을 끌고 다닌다는 법문을 이해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도 하는 그 놈이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을 한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곧 화두를 놓치지 않는 효과를 거두는 공부법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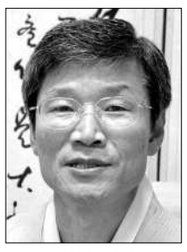
#대승법문 들을 수 있는 귀부터 열고…

새말귀와 화두 정진으로 화두 참구의 관성을 높여가는 새말귀선원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히 대승의 믿음에 근거한 수행을 한다는 것이다. 대승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추는 것이 공부의 출발점이 될 만큼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법문과 참문으로 일관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대승경전인 <금강경>을 설하는 것도 대승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또한 일년에 두 차례 4박 5일 동안 잠자지 않고 수행하는 용맹정진은 새말귀선원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 수행의 한 고비를 넘어서는 관문이 되고 있다.

"불불이불상견(佛佛而不相見)" 새말귀선원에 인연이 된 초심자들에게 춘당 거사가 던지는 화두다. '부처가 부처를 서로 알아보지 못 한다'는 이 화두 하나만 깨쳐도 대오를 하게 되지만 우선은 대승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이끌어주는 갈고리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대승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대승은 모습 없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부요, 모습을 목표로 하면 모두 소승입니다. 빛깔이나 소리로 여래를 볼 수 없다고 <금강경>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어떤 경우라도 대승이어야 합니다. 모습에 속아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대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른 수행이며 나중에는 모습에 속는 일이 차차로 없어지게 됩니다."



이황우 거사.

새말귀선원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춘당 거사의 지도는 절대적이다. 백봉 거사의 제자로서 유일하게 선원을 열고 그 뜻을 이어오고 있는데다 학인의 공부는 오로지 가르치는 사람의 손에 달렸다고 할 정도로 제자들을 향한 춘당 거사의 지도는 철저하고 지극하기 때문이다. 23년 전부터 학인을 도와주고 있는 춘당 거사는 법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을 가리지 않았고 몸을 보살필 생각조차 내지 않는 스승으로 통한다. 철저히 일대일로 진행되는 춘당 거사와의 참문을 통해 초심자들은 화두를 참구하는 맛을 알아 가고 구참자들은 수행 중에 빠지기 쉬운 오류를 바로 잡아 나간다.

#춘당 거사와 일대일 참문

도우회 회장 김경철(45 · 원명)씨는 "처음 선생님의 법문을 들었을 때 뭔가로 머리를 맞은 듯이 띵했다. 잘못된 선입견을 깨고 선생님의 법문을 자꾸 듣다보니 수행 이상의 것은 없다는 결론에 저절로 가 닿았다"고 말했다.

스승의 바른 지도를 받고 있는 새말귀선원에는 세 가지 철칙이 있다. 첫째는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스승을 믿을 것', 둘째는 '다 놓을 것', 셋째는 '목숨 걸어 놓고 수행할 것'이다. 그 속에는 이 공부는 절대의 공부요. 단 1초라도 공부 외에는 할 일이 없어야 한다는 춘당 거사의 가르침이 살아있다.

밤 11시 <선문염송> 법문이 시작됐다. 인터넷(www.ohmylove.co.kr)에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춘당 거사의 법문은 <선문염송>에 녹아 있는 선사의 살림살이를 법당 가득 출렁이게 한다.

"불법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은 변해왔고 이렇게 생긴 모습이 다르다고 인정하지만 육신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한번도 변함이 없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천기누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천기누설을 해주셨는데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것은 모습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 모습을 구해서는 안 되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서야 대승법문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고속도로에 올라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고속도로를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금요일 경전 강의, 토요일 철야정진

수행의 고속도로에 올라선 사람 중엔 멀리 강원도 태백에서 철야 정진에 참가한 김현희(정혜) 씨도 있다. 서예를 배우다 춘당 거사가 들려주는 '좋은 말씀'에 끌려 시작됐던 공부가 익고 깊어져 수행이 전부가 된 사람도 여럿이다. 교사, 간호사, 한의사 등 전문직이 많으며 가족이 함께 수행의 깊은 맛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다. 철야 정진이 시작된 후 10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수행 열기가 뜨겁다.

이처럼 새말귀선원 학인들은 수행에 목숨을 건다. 흐리멍덩하게 앉아 내가 수행한다는 상을 지었다가는 어김없이 춘당 거사의 방망이를 맞는다.

새벽 5시. 철야정진을 끝맺는 죽비소리에 몸을 일으키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깜깜한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며 하얗게 밤을 새운 도반들의 마음에 밝아있는 아침이 차오르고 있었다. 어두워진 적조차 없었던 그 밝음 그대로. (051)759-1097

글 · 사진/부산=천미희 기자

새말귀선원 세가지 철칙

① 부처님과 부처님법과 스승을 믿을 것
② 다 놓을 것
③ 목숨 걸어 놓고 수행할것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33> 용과 뱀이 함께 사는 곳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다. 그러니 항상 서로 척지고 살지 말라는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지만 그 못지않게 미워하는 사람을 매일 봐야하는 것도 여간 고역이 아니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원수는 한번 맞닥뜨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대중조직의 테두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매일 봐야 하는 미운 사람들은 언제나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니 항상 외나무다리 위에 서 있는 격이라 하겠다.

선가 역시 '부모 말도 안 듣고 집을 나온' 개성이 강한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흔히 '용사혼잡(龍蛇混雜)'이라고 한다. 이 말은 무착문희(820~899) 선사가 오대산 금강굴에서 만난 문수보살에게 "그곳 대중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으니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살고, 용과 뱀이 함께 섞여 있소."라고 한 것에서 기인한다.



어리석은 대중 산중에서 쫓아낼 요량으로 제사 지내고 술·고기 먹으니 무더기 줄행랑

다시 무착 선사가 묻기를 "수행자는 얼마나 사느냐?"고 하니 문수보살은 그 유명한 공안 "전삼삼(前三三) 후삼삼(後三三)"이라고 답변한다. 그 뒤부터 '전삼삼 후삼삼'은 <벽암록>35칙으로 정리되어 오늘까지 수선자(修禪者)들에게 커다란 의심덩어리를 던져주고 있다.

행동거지가 머트러운 괴각들과 함께 사는 것을, '역경계 선지식'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결국 그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못살고 걸망을 싸기 마련이다. '무거운 절 떠나라고 하느니 가벼운 중 떠난다'는 말이 딱 맞다. 정작 가야할 놈은 계속 살고, 살아야 할 사람은 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바세계이다.

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칼같은 선사들은 전체 대중을 위하여 말썽꾸러기는 몽둥이를 휘둘러 가차없이 쫓아내 버리든지, 개과천선(改過遷善)케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반대로 한 두 명을 빼고 나머지 대중 전체가 보기 싫을 때는 그 회상을 파(破)해버리는 수밖에 없다.

분양선소(汾陽善昭:947~1024) 선사는 데리고 살 수 없는 대중을 목소리 돋우지 않고도 자기 발로 걸어 나가게 만든 고수다.

하루는 대중을 모아놓고 "간밤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서 술과 고기 그리고 지전(紙錢)을 찾았다. 그러니 속가법식대로 제사를 모셔야겠다"고 했다. 곳간을 열고서 제물을 마련해 위패를 모시고 술잔과 고기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종이돈을 불살랐다. 절집에서 유교식으로 제사를 모셨으니 대중이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어른이 제사를 주관하니 참석이야 했겠지만 이맛살을 있는대로 찌푸렸을 것이다. 그런데 한 술 더 떠 제사를 마친 후 사판의 대표격인 도감과 이판의 대표격인 입승을 제사상 앞으로 오게 했다. 그리고는 소반에 남아있는 술, 고기와 함께 음식을 주었다. 하나같이 수행자가 이런 것을 먹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선사는 빙그레 웃으며 혼자 가운데 자리에 앉아 태연히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셨다. 대중은 술과 고기를 큰 방에서 먹는 '땡초'를 어떻게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느냐면서 모두 걸망을 지고 떠나버렸다.

그래도 스님을 믿고 따르는 석상자명(石霜慈明:986~1040)과 대우(大愚), 곡천(谷川) 스님 등 몇 명은 끝까지 남아 있었다. 이날 선사는 법상에 올라 이렇게 본심을 털어놓았다. "수많은 잡귀신 떼를 한 상의 술, 고기와 두 뭉치의 종이돈으로 모조리 쫓아버렸다. 남은 대중 속에는, 가지와 잎은 없고 오로지 진짜 열매만 남아 있구나."

분양선소 선사의 진정한 뜻은 죽은 귀신을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산 귀신을 쫓아버리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한 스승의 본래 의도를 모르고 작전에 제대로 걸려든 어리석은 산송장 같은 대중을 보내버리기 위하여 제사상의 술과 고기가 또다른 할과 방이 되었던 것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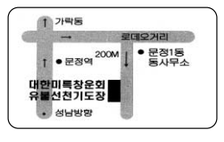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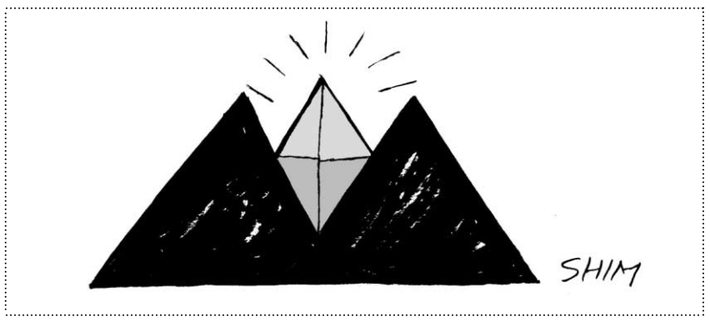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60)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5강 육조해 서문 번역 (3)

人我山崩處(인아산붕처) 無爲道自高(무위도자고)



자기 안의 불성만 믿고 안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불성을 삶에서 개화시키는 노력이 시시각각 있어야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

왜 금강에 비유했는가

12. "여래가 굳이 금강(金剛)에 빗댄 것은 다만, 세인(世人)들의 성(性)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입으로 경전을 왼다고 광명(光明)이 생길 리 없고, 밖으로 외면서 안으로 행해야 광명이 같이 밝아질 것이다. 안으로 견고하지 않으면 정혜(定慧)가 망(亡)하고, 입으로 외고 마음으로 행해야 정혜가 함께 밝아진다. 이것을 궁극(究竟)이라 한다." (如來所說金剛喩者, 祗爲世人性無堅固, 口雖誦經, 光明不生, 外誦內行, 光明齊等. 內無堅固, 定慧卽亡. 口誦心行, 定慧均等. 是名究竟.)

–불성이 원래 견고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견고해 지라고 금강을 말했다고? 금강불성은 그럼, "금강처럼 불성을 단련시키라"는 소리가 되는데…

13. "금이 산중에 있어도 산은 이것이 보물인 줄 모른다. 보물도 이게 산인 줄 모른다. 왜냐. 지각(性)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지각(性)이 있어, 그 보물을 쓸 줄 안다. 금의 전문가를 구해, 산을 뚫고 깨서 원광을 제련하는데, 그렇게 얻은 순금을 처분하여 빈고(貧苦)를 면한다. 사대신(四大身) 중에 있는 불성 또한 그러하다. 사람의 몸(身)은 세계(世界)에 해당하고, 인아(人我)는 산(山)에 해당하며, 번뇌는 광석에, 불성은 금에, 지혜는 제련사에, 정진용맹은 (그 광석을) 뚫고 깨는 일에 비유된다… 몸의 세계(身世界) 가운데 인아의 산(人我山)이 있고, 인아의 산 가운데 번뇌의 광석이 있다. 번뇌의 광석 가운데 불성의 보물이 있고, 불성의 보물 가운데 지혜의 제련사가 있다. 지혜라는 제련사를 써서 인아의 산을 깨고 뚫어, 거기서 번뇌 광석을 보는데, 그것을 깨달음의 불로 불때고 녹이면, 거기 금강불성이 분명히 명징(明淨)하게 있는 것을 본다. 금강의 비유를 든 취지가 여기 있고, 그래서 경의 이름도 그렇게 짓게 되었다." (金在山中, 山不知是寶. 寶亦不知是山. 何以故, 爲無性故. 人則有性, 取其寶用. 得遇金師, 斬鑿山破, 取礦烹鍊, 遂成精金, 隨意使用, 得免貧苦. 四大身中佛性亦爾. 身喩世界, 人我喩山. 煩惱喩礦, 佛性喩金, 智慧喩工匠, 精進勇猛喩斬鑿. 身世界中有人我山, 人我山中有煩惱礦. 煩惱礦中有佛性寶. 佛性寶中有智慧工匠. 用智慧工匠, 鑿破人我山, 見煩惱礦, 以覺悟火烹煉, 見自金剛佛性了然明淨. 是故以金剛爲喩, 因爲之名也.)

– 제 1부의 6, 7, 8강에 걸쳐 이 비유를 짚어본 바 있다. 다시 거들떠 보면 좋겠다. 연구원 근처에 들른 어느 웰빙 보리밥집의 액자에 이런 싯귀가 적혀 있었다. "인아산붕처(人我山崩處), 무위도자고(無爲道自高), 범유하심자(凡有下心者), 수복자귀의(壽福自歸依)." 무슨 뜻일까. "인아의 산이 무너지는 곳에, 무위의 도가 절로 높아간다. 어디든 하심(下心)하는 바로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절로 몰려든다." 자기 속의 분열도 그렇고 사람 사이의 갈등도 자연과 실제(實際)를 수긍하고 존중하지 않는 저항에서 생긴다. 그 싸움으로 이곳저곳에 온통 피가 낭자하다. 도덕이나 계율도, 칭찬이나 비난처럼 그런 인아산(人我山)의 긁어 부스럼 가운데 하나이기 쉬우니, 정말 조심해야 한다. 합장.

14. "(그렇지만) 헛 이해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이름만 있고 실질이 없다. 취지를 이해하고 행동을 닦아야 명(名)과 체(體)가 구비된다. 닦지 않으면 범부요, 닦으면 성지(聖智)와 같다. 그래서 금강(金剛)이라 이름지었다." (空解不行, 有名無體. 解義修行, 名體俱備. 不修卽凡夫, 修卽同聖智, 故名金剛也.)

–이 설명은 덧붙일 필요 없는 것같은데….

왜 般若라 했는가

15. "반야는 범어이다. 지금 우리말로는 지혜라 한다.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지(智)이고, 방편을 발휘하는 것을 혜(慧)라고 한다. 혜는 지의 체(體)이고, 혜는 지의 용(用)이다. 체(體)에 혜가 있다면 지를 운용하여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체에 만일 혜가 없다면, 어리석음에 빠져 지를 운용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로 이 어리석음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何名般若, 是梵語, 唐言智慧. 智者不起愚心, 慧者有其方便. 慧是智體, 智是慧用. 體若有慧用, 智不愚. 體若無慧用, 愚無智. 祗緣愚癡未悟, 遂假智慧除之也.)

–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무엇을 바라밀이라 하는가

16. "바라밀은 지금 우리말(唐言)로는 도피안(到彼岸)이라 한다. 도피안이란 '생멸을 떠난다'는 뜻이다. 다만 세인들의 성(性)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법(一切法) 상(上)에 생멸상(生滅相)이 있어, 제취(諸趣)에 유랑(流浪)하여 진여(眞如)의 땅에 이르지 못한다. 이 상태가 차안(此岸)이니, 일체법에 대 지혜를 갖추어 생멸을 완전히 떠나면 이것이 도피안이다. 또 이렇게도 말한다. '마음이 헤매면 차안이고, 마음이 깨달으면 피안. 마음이 삿되면 차안이고, 마음이 바르면 피안'이라고… 구설십행(口說心行), 입으로 말하고 동시에 마음으로 행하면 즉 자법신(自法身), 즉 자신이 곧 법신이라 바라밀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입으로는 외되, 마음이 행치 않으면 거기 바라밀은 없다." (何名波羅密, 唐言到彼岸. 到彼岸者, 離生滅義. 祗緣世人性無堅固, 於一切法上, 有生滅相, 流浪諸趣, 未到眞如之地, 並是此岸. 要具大智慧於一切法, 圓離生滅卽是到彼岸, 亦云心迷則此岸, 心悟則彼岸. 心邪則此岸, 心正則彼岸. 口說心行卽自法身, 有波羅密. 口說心不行卽無波羅密也.)

–육조는 이 언덕과 저 언덕을 어디 저편으로 읽지 않고, 쉽게 말하자면 마음의 '태도'로 읽었다! 피안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다. 혜능은 고위관리를 비롯한 청중들에게 "서방정토가 지금 여기 있으니, 어디 한번 보여주랴"하고 은근 유머를 섞어 깨우쳤다.

무엇을 일러 經이라 하는가

17. "경(經)이란 길(徑)을 뜻한다. 성불(成佛)로 가는 통로라는 뜻에서 그렇게 불렀다. 이 길을 걷자면, 마땅히 안으로 반야행(般若行)을 닦아 구경(究竟)에 이르러야 한다. 만일, 외고 설하기만 하고, 마음이 이에 의거하여 행하지 않으면 자심(自心)에 경(經)이 없어진다. 실견(實見)하고 실행(實行)해야만 자심에 경(經)이 있다! 여래(如來)가 이 경을 금강반야바라밀(金剛般若波羅密)이라고 부른 뜻이 바로 여기 있다." (何名爲經. 經者徑也. 是成佛之道路. 凡人欲臻斯路, 應內脩般若行, 以至究竟. 如或但能誦說, 心不依行, 自心卽無經. 實見實行, 自心卽有經. 故此經, 如來號爲金剛般若波羅密也.)

– 누구나 한 권의 <금강경>을 갖고 있다. 글자로 씌어지지 않은 그 경전을 수지독송(受持讀誦)해 나가는 법을 배우자. (我有一卷經, 不因紙墨成. 展開無一字, 常放大光明.)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㉜ 이발사 출신 우바리존자

조태호



우바리존자(?~?): 석가모니 십대제자 중 한 사람. 석가족 궁정의 이발사 출신으로 교단계율에 통달하고 계율을 잘 지켜 지계제일로 꼽힘.

네티즌 교리문답

시주와 보시는 같은 의미인가요?

문 어르신들은 일반적으로 절에 가면, 시주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시를 하러 간다고도 합니다. 그럼 시주와 보시가 다른 것인지요?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딩학생)

답1 : 시주나 보시는 같은 의미입니다. 재물 • 불법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온화한 행동 • 환한 얼굴도 보시며 시주일 수 있습니다.

시주(施主)란 본래 보시(布施)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근래에 와전되면서 '시주' 자체로서 '보시하다'라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시주는 보시로 보아도 될 듯합니다.

보시는 '준다' '베푼다'는 뜻으로 육바라밀(六波羅蜜)의 첫 번째입니다. 보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보시가 재물보시(財布施) • 무외보시(無畏布施) • 법보시(法布施)의 3가지 보시입니다. (보시원)

답2 : 맞습니다. 시주는 보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앞서 보시원님의 말씀처럼, 보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재보시란 말 그대로 재물을 주는 보시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입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지요. 요즈음에는 불우이웃돕기가 많아서 재보시는 비교적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보시를 할 경우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보시어야 제 뜻을 살리는 보시가 됩니다. 물건을 주고 반대로 돌아올 것을 꾀할 경우 그것은 거래이므로 보시가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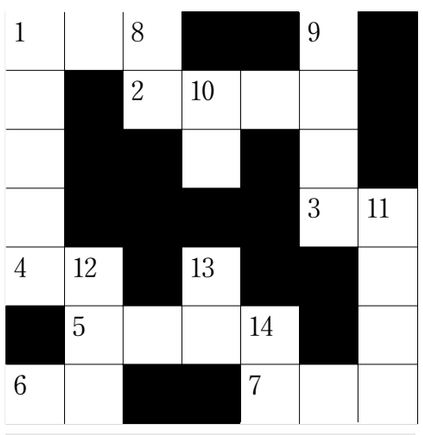
무외보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남의 두려움을 불법에 의해 제거해 준다는 의미가 있고, 나의 수행이 올바름으로 인해서 남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행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외보시는 흔히 무재보시(無財布施)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재물 없이 보시한다는 뜻인데 남과 만나서 행하는 유순한 인사와 온화한 행동, 환한 얼굴, 편안한 웃음 등이 무재보시에 속합니다.

법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보시 중에는 법보시가 '최고의 보시'라고 하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어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힘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생의 의욕을 상실했거나, 생을 염세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법을 줌으로써 새롭게 탄생시키는 보시는 생명을 구제하는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상황이 안 좋은 요즘 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보시의 정신을 실천해 어려운 사회분위기를 일신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법보시)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가로

1. 대승의 교법을 담고 있는 경전 2. 사법고시 외무고시 ○○○ 3.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조계종 중앙역경원 초대원장을 역임함 4.이제까지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 5. 철봉 · 평행봉 등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모든 운동 6. 먹을 가는 데 쓰는 문방구 7.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

세로

1. 정토 3부경 중에서 가장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무량수경 2권을 가리킴 8. 좌선 수행할 때 졸음을 쫓기 위해서 걷는 것을 칭하는 말 9. 시기에 늦었음을 한탄한다는 뜻의 한자성어 10. 사단법인의 조직 ·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11. 마음에 거리낌 없이 솔직함 12. 빛의 굴절로 인해 엉뚱한 곳에 가상의 물체가 보이는 현상 13. 비행기의 몸통부분 14. 속국이 종주국에게 때마다 예물을 바치던 일.

정답은 26면에

한국 미학의 큰별 우현 고유섭의 혜안



구수한 큰 맛
고유섭 지음 | 진홍섭 엮음
다할미디어 | 1만5천원

생전에 "나의 오직 하나의 소원은 한국미술사의 완성"이라 했던 한국미술사학의 거보 우현 고유섭(1905~1944). 개성박물관 관사의 단칸방에서 39세로 요절하기까지 우현은 한국미술사 저술이란 '독립운동'에 몸바쳤다.

올해는 고유섭 선생 탄생 1백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와 관련된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예전에 펴낸 조선미술사 연구가 최근



1941년 석굴암에서 지인들과 찍은 필자의 모습(왼쪽에서 첫 번째).

그의 제자 진홍섭 前 이화여대 교수에 의해 손질돼 출간됐다. 제목은 <구수한 큰맛>이다.

이 책은 우현이 생전에 한국 미술에 관해 쓴 24편의 주옥같은 글을 골라 엮은 것이다. 생전에 난해한 한문투로 발표돼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국미술사에 관한 글을 쉬운 한글로 풀어 주고, 발표 당시인 1930년대의 시대적 배경과 출처, 어려운 한문 원전의 해석, 전문용어 해설 등을 통해 한국미술사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 놓았다.

특히 이 책은 당시에 처했던 현실과 한국미술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찾아내 정곡을 찌르는 우현의 분석이 돋보인다. 가령 삼국의 고분을 비교 평가할 때 "백제는 자칫하면 영리에 떨어지기 쉬운 조자룡이요, 고구려는 성급에 떨어지기 쉬운 장비요, 신라는 재주없는 관우인 양하다."는 식이다. 와당 무늬로 본 삼국의 특색에선 "고구려에서는 고딕적 요소를, 백제에서는 낭만적인 트집을, 신라에서는 클래식한 것을 본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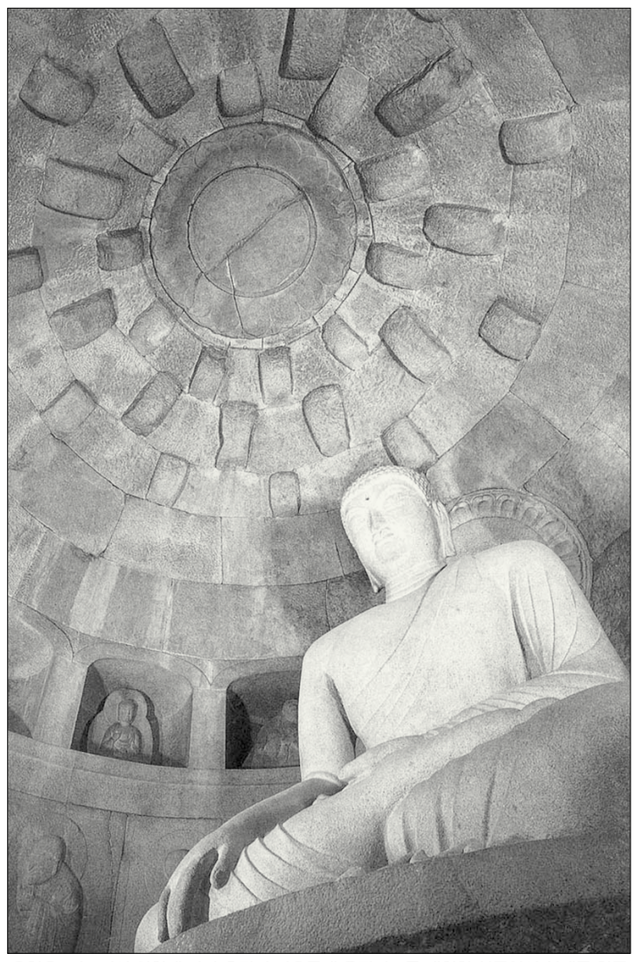
우현은 일제시대에 미학과 미술사를 국내에선 처음으로 전공하고 이를 뿌리내리게 한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미의 특질을 '무기교의 기교' '비정제성' '민예적인 것' '구수한 큰 맛' 등으로 압축해 표현하기도 했다.

조선미술에 있어서 구수한 큰맛이란 어떤 걸까? 우현은 순박순후한 데서 오는 맛이요, 그것은 깊이에 있어 입체적으로 쌓여 있는 맛이며, 속도에 있어선 완만한 데서 오는 맛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현은 조선미술에서 늘 한 개의 모순을 본다고 말했다. 그것은 작은맛과 큰맛이다. 조선미술의 단아함은 작은 데서 오는 예술성이다. 그러나 다시 큰맛이 있다. 큰맛은 단아치 않은 것이다.

이 모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현은 단아한 작은 맛이란 외부적, 자연적, 지리적 환경의 소치로 보고 있다. 단아란 자연의 제약에서 오는 면이요, 큰맛이란 생활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무관심, 체념 등에서 거칠고 큰것이 나오고 부정이 나온다는 논리다.

구수한 큰맛의 유별난 예로 우현은 '성덕대왕신종'을 들고 있다. 그 종의 문양은 8능의 굴절마다 8판의 연화가 매듭을 이루고, 정상의 힘찬 용 조각은 종을 칠 때마다 중생심의 이무기가 용이 돼 승천하는 경지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는 "실로 구수하게 크다"라고 성덕대왕신종을 평가하고 있다.

우현이 한국미술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감탄해 했던 것중의 하나가 바로 석굴암이다. 석굴암에는 매우 절



우현은 보는 이의 위치에 따라 후광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배치한 석굴암의 설계를 한국미술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한다.

묘하게 배치된 연화문이 두 개 있다. 본존불 뒤쪽 벽과, 석굴 천장의 연화문이 그것. 본존불 뒤쪽 벽의 연화문은 후광인데 그것은 감상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후광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배치한 것이다.

우현의 석굴암에 대한 극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이 책에서 "급기야 원상 앞에 다다라, 부처의 얼굴을 우러러 볼 때 후광이 어느덧 정상의 연화로 변하도록 설계돼 있으니, 이것이 천장 중앙에 남아 있는 한 송이 연화의 존재 이유이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또 "이것이 바로 석굴암의 생동적 기운이요, 실로 경탄할 만한 신의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을 다 읽고나면 우리미술사학의 황무지나 다름없던 1930년대 우리 미술을 이렇게 날카롭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했을까 하는 생각에 숙연해 지기까지 한다.

아마도 이런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에 이 책을 엮은 진홍섭 씨를 비롯해 황수영(前 동국대 총장)와 최순우(前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등 한국미술사학계의 거목들이 배출될 수 있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조선미술에서 늘 한 개의 모순을 본다. 그것은 작은맛과 큰맛이다. 조선미술의 단아함은 작은 데서 오는 예술성이다. 그러나 다시 큰맛이 있다. 단아한 작은 맛이란 외부적, 자연적, 지리적 환경의 소치다. 단아란 자연의 제약에서 오는 면이요, 큰맛이란 생활의 태도에서 나온다.

전문가 서평



서른살 경제학
(30대를 위한 생존 경제학 강의)
유병률 지음
인물과사상사 펴냄 | 1만2천원

이 책은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실제 경제현장의 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탄력성 개념을 매스티지 (감성적 중저가 명품 소비 경향) 와 메트로 섹슈얼 (도시형 남성) 을 이용해 풀이하고, 할인점의 가격파괴에 숨어 있는 마케팅 전략을 게임이론으로 설명한다.

금리와 유가, 환율, 대기업의 구조, 영업, 순환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지은이는 알기 쉽게 '사고'하는 방법을 독자들에게 주입시키며, 이것이야 말로 잘 먹고 살사는 삶의 지름길로 들어가는 그 시작의 단계라고 말한다.

이 책의 가치가 매겨지는 중요한 순간이다. 모든 학문의 기초가 '사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자들은 경제학을 '사고'과정을 생략한 실전 응용 분야에 접목시켜 현실의 빠른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통의 월급으로 생활하는 미혼 남녀들은 넉넉한 용돈을 쓰지 못하면서도 노후는커녕, 결혼자금을 만족스럽게 준비하지 못해 경제 생활의 악전고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무리한 과다지출로 인한 카드사용 등으로 본의 아니게(?) 생활고에 찌든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또한 빈번하다. 그

경제 읽는 눈, 뜨셨습니까?

렇다면, 동일한 월급에 동일한 연령에 비슷한 가정환경에 보다 빨리 경제적인 목표를 이뤄나가는 이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사실 해답은 간단하다. 경제를 읽는 눈을 갖는 것이다. 경제라고 생각하면 머리 아픈 과제라고 발을 빼는 이들이 많지만,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흥미로운 분야가 경제라는 사실을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발견 할 수 있다.

'경제를 읽는다'는 말은 은행과 투신, 증권을 오가는 경제 흐름과 금리, 환율로 반영되는 시장 동향, 이에 따라 움직이는 각종 다양한 경제 상품들의 변화 등을 파악해 내는 센스라는 말로 재해석 될 수 있다.

지은이가 연령대 별로 예상하는 노후 생계비는 누군가는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미래에 대한 공포감을 동반한다. 그건 바로 이 책이 갖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에서 출발하는 경제를 왜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읽어낼 줄 알아야 하는가 그에 대한 이유와 동반되는 해답을 지은이는 일목요연하게 지금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재빠르게 짚어 나간다.

현재 이미 1000포인트를 넘어선 국내 증시의 기관 투자자들의 매입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적립식 펀드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펀드를 가입한 가입자들은 현재 증시 활황을 맞이하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 역시 다가올 시장을 읽어 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만이 획득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다. 지은이는 무턱댄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경제원리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 한다.

■홍석민(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소원성취 기도도량
봉화 약수암
봉화에 위치한 **약수암은 부처님의 가피와, 산신각의 산신 할아버지의 영험함, 그리고 경내 석간수로 흐르는 약수의 치유력**으로 고통받아 오던 신도들이 건강을 되찾고, 소원하던 바를 이루어 가며 점차 기도도량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난치병으로 죽음만을 기다리던 김순분 보살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지병으로 삶을 포기했던 박정희 보살님.... 약수암 부처님께 의지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한 결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도님들 또한 약수암의 기도로 원하는 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삶의 끝에 서 있다고 절망하는 신도님들께 마음과 질병의 치유를 함께할 수 있는 약수암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돈보다 지극한 정성의 마음**이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약수암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2리 약수암
(분천역 바로 뒤 / 영주에서 봉화를 거쳐 현동, 울진방향)
054)672-7932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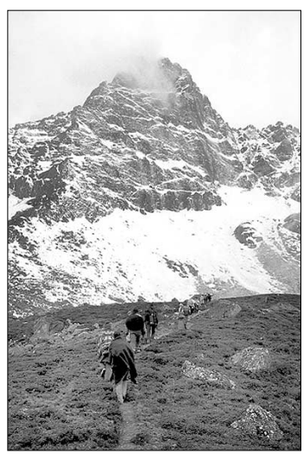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티베트 일곱 아이들 14일 히말라야 대장정

1951년 9월 9일 중국이 티베트 라사를 점령한 이래 해마다 3,000명 가량의 티베트인들이 고향을 떠나 히말라야를 넘는다. 희망을 찾아서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달라이 라마다. 그가 없다면 티베트인은 티베트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를 향해 모든 것을 바친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아이들은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 그 희망을 달라이 라마의 품으로 보낸다.

이 책은 지은이가 2000년 4월 15일부터 14일간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 다람살라로 달라이 라마를 찾아 가는 돌커(6), 페마(7), 돈둡(8), 치메(10), 락파(10세), 탐딩(10), 롭장(15) 등 일곱 티베트 아이들의 눈물어린 여정을 따라가며 그들의 현실을 들려준다.


눈 덮인 히말라야의 봉우리를 오르는 티베트의 아이들.

1부에는 그 아이들이 왜 고향과 조국을 떠나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담겨 있다. 돌커와 언니 치메는 비싼 학비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가 없다. 페마의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로 술만 마시면 늘 엄마와 페마를 때린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아빠가 페마의 다리를 부러뜨리자 엄마는 아빠의 폭력에서 페마를 구하기 위해 페마를 인도로 보낸다.

승려 롭장은 중국 공안원들 앞에서 달라이 라마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

2부에서는 가이드 니마와 함께 일곱 아이들이 티베트의 수도 라싸를 출발해 히말라야를 넘는 대장정이 펼쳐진다. 그들에게는 목숨을 건 탈출이다. 가족 곁을 떠난 셋째 날 밤, 여섯 살 난 어린 동생 돌커를 잘 돌봐 주라던 엄마의 당부 때문에 정작 자신의 힘겨움은 까맣게 잊고 있던 치메가 동생이 잠들자마자 눈물을 쏟는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길은 가파르고 커다란 바위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지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높은 산, 가파른 길, 깊은 물과 싸웠어요. 엉엉 울면서요."



이렇듯 자유와 희망의 길에 도달하는 과정은 고단하다. 고산증과 배고픔, 졸음, 차디찬 강물. 이것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유의 길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다. 마침내 험난한 고난의 길을 넘어 달라이 라마의 품에 안긴 이들은 지금 대부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어린이 마을에 정착, 티베트의 해방과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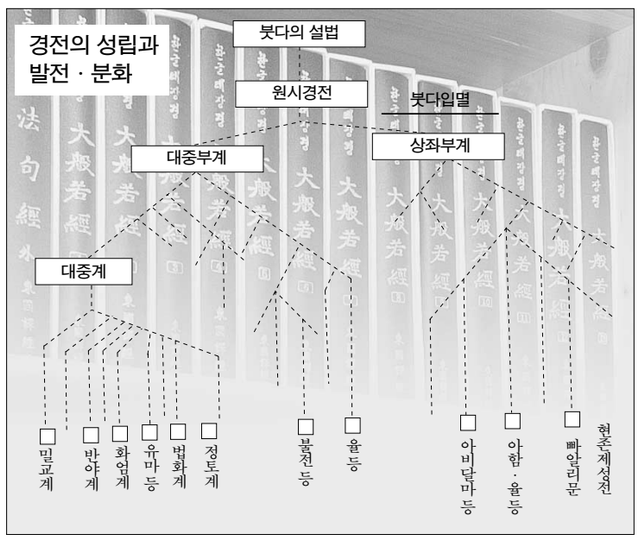
히말라야를 넘는 아이들
마리아 블루멘크론 지음 | 유영미 옮김 | 지식의숲 | 1만3천원

경전의 역사 한눈에 '쏙'

성립 · 발전 · 분화 과정 짚고 사상 · 특징 해설



경 이야기
와타나베 쇼코 지음
지성 스님 옮김
우리출판사 | 9천5백원



"불교 경전은 왜 그렇게 종류가 많을까?" "경전에 적힌 가르침은 전부 부처님 말씀일까?"

흔히 팔만 사천 법문이라 일컬어지는 부처님 가르침은 그 양이 방대한 만큼 많은 경전으로 나뉘어 전해지고 있다. 또한 불경(佛經)에는 비유와 설화 등이 가득하고 소설과 희곡 등 다양한 형식이 존재한다. 때문에 불경은 단순히 한 종교의 성전(聖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류사에서 보기 드문 종교문학이자 철학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중요도에 비해 불자들의 경전에 대한 이해는 사실 그리 깊지 못한 경우가 많다. 워낙 경전의 양이 방대하다 보니 대부분의 신도들은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천수경> 등 예불의식에 관련된 경전만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많은 경전은 어떻게 성립, 전승된 것일까? <불타 석가모니> 등의 저서로 우리에게 친숙한 일본 불교학자 와타나베 쇼코(渡邊照宏)는 <경 이야기>에서 경전의 성립과정과 각 경전의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경전의 세계로 들어가는 징검다리를 놓았다.

우선 1부에서는 경의 성립과정과 현존하는 불교성전, 경의 형식과 실례를 살피고 있다. 1장 '경의 성립'에서는 경이란 무엇이고 불교 경전이 성립되는 과정과 발전, 분화 과정은 어떠한지를 설명한다.

경전의 성립 과정에 대해 흔히 알려진 것은 '결집'이다. 45년간의 설법 후 부처님이 입멸(기원전 480년)하자 제자들은 부처님의 뜻이 왜곡되어 전해지는 것을 막고 교단을 확립하기 위해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가르침을 재확인하고 정리하는 일종의 경전편찬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모두 4차례 걸쳐 이뤄지는데 이를 결집이라고 한다.

이후 교단 내부에서 이설(異說)이 발생, 보수적인 상좌부와 진보적인 대중부로 분열했고 상좌부나 대중부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룹이 새로운 경전을 제작하고 자신들을 '대승'이라 불렀다고 지은이는 설명한다. 그리고 이 대승불교가 더욱 분열되어 밀교가 출현하게 됐다는 것이다.

2장 '현존 불교성전'은 인도에서 성립된 경전이 중국을 거쳐 세계 각국으로 번역돼 가는 과정을 알려준다. 또한 60세가 넘어 경, 율의 원전을 구하기 위해 서북인도를 여행한 법현 스님과 9년간 역경사업에 매진한 구마라집 등 불경의 한역(漢譯)에 앞장선 수행자들을 소개한다.

3장 '경의 형식과 실례'에서는 부처님의 초전법륜을 담은 <전법륜경> <열반경> 등 대 · 소승을 아우르는 경전을 예로 들며 경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2부에서는 현존하는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반야경> <화엄경> <유마경> <승만경> 각각에 담긴 사상과 특징을 해설하고, 동아시아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법화경>와 <정토삼부경>에 대한 고찰을 담아 경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경전의 성립 과정에 대한 많은 이견(異見)을 함께 설명함으로써 경전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지은이 와타나베 쇼코 박사는 일본 동양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동양문고 연구원으로 일했다. 책을 옮긴 지성 스님은 현재 운문사 승가대학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출가 수행 뒷이야기

구례 천은사 주지 금종 스님이 부산 · 광주 불교방송을 통해 진행한 '금종 스님의 참 나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해 '다시 태어나도 이길을' 제목의 책으로 묶었다. '금종 스님의 참 나를 찾아서'는 대부분의 라디오 강좌가 경전을 해설하거나 스님의 법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스님이 출가하게 된 동기와 수행생활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청취자들의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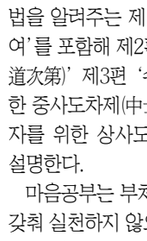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금종 스님 지음
광문각 | 1만원

2년 3개월 동안 진행됐던 프로그램 내용 중 출가 사연과 수행담,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복지활동, 재소자 교화 등 다양한 포교활동을 보여주는 일화를 간추려 담았다.

특히 병원에서 만난 한 수녀님이 '참된 부처님의 길을 가라'는 메시지를 담아 보낸 그림 편지가 눈에 띈다. 부처님오신날이면 수녀님을 절에 초대하고, 크리스마스나 특별미사에는 스님이 직접 성당을 찾는 등 함께 '도반'의 길을 걷는 모습에서 종교를 초월해 진리를 향해가는 수행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여수령 기자

깨달음의 길 티베트 스승에게 묻다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람림
초펠 스님 옮김
하늘호수 | 1만8천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해도 불법(佛法)의 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도 없이 목적지를 향하는 것과 같아서 깨달음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

최근 국내 최초로 편역, 출간된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람림>은 깨달음을 향해 수행하는 길을 안내해주는 '지도'가 돼 준다.

초펠 스님이 편역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로 알려져 있다. <람림>은 티베트불교 수행의 나침반으로 여겨지는 책이다. 티베트에 전해지는 대표적 <람림>은 8편.

이번에 국내 독자들에게 선보인 <람림>은 쫑카빠 대사의 <대보리도차제론>과 파봉카 린포체의 <보리도차제 법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쫑카빠 대사의 <대보리도차제론>은 인도의 대학자이자 스승인 아띠샤가 1천년 전에 티베트로 건너가 그 곳에서 불법을 펼치면서 저술한 <보리도등론>을 기초로 저술한 것이다.

<대보리도차제론>은 티베트불교에서 6백년 이상 수행의 단계를 충실히 일러주는 지침서로, 티베트 수행자들의 필독서로 애송돼 왔다.

<람림>은 발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제1편 '발심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를 포함해 제2편 '초심자를 위한 하사도차제(下士道次第)' 제3편 '수행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자를 위한 중사도차제(中士道次第)' 제4편 '수행에 익숙해진 자를 위한 상사도차제(上士道次第)'로 나눠 상세히 설명한다.

마음공부는 부처님 가르침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갖춰 실천하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빠질 수 있다. <람림>은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쉽고 상세히 배워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마음공부에는 월반이 없다'는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이 절절하게 담겨 있다.

초펠 스님은 "이 책이 소승 대승 밀법이라고 하는 법에 대한 분별심을 끊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통하는 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부처님께 기원한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선(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향(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캅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캅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제1회 민족사 출판원고 공모

불교전문 출판사 민족사에서는 새로운 원고를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신한 원고를 공모합니다.

▶ 상금 ◉ 대상작 : 1편 800만원 ◉ 최우수작 : 1편 500만원 ◉ 우수작 : 3편 300만원

공모요강
▶ 공모분야: 불교입문, 교리해설, 수행, 명상, 역사, 문화, 수필, 만화, 청소년, 아동 등 특정 분야에 관계없이 대중적 호응도가 높은 원고로 국내에서 출판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 (단 시, 소설, 학술서는 제외)
▶ 응모자격: 누구나 응모 가능함.
▶ 서술방법: 새로운 내용의 글로써 참신하고 진지하며 대중성이 있어야 함. 주제와 소재, 서술형식은 자유.
▶ 원고의 상태: 100% 완성된 원고 또는 80% 이상 완성된 원고에 한함(단 80% 원고는 향후 3개월 이내에 100% 완성된 원고를 제출함을 전제로 함)

응모방법
▶ 원고제출: 한글파일(hwp)로 작성하여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 이메일로 보낼 경우는 출력원고 1부를 별도로 제출요망. 기타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 요망.
▶ 원고매수: 200자 원고지 600매 이상(단 컷, 사진, 그림이 있는 경우는 매수와 상관없이 단행본 1권 분량이 되어야 함)
▶ 기 타: 원고 앞장에 책제목(가제), 원고개요(원고매수 5~10매), 저자소개(이름, 나이, 성별, 전공, 저 역서 등 구체적 소개), 응모분야를 별도로 명기할 것. 저자소개는 필명으로도 가능함.(단 민족사에서 본명을 의뢰할 경우 밝혀야 함)
▶ 원고마감: 2005년 10월 30일까지
▶ 보내는곳: 130-110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2층 도서출판 민족사
E-mail: minjoksa@chol.com ☎ (02)732-2404
▶ 당선발표: 2005년 11월 넷째주 불교계 신문에 공고 및 개별 연락.
▶ 참 고
◉ 당선작은 민족사에서 출판을 원칙으로 함. 출판할 경우 상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인세를 지급함.
◉ 표절 또는 출판 후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선 취소와 함께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응모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민족사에서는 참신하고 대중적인 필자 발굴을 위해 연 1회 지속적으로 원고를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정신적 자유’ 불교적 키워드로 접근

현대 시인들, 삶의 존재 이유 불교 세계관에서 찾아

절마당에 모란이 화사히 피어나고 있었다
누가 저 꽃의 문을 열고 있나

꽃이 꽃잎을 여는 것은 묵언

피어나는 꽃잎에 아침 나절 내내
비가 들이치고 있었다
말하려는 순간 혀를 끊는
비

문태준 시인의 '묵언(默言)' 전문



불교적인 사유가 녹아든 시들이 최근 많이 읽히고 있다. “시는 삶과 세상에 대한 깨달음의 나눔이기에 독자의 정신세계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이경철 문예중앙 주간은 “불교적 깨달음을 쉬운 시어로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가 시(詩)로 나투었다. 존재의 이유, 삶의 실재를 성찰해 온 시인들이 그 해결방법으로 불교적 사유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되는 현대시들을 살펴보면 불교적인 성향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시인의 종교는 상관없다. 불교적인 세계관이 시어로 천착될 뿐이다. 그럼 왜 불교가 이 시대 시단(詩壇)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를까. 또 누가 어떤 시어로 불교를 시화(詩化) 시키는 것일까.

□ 불자시인들은

우선 스님 시인으로는 오현 정휴 청화 덕진 성우 진관 효림 밀행 만다 로담 혜인 정운 지원 원철 묵연 스님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정완영 고은 민영 이상범 신경림 권기호 정진규 이근배 김원각 서정춘 윤금초 오세영 문효치 홍신선 나태주 박제천 이상국 문정희 최동호 이시영 황정원 임동확 원재훈 권대웅 장석남 문태준 시인 등이 대표적인 불자 시인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꼭 불자 시인들만이 시 안에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2006 소월문학상 특별대상 수상자인 유안진 교수(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는 ‘불상(佛像)에 갇힌 세월 천년 넘어 더 넘어, 무존재로 존재할 수 없어 탄식하던 나를 가둬놓고 너희는 득도해탈하여 자유로웠는지 몰라도, 갇힌 나는 갇힌 득도 해탈은 이목구비 가까스로 놓아보낸 몸뚱아리뿐, 나의 참 해탈은 모습 없이 존재하는 것(갇힌 자의 자유, 울음 中에서)”이라며 진정한 해탈의 모습을 영롱한 시어로 얽어냈다.

정호승 시인 역시 최근 발표한 시선집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에서 간결하고 정제된 불교적 시어로 독자들의 가슴을 파고든다. 정호승 시인은 ‘눈부처’ ‘선암사’ ‘가시’ ‘강물을 따라가며 울다’ 등에서 불교의 정서, 해탈의 심상을 시로 승화시켰다.

이외에도 필생의 업(業)인 ‘시’를 ‘내 발자국에 음각되는 불립문자’라고 말하는 임영조 시인, ‘화두의 생산자’라 불리는 정진규 시인, ‘동백을 운주사 와불처럼 부처의 현신으로 표현한’ 송찬호 시인, ‘실재와 환상의 경계를 성찰하며 불교로 경도된’ 이성복 시인 등이 불교에의 이끌림을 시로 읊조리고 있다.

□ 그들의 작품세계

최근 활발한 시작을 펼쳐보이는 시인은 지난 8월 다섯 번째 시집 <미소는, 어디로 가시려는가>를 낸 장석남 시인과 동서문학상 소월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문태준 시인이다.

장석남 시인의 시집 <미소는,…>은 나온 지 한 달도 안돼 교보문고 시 부문 베스트셀러 5위, 영풍문고 9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본인이 스스로 인식하기 이전에 오거나 가거나 미소가 가듯이, 의식하기 이전의 가고 오는 그런 것들을 이번 시집에서 담고 싶었다”는 장 시인은 “제목부터 불교적이고 선문답을 많이 즐겨서 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맨발> 등 두 권의 시집을 낸 문태준 시인(불교방송 PD)은 최근 미당문학상 후보에 오르면서 주가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그의 시 ‘가재미’는 지난해 시인 평론가 120명이 뽑은 ‘2004 가장 좋은 시’로 선정되는 등 평단과 독자의 호응이 대단하다. 또한 문씨는 대학가에서 가장 많이 러브콜을 받는 인기 시인 중의 한명이기도 하다.

“<경허집> <한암집> 등 큰스님들의 어록에서 감화 받은 부분이 많아 불교적 시상이 시 속에 많이 녹아 있는 것 같다”는 문 시인은 “요즘 불교적인 사유 조각들을 더 많이 시어로 꿰고 있다”고 근황을 귀띔한다.

□ 신춘문예도 ‘불교’ 열풍

최근 각종 수상작들을 살펴봐도 불교색이 강하다. 2006 제20회 소월시문학상 대상 수상자 박주택 교수(경희대 국문과)는 ‘한 올 연기는/전생을 감아올리다’(독신자들 中에서)라고 뿌연 연기 묘사를 통해 윤회를 그리고 있다. 우수상 수상자 조용미씨도 지율스님을 시제(詩題)로 삼아 ‘도롱뇽 수를 놓다’를 썼는가 하면 그의 시 ‘바람의 행로’에서는 ‘삶의 미망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반드시 팔만의 장경과 일천칠백의 선의 공안이/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선불교 사상인 불립문자(不立文字)를 표현하기도 했다.

2005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김승해씨는 ‘소백산엔 사과가 많다’ ‘거조암 가는 길’ 등에서 풍경 운판 목어 등 불교적인 키워드를 선택해 현대 사회의 군상들을 풀어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조부문은 2년 연속 불교 소재의 시조가 뽑히기도 했다. 장창영씨가 ‘잘생긴 배롱나무’로 2005년에, 이교상씨는 ‘하늘꽃 내리는 소리’로 2004년 수상자가 됐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오현 스님 고은 신경림 오세영 등 대표 불자 시인

장석남 시인의 ‘미소는, …’ 베스트셀러에 올라

왜 지금 ‘불교’ 시인가

“禪이 주는 명상 · 사색의 필요성 절실”
“삼매 · 몰입의 경지 수행 생활과 공통”

현대는 과학 · 물질 · 자본 만능시대이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기계화 물질화 자동화의 물결 속에 깊은 내면의 성찰과 자유로움을 잃고 있다. 여기에 대처하는 대안의 하나로 불교적 명상의 소중함과 정신의 자유를 갈망하는 현상이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평론가 김재홍 교수(경희대, 만해학술원장)는 “현대시의 중요한 시적 경향이 상당부분 불교적 성향 또는 선시적 경향으로 선회하거나 그런 지향성을 뚜렷이 나타내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선이 주는 명상과 종교적인 사색의 필요성이 어느 시대보다 절실한 만큼 명상과 사색을 통한 정신적 구원에 목말라 있다”고 불교시가 범람하는 현상적 이유를 설명한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염무웅 교수(영남대)는 불교가 시에 녹아드는 이유를 시인들이 시를 통해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깨달음의 길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에서 찾는다.

“시를 쓰는 목적이 내면의 진실 추구인데 제대로 된 시를 쓰려다 보면 불교적 깨달음의 길로 자신도 모르게 들어 간다”는 염 교수는 “삼매와 몰입의 경지 속으로 빠져드는 수행 생활과 시작을 펼치는 일은 공통점이 많다”며 이런 점에서 시인과 불교는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삶을 풀어내는 비밀이 불교에 있기 때문에 시인들이 불교적인 사유를 하는 것”이라는 장석남 시인은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현대사회가 찾는 탈출구가 과학적인 불교로 귀착되고 있다”고 인기 원인을 분석한다.

불교적 사상이 시 정신의 대안으로 선택되고 있다고 지적한 문태준 시인도 “불교적 사유를 잉태한 시들은 우주의 근원적 존재에 대해서도 보다 깊고 넓게 들어 갈 수 있다”고 말한다. 문 시인은 “부처님 법은 사부대중들의 실질적인 고민으로 꽉 차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구체적으로 답해주기 때문에 시 언어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불교시 열풍 이유를 제시한다.

불교천착 시인계보

초창기 최남선 등이 현대시에 접목
80년대 이후 선적 취향 드러내

김재홍 교수의 <한국현대시의 사적 탐구>에 의하면 현대시의 불교색 계보는 신문학 초창기 최남선 이광수에서 비롯된다.

최남선은 <백팔번뇌>라는 시조집을 통해 불교적인 개념을 현대시에 끌어들였다고 평가받는다. 이후 홍사용 오상순 박종화 등이 불교적 세계관과 색채를 진하게 드러냈다. 1920년대 최대의 불교시인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만해 한용운이다.

이어 1930년대는 개성시대다. 불교적인 세계관과 감수성을 한국적인 한의 미학으로 합일시킨 서정주, 대승적인 불교사상을 사회 역사적으로 확대해 실천불교의 실마리를 제공한 조지훈 등이 활동했다.

1950년대로 들어서면 조병화 이원섭 이설주 김관식 이형기 천상병 장호 박희진 박재삼 고은 등이 불교적인 세계관과 선적인 감수성을 시어로 표현했다.

1960~70년대에는 정진규 허영자 임보 박제천 김초혜 홍희표 박정만 홍신선 문정희 오세영 임영조 유자효 국효문 등이 활동했다.

이 시기에 주목할 부분은 토속적 정한의 세계 또는 순수서정의 세계를 추구해온 유수한 시인들이 불교적 성취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1980년대 불교 시문학의 중요한 성과는 고은의 <만인보>와 김지하의 연작시집 <애린>으로 귀결된다.

이와함께 오랫동안 민족문학 계열의 시를 썼던 조태일 이시영 박노해 등이 불교적인 감수성, 선적 초월과 명상의 세계를 선보였다.

1990년대에는 중진시인 황동규, 정현종, 조정권, 최승호, 최동호, 황지우 등이 선적 취향을 더 강하게 드러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9월 22일 출발(모집중)
티벳 성지 순례 8일
여행경비 : ₩ 1,890,000원
(중국 비자비, 가이드, 기사팁 포함)
왕자 싯다르타에서 깨달은자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묘한 묘음에 밀교 티벳 불교 성지순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유람선으로 출발하는
중국 산동성 성지 순례
매주 수요일 (위동페리 이용)
여행경비 : ₩ 490,000원 6박 7일
(비자비 등 다 포함)
장보고선사의 적산 법화원, 태산, 곡부 제남 천불산(천불동), 영암사 청도 장산사
(10명이상 출발 가능)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8월27일 '계율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을 주제로 열린 네번째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에서 법주 지운 스님은 "최근 음식에 대한 계율을 가벼이 여기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 후 "음식을 섭취한 몸 기운에 의해 마음이 형성되므로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음식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율 안 지켜도 깨치면 된다는 식의 그릇된 풍토 사라져야

동화사 - 현대불교 공동 주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 대법회 ④

주제 : 계율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 (8월 27일)

법주 : 지운 스님 (동화사 강주)

계율 잘 지키면 선정 일어나고 깨달음으로 이어져

음식이 중요…승가 식생활 전통으로 환원했으면

최근 일부 수행자들 사이에 계율과 수행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계율을 수행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계율을 파하는 것이 수행인 양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계율을 가벼이 여겨 음식을 전혀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고기와 오신채 그리고 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고기를 드셨다' '그런 것을 먹지 말라는 말씀은 어느 경전에도 없다' 등등의 말로 계를 지키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재 음식에 대한 계율을 지키지 않는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모든 계율이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 법회에서는 음식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과 육체와 마음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계율과 수행의 상관관계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는 곧 승가의 청정함을 천명하는 것이며 우리 수행자들이 다 함께 계율을 지킴으로써 더 많은 깨달은 이들과 선지식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율받아 지녀야만 스님 인정

우선 계율이 제정된 목적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계(戒)는 금계(禁戒)로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잘못을 막고 악을 그치기 위해 개인이 지켜야할 수행적 덕목이지만, 승가의 차원에서 볼 때 계는 곧 율(律)이 됩니다. 율이란 법률로서, 승가를 수호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계에 어긋난다면 경중(輕重)에 따라 처벌로써 다스리고, 순응하면 편안하게 하여 승가를 수호,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한 열 가지 뜻을 <사분율>에서 살펴보면 '승가에로 거두어 지게 한다(攝取於僧)'는 것은 출가 조건이 계율이며, 계율을 받아 지녀야만 승려로서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이어 '승가를 기쁘게 하고(令僧歡喜)' '승가를 안락하게 한다(令僧安樂)'는 것은 승가의 화합을 뜻하는 것으로, 화합은 또한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이를 믿게 하고(令未信者信)' '이미 믿음이 있는 이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고(已信者令增長)' '길들이기 어려운 이를 잘 길들이게 하고(難調者令調順)' '부끄러운 줄 알고 뉘우치는 이를 안락하게 하고(慙愧者得安樂)' '현재의 유루를 끊게 하고(斷現在有漏)' '미래의 유루를 끊게 한다(斷未來有漏)'는 것은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수행은 발심과 믿음에서 출발

수행의 첫걸음은 발심과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에 의해 발심이 지속되는 것이며 이 믿음은 선악의 인과의 이치를 잘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율에 의해 악업을 막고 선을 증장케 하고, 생사고(生死苦)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보리심(發菩提心)하면 계율로써 믿음이 일어나고 증장되어 수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법이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려는 것이다(正法得久住)'는 바른 법이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것이 곧 계율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계율을 부정한다면 승속(僧俗)의 경계선이 사라져 세속화를 가져오고, 화합을 깨뜨려 종단을 불안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수행자가 수행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지지 않는 보살계, 비구계를 주고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실적으로 계율을 지킬 수 없지 않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계율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현실'에 두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한 근거가 현실이 아니라 '법(法)'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은 변화하는 생멸(生滅)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율은 불생멸의 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계율을 현실에 맞추는 것은 그 계율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계율을 현시대 상황에 비추어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계율은 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도 통용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계율과 깨달음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戒) 없이 정(定)과 혜(慧)만으로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강변할 수 있으나, 계정혜 삼학(三學)은 분리되지 않는 한 몸입니다. 마치 그릇이라는 계(戒)가 금이 가거나 깨져 있다면 정(定)이라는 물이 새거나 고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라는 그릇이 새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정이라는 물도 움직이지 않아 고요한 상태가 되어 물이 맑아지고 수면에 상(相)이 비추거나 밀바닥을 볼 수 있게 되는 혜(慧)라는 깨달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수행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계정혜 삼학의 근본적인 수행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는 수행자를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근본 맥(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율을 잘못된 것으로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자가 계정혜 삼학보다 더 근본적인 방편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하물며 수행자로서 세속에서처럼 술, 고기, 오신채 등을 먹으면서 수행한다면 차라리 세속에 나가서 세속의 이치에 맞게 살며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보살계와 비구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수행자가 절실히 요청되는 현시점에 수행과 정각(正覺)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계율을 포기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고 수행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계율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율을 잘 지켜나가면 선정(禪定)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불유교경(佛遺敎經)>에서는 "계를 의지하면 모든 선정을 얻어 고를 없애고 지혜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구들은 마땅히 깨끗한 계를 가져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는 번뇌, 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없애버립니다. 아무리 수행을 잘 한다고 하더라고 계율을 파한다면 선정을 이룰 수 없고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 번뇌·망상 일으키는 조건 없애

그렇다면 왜 선정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깨달음이 선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종밀 선사는 <선원제전집도서(禪原諸詮集都序)>에서 '선정이란 행(行)은 가장 신묘(神妙)하여 성품 위에 무루지혜(無漏智慧)와 일체의 신묘한 작용 및 온갖 행과 공덕(功德)을 드러낼 수 있으며, 나아가 신통광명 모두가 이 선정에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해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행 중에 나타나는 마장(魔障)과 계율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장이 일어나는 것 또한 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장이 생기는 것이 한마음을 깨치지 못하게 하는 마(摩)의 현상이며, 실재하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라는 자각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마의 현상들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마장은 지관(止觀) 수행만이 아니라 화두참구할 때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장이 생기는 것일까요? 수행 중에 '앎아 공부하는 중에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 것은 살생을 했거나 고기를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며 '혹은 미남 미녀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 것은 과거 애욕의 습이나 음욕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장이 생기는 이유가 모두 계율과 관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근(善根)과 계율은 온갖 마의 현상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러기에 원효 스님은 '출가한 사람이라면 계율을 외우고 재가자라면 <보살계본>을 외워야 한다. 삼귀의와 5계 등을 외우면 귀신들이 바로 물러나거나 슬슬 기어 도망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선근의 힘이 굳세거나 계율을 잘 지키는 수행자라면 마장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은 오직 마음뿐임을 자각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만 해도 이를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깨달음은 선정을 통해 일어나고, 선정은 계율에서 나온다면 계율의 역할을 분명합니다. 선정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계율로 묶어둠으로써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율은 모든 수행덕목의 밑받침이 됩니다. 수행자의 과거 악습과 악업의 영향은 순간적으로 퇴굴심을 내고 게으른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계율입니다. 이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관찰하면 5대 현상인 지(地)수(水) 화(火) 풍(風) 공(空)으로 이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대가 육체를 이루고 있지만 또한 무지, 분노, 자만, 탐욕, 질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됨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육체의 기운에 의해 마음이 형성됨을 의미하며 또한 마음이 육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신채, 음욕과 성냄 형성

화두를 참구하는 마음은 의식입니다. 의식은 육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행의 주체가 의식이며 의식이 육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화두참구 중에 몸이 피곤하면 졸음이 오며 몸의 기운이 왕성하면 오히려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밖의 경계에 끄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끄달림을 최소화하기 위

법회 동영상 중계 hompy.buddhapia.com/homepy/morals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놀 수 있다.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 등록
ISO 9001:2000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오행쑥뜸기, 음양 쑥뜸기, 오행좌훈기 등을 찜질방 및 사우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독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문의전화 02)521-4453

www.moxa4u.com 오행쑥뜸·좌훈기/음양쑥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I산업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1.2kg

山寺 靑미래 조청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1.2kg

山寺 기혈량 조청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1.2kg

山寺 약도라지 조청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1.2kg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조청원

해 계율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식에 관한 계율이 더욱 중요합니다. 고기, 오신채 등이 몸의 기운을 성하게 하여 음욕심을 일으키니 수행에 많은 장애가 됩니다.

<능엄경>에서는 '오신채를 익혀 먹으면 음란한 마음을 발생시키고, 날 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오신채가 음란한 마음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오신채가 성욕의 불의 요소를 생성,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날 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더해진다는 것은 오신채가 성냄의 물의 요소를 활성화시킴을 말합니다. 이는 오신채의 영향이 불과 물의 요소를 만들고 불과 물의 기운은 음욕과 성냄을 형성시키는데, 이 마음이 삼마지(선정)를 닦더라도 보살과 하늘과 신선과 시방의 선신들이 와서 지키고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여 선정을 얻기 힘듦을 설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의식에 음식이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능엄경>에서는 고기나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똑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살생할 마음을 끊지 않은 것입니다. 즉 고기를 먹는 습관 때문에 살생을 해서라도 고기를 취할 마음을 일으키고 실제로 살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기는 분노의 물 요소를 생성시키고 분노의 힘을 형성하며, 술을 마시면 지혜종자가 끊어지고 무지를 일으키며 어리석게 되고 우둔하게 되는 마음이 형성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능가경>에서는 '고기 맛을 버리는 자는 정법의 말을 듣고, 보살지위에서 여실히 수행하여 속히 아뇩다라샴막샴보리를 얻을 것이다. … 또한 고기 먹는 사람은 큰 자비의 종자를 끊나니, 어찌 마땅히 이와 같은 큰 이익을 얻으리오'라고 해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비심을 근본으로 해야 함을 설하고 있습니다.

자비심은 곧 중생과의 상호소통으로 무아(無我), 공(空)이 그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는 것은 중생구제의 원에 역행하는 것으로 발보리심하여 깨치고자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발보리심 자체는 중생구제가 원(願)이기 때문입니다. 발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중생과의 상호소통 즉,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심이 없기 때문이며 그러한 원이 없으니 수행 또한 되지 않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수행하면 계율 저절로 지켜져

수행의 목적은 바로 '일어나는 생각(念)'을 꿰뚫어 보고 그 실체가 공함을 깨닫는데 있습니다. 계율이 강조하는 것은 악업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수행을 하게 되면 계율이 강조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가에서 깨닫게 되면 계정혜 삼학이 저절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깨친 이의 삶은 계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법회에 참가한 재가자들이 법문 내용을 메모하며 경청하고 있다.

여기서 수행에 의해 계율이 저절로 지켜진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깨닫는데 있어서 계율을 파해도 된다면 어떻게 계율이 저절로 지켜지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악업을 일으키는 행위는 정화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계를 파하는 행위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를 파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계율과 수행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음식을 섭취한 몸 기운에 의해 마음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마음이 만약 깨달음에 장애를 준다면 그 음식은 마땅히 삼가야 함도 알게 됐습니다.

음식에 관한 계율이라도 잘 지킬 수 있다면 선정을 이루고 그 선정에 의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현재 만연되다시피 한 계율에 어긋나는 승가의 식생활을 전통 승가의 식생활로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깨치기만 하면 된다는 일부의 공공연한 그릇된 풍토도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승가의 청정은 승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와 인류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승가 본연의 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승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히 오신채와 술, 고기를 먹지 않는 풍토가 정착될 때보다 많은 선지식이 생길 것입니다.

정리=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지운 스님은 1979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82년 법주사 강원, 86년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와 교재편찬위원을 역임했다.

93년부터 2002년까지 송광사 강원 강주를 지냈다. 92년 운성 스님으로부터 강맥(講脈)을, 2004년 성우 스님으로부터 계맥(戒脈)을 이었다. 현재 조계종 단일 계단 교수사, 동화사 강주를 맡고 있다.

저서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 <찻잔 속에 달이 뜨네> <뿌리 없는 나무에 핀 꽃>(논문집) 역서에 <스승이 제자에게 보내는 글> 등이 있다.

신도들이여, 스님에게 고기 · 술 권하지 말라

지운 스님의 제안

이 자리에서 승가가 계율을 파하게 되는 데는 재가신도들의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재가자들이 승가의 계율을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승가가 없는 곳에서는 불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승가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바로 계율로 유지됩니다. 그런데도 승가를 외호해야 할 재가자들 중 일부는 스님과 함께 앉아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습니다.

재가신자의 계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승가의 청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가자들은 절에서 오신채를 먹자고 주장하거나 스님들이 만행할 때 몸보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기나 술을 공양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혹여 스님들이 술과 고기를 사달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버려야 합니다.

절에서 오신채를 먹는다고 하면 신도들이 앞장서 항의해야 합니다.

오늘 법회에서 먹는 것 하나도 깨달음과 크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으니, 선지식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면 계율에 대한 재가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승가의 외호집단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스님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재가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가자들도 출가자와 마찬가지로 포살을 해야 합니다. 포살을 함으로써 자신이 알게 모르게 계를 파한 것이나 죄를 지은 것을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논 찬



소승불교 전통따라 뭐든 먹어도 된다?

일진 스님
(운문사 강원 학감 · 단일계단 니 갈마위원)

질문 1: 스님께서는 계율의 제정 근거가 현실이 아니라 법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이 현실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운 스님: 계율이 현실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생멸(生滅)의 속성을 지닌 현실에 맞춰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율이란 진리, 즉 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계율을 현실에 맞추는 것은 그 계율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그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으로 계율을 현시대 상황에 맞춰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율이 법에 근거했다는 것은 주고받고 싸우는 현실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을 근거한 것이므로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도 통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2: 계율을 지키는 수행승을 오히려 승단 화합을 저해하는 인물로 몰아세우는 경향 등 계율에 얽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해지고 있는 포살은 좀 막연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운 스님: 남방에서는 포살이 30여분 정도 소요됩니다. 합장하고 계송을 외우고 나면 큰스님이 하루 있었던 일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포살은 작법참회(作法懺悔)로, 자신의 죄목을 들어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어느 스님에게나 자신의 잘못을 고하는 가벼운 참회법도 있고, 20여 명의 승가 앞에서 참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방이나 티베트 불교나, 한국불교에서의 포살은 대동소이합니다.

재가자들 역시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한다'고 할 정도로 계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받고, 계를 받은 후에는 포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질문 3: 스님께서는 음식에 관한 계율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불교 안에서의 공양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님들은 어쩔 수 없이 절 밖에서도 공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양문제를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운 스님: 남방은 소승불교이고 북방은 대승불교라는 차이를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남방불교에서도 자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양으로서 받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나라도 공양을 합니다. 하지만 소승불교의 전통에 따라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대승불교는 아라한의 경지를 지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부처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기로 원을 세운 북방불교의 전통에서 중생의 하나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생활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 고기를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포살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먹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적 재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는지

박병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질문 1: 스님께서는 승가의 계율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계와 율을 구분지어 살폈습니다. 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켜야 할 수행적 덕목이지만, 율은 승가의 차원에서 지켜야 하는 법률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와 율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계는 자율적 덕으로, 율은 타율적 덕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는지요?

지운 스님: 계와 율을 자율적 덕성과 타율적 덕성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타당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윤리는 무엇은 근거로 할까요? 바로 악인악과(惡因惡果) 선인선과(善因善果)입니다. 철저하게 인과를 바탕으로 계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고 있다면 누가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불교에서의 윤리는 상당히 엄격한 반면에 포살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융통성이 있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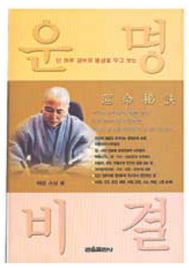
질문 2: 엄격한 계율 준수를 강조하신 스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계율의 현대적 재해석 및 새로운 제정의 가능성에 관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효 스님께서도 <보살계본지범요기>에서 계율 준수의 핵심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적 상황과 온전히 일치하지 않는 계율에 대해서는 현대적 재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를 들어 비구계와 비구니계의 차이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계율도 있지 않습니까? 계율의 조문 그 자체에 매달리기보다 제정 당시의 상황과 정신을 고려해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운 스님: 대승불교는 동기를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계율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모기를 잡는 사람에도 여러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정없이 모기를 잡는 사람도 있고, 모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말려서 안 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모기를 잡으려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자신이 받게 됩니다. 이처럼 동기에 맞는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대승불교의 계율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비구 비구니계의 차이점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비구니계가 많은 이유는 남녀의 생리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계는 깨달을 수 있는 사다리에 불과합니다. 깨달음의 길로 가는 방법을 논의해야지, 남자 여자의 문제로 환원되어서는 안됩니다. 남녀는 업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그 업을 소멸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 바로 계율이라는 것입니다. 계율을 세속적인 입장이 아닌 수행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운명비결 저자 해광스님 직강 (개인교수)

초칠일에 눈을 떠라!



- 천장비기(하늘이 숨기고 땅이 감추는)의 운명학
- 명리와 육효의 조화와 완벽한 해석
- 전문가를 위한 운명비결 전수

단, 명리, 주역 등 일체의 역학을 설 배워 그 한계를 스스로 벗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학문에 쉬 범접치 마시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 없이 요구해 온 운명비결 전수 희망자들을 위해 오랜 숙고 하에 운명비결을 전수하기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교수 안내를 합니다.

- 수강신청 : 수강접수 및 등록
- 수강자격 : 스님, 포교사, 법사, 운명상담소 운영자.
- 문의전화 : 010-6252-5247 (오후 1시-7시)
- 강의일자 조정 및 통보 (등록 후 일정 조정)
※시작에서 수료까지 6박 7일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 노력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02)733-6141 / 팩스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ungjongsa.co.kr
- 대표 : 범산 원광식 (인간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26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기 2549년
9월 7일 수요일 제 542 호

게시판



인드라망 불교강좌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9월 29일과 10월 6, 13, 20일 서울 양재동 교육센터에서 불교강좌를 진행한다. 교육센터 마련 후 첫 번째로 마련된 이번 강좌는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각묵 스님이 '부처님의 수행법'이란 주제로 강연할 예정.

또 12월 겨울강좌에서는 상임대표 도법 스님을 강사로 한 '부처님의 생애' 강연도 펼쳐진다(사진). (02)576-1886

전통문화체험 서울 법련사는 9월 4일~12월 18일 농촌지역의 문화적 소외계층인 노인 및 어린이, 소년소녀 가장가족 등을 대상으로 불교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기초지식과 의미를 습득하는 전통문화체험을 실시한다. 명절을 제외한 매주 일요일 10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 (02)733-5367

선우회 30주년 기념 바자회 수원 봉녕사는 9월 7~8일 경내에서 선우회 30주년 기념 바자회를 연다. 스님들이 직접 만든 생활필수품과 밑반찬, 한지공예로 만든 소품과 명주 수의도 선보일 예정이다. 수익금은 장학기금과 봉녕사 불사금으로 쓰여진다. (031)256-4127

어르신 신륵사 기행 서울 옥수종합복지관은 9월 9일 어르신들을 모시고 신륵사와 목아박물관, 세종대왕릉 등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전통문화체험 나들이를 진행한다. (02)2282-1100

20면 상식 퍼즐 정답

대	승	경			만	
무		행	정	고	시	
량			관		지	
수					탄	허
경	신		기			심
	기	계	체	조		탄
벼	루			공	청	회



민화 가운데 가장 많은 화조도

소박하나 도발적인

서울역사박물관 '반갑다! 우리민화' 展
10월 3일까지 日 소장작품 등 120여점 선보여

해학과 파격, 토속 등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전통 그림 '민화'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김우림)은 9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반갑다! 우리 민화'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본민예관 등 일본소재 5개 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민화 120여점이 함께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해방 전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가 수집해 조선 민화 수집 붐을 불러일으켰던 명작들로 알려지고 있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조선 민화의 예술적 가치를 인식하고 처음으로 미술 평론의 대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화려한 자수십장생도병풍과 근대 추상화를 연상시키는 화조도8폭, 번쩍이는 눈동자를 네 개나 가지고 있는 까치호랑이그림, 궁중화풍을 연상시키는 책가도, 충(忠), 예(禮), 의(義) 등의 글자를 그린 문자도 등이 있다.

또 민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궁중회화 작품으로 운현궁에 보관되어 오던 괴석모란도8폭 병풍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02)724-0145

● **화조도:** 민화 가운데 작품이 가장 많으며 꽃과 함께 노는 한 쌍의 새를 소재로 한 그림이 많다. 화조도는 매화 · 동백 · 진달래 · 개나리 · 버드나무 등과 봉황 · 원앙 · 공작 · 학 · 제비 · 까치 등을 물이나 바위와 함께 그렸다. 이 밖에도 작약 · 월계 · 모란 · 옥잠화 · 수선 · 난초에 나비나 메뚜기 · 꿀벌 등을 그린 초충도(草蟲圖)와 토끼 · 말 · 소 · 호랑이 등을 산수 속에 표현한 영모도가 있다. 이 소재들은 단독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많으며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꽃도 단독으로 그려 혼례식의 대례병(大禮屛)로 많이 사용했다.

● **호작도:** 소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까치와 그 밑에서 이를 바라보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그림이다. 수호신적인 역할을 했던 사신도(四神圖)의 한 변형. 호작도는 잡귀의 침범이나 액을 막는 목적으로 그려졌다.

● **십장생도:** 장수(長壽)의 상징인 거북 · 소나무 · 달 · 해 · 사슴 · 학 · 돌 · 물 · 구름 · 불로초를 한 화면에 배치하여 그린 그림이다. 세화(歲畵)로 그려지기도 하고, 회갑잔치를 장식하는 수연병(壽筵屛)으로 쓰이기도 한다.

● **문자도:** 글자의 의미와 관계가 있는 고사 등의 내용을 자획(字畵) 속에 그려 넣어 서체(書體)를 구성하는 그림. 수(壽) 또는 복(福)자를 도식화한 수복도와 효(孝) · 제(悌) · 충(忠) · 신(信) · 예(禮) · 의(儀) · 염(廉) · 치(恥)를 도식화한 효제도(孝悌圖)는 교화용으로 제작되어 주로 어린이방을 장식하였다고 한다.

● **책가도:** 책거리라고도 하는데, 책을 중심으로 한 문방사우도(文房四友圖)나 문방구도에서 온 것이다. 책뿐만 아니라 책과 관계없는 술잔 · 바둑판 · 담뱃대 · 부채 · 항아리는 물론이고 여자치마 · 꽃신 · 족두리까지 그려 넣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책가도



호작도



'예'를 형상화한 문자도



십장생도 10폭 병풍

전시

추상과 만난 화려한 전통미

엄옥경 개인전 '향기 속으로'



아크릴 재료로 선명한 색채를 그려낸 작품. '향기 속으로-오리 연밥. 오리 버들'.

전통미에 현대적 추상성을 가미한 작품으로 활동 해온 엄옥경씨가 다섯 번째 전시회를 9월 7~13일 서울 관훈동 갤러리 수용화에서 개최한다.

엄옥경씨가 그동안 지속해 왔던 작업 '전통적 향기 속으로'의 연장선상에서 전통미를 탐구한 결과가 이번 전시회에 오롯이 드러난다. 자수, 민화문양 등 민족의 생활 사상 문화로 자리잡은 상징적 표현양식과 복을 비는 기원의 의미가 깃든 주제들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평면의 아크릴 재료와 금속에 요철을 만드는 스탬핑, 전사, 드로잉 기법이 가미된 이번 작품전은 염원과 신앙, 철학적 관조가 담긴 한국 전통미의 현대적 변용을 보여준다. 일회성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내면에 흐르는 미감에 대한 사색과 정체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작품 마다 물씬 풍긴다.

'향기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작품들은 당의, 활옷, 연꽃 오리연밥 오리버들, 조각보 등이다. (02)730-5077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공연

니르바나 필하모닉 후원 음악회

9월 10일 범어사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후원회(회장 박금표)는 9월 10일 저녁 7시 부산 범어사에서 '제 4회 작은 음악회'를 연다. 이에 앞서 오후 3시부터는 무비 스님의 <법화경> 강의 회향법회가 봉행된다.

저녁 7시부터 열리는 음악회는 홍석택, 권종대씨의 클라리넷 이중주로 시작된다. 이어 안산 천수사 주지 지허 스님이 찬불가인 '백팔번뇌'와 '야망'을, 강혜윤 학생(고대 문창과 2년)이 '에브리 하트'를 선사한다. 또한 스님과 강씨가 듀엣곡 '불교란 무엇인가'도 함께 부를 예정이다. 남성 3인조그룹 '순야타'가 <반야심경>을 랩으로 편성한 '반야심경'을 음성 공양한다. 2부에서는 니르바나 오케스트라가 가곡 '청산에 살리라'와 찬불가를 연주한다. (019)512-8004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5일 23:00 뮤직 N 유영석입니다
6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7일 21:05 영화음악실
8일 07:05 아침저널
9일 09:05 행복한 미소
10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5일 21:10 TV법회
6일 02:40 불교TV스페셜
7일 15:50 열린마당
8일 17:30 산중대담
9일 20:30 명상음악산책
10일 07:30 조선불교탄압사
11일 20:00 또 다른 수행 '사경'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9월 9일 20:05~21: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현각 스님의 살아있는 금강경(9월 10일 04:00~05:00) 불교경전을 대표하는 <금강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 준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백의관음도 축광액자



백의관음도 축광액자는 모든 중생의 애환을 대자대비로 거두어 주고 중생의 근기에 맞게 32응신으로 화현하여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을 형상화한 것. 여기서 '축광'은 기존 야광이 장시간 빛을 받아 단시간 빛을 내보내고 내구성이 취약한 점 등을 보완한 획기적인 발명품.

축광액자는 연녹색의 은은한 빛으로 실내장식을 위한 선물용으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8시간이상 신비스런 빛을 발산한다. 크기는 180mm x 360mm, 90mm x 180mm 등이 있다. 가격은 1만 5000원.

이영화 어때요?

강력계 검사 며느리 조폭가문 입성기

가문의 위기-가문의 영광2 감독: 정용기 출연: 신현준, 김원희, 김수미 상영시간: 110분 등급: 15세 이상



'무대포' '무모함' '무식'. 이렇듯 영화 '가문의 위기'는 삼무(三無)로 똘똘 뭉쳐 영화 팬들의 웃음 코드와 접속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웃음 핵폭탄의 기폭제는 김수미, 김원희 등 초특급 코믹 배우들의 포진과 그 누구도 박장대소하지 않을 수 없는 황당한 시추에이션의 설정.

특히 절대 카리스마 홍덕자(김수미 분) 여사의 진지하고 무게감 넘치는 코믹 파워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내 최고의 명문가(?) 조폭 백호파의 두목 홍덕자 여사. 그녀가 이끄는 조직은 날로 승승장구하고 슬하의 세 아들 또한 나름대로 조직의 기둥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삼형제는 홍여사의 닥달과 구박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바로 가문의 체질개선을 위해 '엘리트 며느리' 와의 결혼을 주문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홍여사는 세 아들에게 자신의 환갑잔치 때까지 무조건 큰 며느리 감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며느리 감 물색에 나선 큰 아들. 드디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몸짱' '얼굴짱' '학벌짱' 며느리 감을 발견하고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 청순가련형 여인인줄만 알았던 그녀의 직업이 조폭 때려잡는 강력계 검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들의 인연은 좌충우돌 꼬여만 가는데….

장차 남편과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권총을 겨누고 수갑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검사의 직분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조폭의 길을 걸을 것인가? 감독은 이런 선택과 판단의 몫을 코믹적 여운이 남는 기법으로 관객들에게 되묻는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내 마음의 법당 (상)

장진익 (전북 부안군 계화면)

요즘 뉴스를 보면 군대소식으로 난리다. 전방에서 총기 탈취사건이다 총기난사 사건이다 뭐다 해서 시끄럽다.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나는 어김없이 과거 군 생활을 떠올린다.

작은 시골마을의 3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자랐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나에게는 힘든 논일과 밭일 그리고 바닷일을 시키지 않았다.

또래에 비해 곱게 자란 나는 대학에 와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찾아 다녔다.

그런 이유로 언젠가는 군대라는 곳을 다녀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시기를 잘 모르고 지나쳐버렸다. 결국 2001년 추운 겨울, 스물다섯이란 적지 않은 나이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 해 논산훈련소의 겨울은 내 인생에서 어느 때보다도 추웠다. 늦게 입대해서 동기들에 비해 나이가 많았던 나는 나보다 어린 전우들과 반말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그렇게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로 전입하게 되었을 때, 나의 절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나이 어린 선임들의 다그침이 나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대에서도 나이 많은 나의 행동은 항상 눈엣가시였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선임들은 "나이 먹고 군대 오니 힘드냐? 그럼 군대 빨리 오지?" 라고 다그쳤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왔던 나에게 군대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힘에 겨웠다.

사람의 기가 약하면 귀신이 자주 붙는다고 하든가. 그 즈음 나는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이등병 생활 6개월 동안 밤마다 가위에 눌렸다. 행정병이란 보직 자체가 잠을 많이 잘 수 없는 직책인데다가 밤새 꾸는 악몽은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부족한 수면시간으로 인해 나의 눈은 항상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러한 나의 눈을 바라보는 선임들의 꾸중은 더욱 심해졌다.

밤새 악몽에 시달리며 가위에 눌리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메마른 정신세계를 어루만져줄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던 중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던 서재덕 병장이 내게 손을 내밀어 왔다.

일과가 끝날 무렵 그는 내가 근무하는 중대 행정반으로 와 시간 좀 내달라고 했다. 나는 내심 겁에 질렸다. '아! 또 집합이구나. 이번엔 내가 또 뭘 잘못했을까?'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서 병장을 따라 갔다.

뒤늦은 군생활 적응 못해 밤마다 고생
선임병 소개로 군법당 다니며 안정 찾아
열성적 신앙생활에 군종병으로 활동

그런데 그는 평소와는 달리 부드러운 말로 내게 말을 건냈다. "너 많이 힘들지? 다 안다." 이렇게 말한 그는 담배 한 개피를 건네며 자신의 가정사와 군생활을 나에게 말해주었다.

그는 중학교 때 모두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 둘을 책임지고 키우다 나처럼 늦게 군에 입대했다고 한다. 서 병장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우리 중대장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것 또한 나에겐 충격이었다. 그의 나이는 31살이었으니 말이다.

서 병장의 위로와 격려는 나의 군 생활을 180도 바꾸어 놓았다. "내 나이가 25살이니 조금은 나이대접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입대를 했고, 그동안 부모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았던 나약한 생활들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내게 일요일마다 중대 내에 있는 절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다.

독실한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대학시절 대불련 활동을 하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마침 그 당시 군대에서는 '1인 1 종교' 갖기 운동을 펼치며 일요일마다 신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석하기를 권했다.

이는 신앙생활을 통해 신병들의 군대 부적응을 막는 방편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서 병장과의 만남과 이 같은 부대 분위기는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후 일요일마다 자발적으로 불교 행사에 참여했다. 당시 나의 종교 활동은 무슨 특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계급장을 버리고 법우들과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냄새가 배어나오는 포근한 곳을 찾기 위해서였다.

불교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나의 군생활은 조금씩 변해갔다. 밤새 나의 단잠을 괴롭히던 악몽도 서서히 줄어들었다. 악몽이 완전히 사라질 때쯤 불교라는 종교는 나에게 오랜 친구 같고, 은인 같이 소중한 것으로 느껴지게 됐다.

생활에서는 늘 활기가 가득했고,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나이 많은 신병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행정병이란 직책도 호재로 작용했다. 선임들이 없을 때나 틈틈이 시간 날 때 마다 독송집이나 불교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신심을 돈독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짧지만 열성적이었던 나의 신앙생활은 일병 계급장을 단지 두 달 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중대의 군종병이 제대할 때가 됐는데 법사님과 군종병이 날 후임 군종병으로 차출하고 싶다고 상부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중대 군종병이 된 이후로 좀더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여러 장병들에게 불교적인 생활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노력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노력은 누굴 위해 보여주기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새벽예불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부터 매일 법당청소를 했다. 새벽 예불을 모시는 사람이라야 법사님과 나뿐이었지만 정갈한 마음으로 예불을 모시고 싶은 나의 발원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두 달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순간 나의 머리를 강하게 치고 가는 것이 있었다. 바로 서 병장이었다. 법당 생활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이제는 정신적 · 육체적 위안을 찾았기에 중대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전우들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이다.

나는 부랴부랴 중대 내무반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서병장의 관물대에는 그의 계급장과 군번 그리고 이름이 적힌 표식은 없었다. 그는 제대를 한 것이다. (계속)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snoop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고급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5. 10. 4 월 · 화 반(주 · 야간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승광불교전통미술원



- 불 상
- 탱 화
- 개 금
- 원 형 조 각
- 불 사 상 담
- 천불삼천불
- 불 교 용 품

귀의 삼보 하옵고....
대덕 큰 스님의 성원으로 불교미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라옵니다

전 화 02-491-5336, 02-494-7478
공 방 031-595-6557, 031-595-6558
휴대폰 011-226-5336
e-mail : 0112265336@nate.com
목우 손 동 술 합장

기적의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시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진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공정한 평가로 과도기 벗어나야

소설가 정동주씨에게 듣는 한국 찻그릇의 어제와 미래

〈우리시대 찻그릇은 무엇인가?〉 출간
역사·발달과정 조명… '도자문화' 전망



차문화 확산에 따라 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다기(茶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소설가 정동주씨는 〈우리시대 찻그릇은 무엇인가〉란 저서를 통해 우리 도자사를 살피고 도자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사진은 도자기 만들 흙을 반죽하는 모습. 사진제공=다른세상



신현철씨의 '작은 찻사발'

도예가 14인 한자리

불일미술관 9월7~17일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는 정동주씨가 〈우리시대 찻그릇은 무엇인가?〉에서 소개한 14명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다기 전시회 '한국의 찻그릇 흙에서 불까지'가 열린다.

출품 작가는 김갑순 김대희 김성철 김종훈 김지선 서영기 신현철 여상명 우동진 유태근 이일파 이정화 임만재 홍성선씨. 이들은 해방 이후 전통도예 2세대를 이끌고 있거나 전통도예와 현대도예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3세대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작가들로, 정씨는 이들의 작품세계를 통해 한국 찻그릇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자 한다.

전시는 9월 7~13일 찻사발 전, 14~20일 찻잔전, 21~27일 차도구전으로 나눠 각각 개최된다. (02)733-5322

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다기(茶器). 차 문화의 발전은 곧 다기의 발전과도 그 행보를 같이 해 왔다. 최근 차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찻그릇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차 문화 연구에 천착해 온 소설가 정동주씨는 최근 출간된 저서를 통해 "과연 우리시대의 찻그릇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조선시대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전통 도예는 단절되다시피 했고, 해방 이후 이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우리 도예문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우리시대 찻그릇은 무엇인가?〉는 바로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다. 정씨는 책에서 우리나라 도예문화의 역사와 그 속에서 찻그릇의 발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찻그릇이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정씨가 말하는 우리나라 찻그릇 역사의 흐름과 문제점은 무엇일까?

▷해방 후-전통도예 부활 위해 노력

해방 후 빠른 속도로 침체돼 가는 전통 도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1955년 한국조형문화연구소가 세워졌고, 56년에는 현대생활에 적합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한국미술연구소가 세워졌다. 이 두 곳은 60년대 한국 전통 도예를 개척한 핵심 인물을 배출하는 산파 역할을 했다.

또한 정부의 '전승 도예 정책'은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발굴했고, 물레를 잠시 떠났던 사람이나 새롭게 물레질을 배우려는 이들을 물레 앞으로 불러 모았다.

6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차 문화가 조금씩 싹터 찻그릇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1965년 일본과의 외교가 재개되자 우리 도예는 일본 차인들에 의해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된다.

▷1970년대-전승과 일본화의 공존 시기

1970년대는 한국 전통 도자사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시기임과 동시에 몇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남긴 시기이기도 하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학자들의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단절의 위기에 처했던 전통 도예의 중요성과 가치가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미의식이 일본화 돼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주요 소비자였던 일본인의 취향을 따르다 보니 그릇의 형태나 유약, 색채, 문양 등이 한국 전통 도자기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에서 멀어진 것이다.

특히 찻그릇에서 그 변화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생활도자기는 차인들에 의해 찻그릇으로 각광받았고, 일본상인들은 우리 사기장들에게 이러한 찻그릇을 생산할 것을 주문했다. 이렇게 주문 생산된 찻사발들은 철저하게 일본화된 것들이었다.

정씨는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 이루어졌어야 할 이 시기에 상업적 이익을 위해 품질이 조악한 상품과 일본 취향의 도자기가 양산됐다"며 "특히 찻사발에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는데, 일본 차인들의 기호에 맞는 찻사발을 만들다 보니 한국 전통 찻사발의 형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일본화 된 찻사발의 특징으로는 틀로 찍은 듯한 크기의 균일성과 기계로 깎은 듯 정교하고 말끔한 뒷마무리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재료 수입, 가격 담합 등 해결 과제로

정씨는 우리 도예문화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일본취향을 벗어나는 것과 장작가마와 가스가마의 공존문제, 수입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적인 도자기 흙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든다. 또한 자비(自費)로 일본에서 전시회를 열거나 차 단체를 이끄는 이들과의 담합으로 찻사발 가격을 높이려는 일부 도예인들의 행태를 지적한다.

이에 더해 찻그릇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비평이 확립되지 않은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정씨는 "도예비평을 위한 전문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도예작가들이 비평 자체를 싫어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작품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때 비로소 작품성과 작가론이 확립되어 우리 전통도예가 과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조선시대 ⑱



외교적 다례의식 잦고 다화 많이 남겨

문물이 정비되고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져 외교적인 의식다례가 잦았다. 궁중에서도 접빈다례(接賓茶禮)의 횟수가 늘고 진연의궤에 진다례가 여러 번 행해졌다. 실학파 학자들도 차를 즐기며 차에 관한 기록도 많이 남겼다.

한편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유수관 도인, 이인문 등의 출중한 학자들이 실경산수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다화(茶畵)를 그렸다. 이는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관념적인 이념 세계의 그림이 아니고 실제의 생활을 모델로 한 기록화이기 때문에 당시 선비사회에서 차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를 보여준다.

중국은 장정옥, 육정찬 등이 차에 관한 기록을 남겼고, 일본에는 매다옹 고유외가 등장해 뒷날 일본 다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① 진상다병(進上茶甁): 분원에서 나온 다병에 붉은 석간주(石間硃)로 진상다병이라 쓰여 있어 왕가의 다기임을 표시했다.

② 정선(1676~1759): 호는 겸재. 산수사생의 진경산수의 세계를 그렸으며 몇 점의 다화(茶畵)를 남겼다.

③ 이긍익(1736~1806): 〈연려실기술〉에 송다(宋茶)에 관한 것에서부터 전고(典故)에 차를 쓰는 것과 기타 왕실에서의 차에 관한 것 등을 기록했다.

④ 이덕무(1741~1793): 중국에 다녀와서 실학에 몰두했고 〈청장관전서〉에 수많은 다시와 다사를 남겼다.

⑤ 진연의궤: 영조 20년 진연의궤에 다모 2명과 사자완(沙磁椀) 10개를 쓴 기록이 있다.

⑥ 김홍도(1760~?): 호는 단원. 차에 관한 그림 '시명도(試茗圖)' '전다한화도(煎茶閒話圖)'를 비롯해 수많은 다화를 남긴 차인이다.

⑦ 이인문(1745~1821): 구도의 특이함과 독특한 준법으로 '선동전다도(仙童煎茶圖)' '소선도(嘯仙圖)' 등 다화 여러 편을 남겼다.

⑧ 유득공(1749~?): 〈경도잡지(京都雜志)〉에 작설차 얘기가 나온다. 〈발해고〉도 저술했다.

⑨ 〈증보산림경제〉: 유중임이 찬술한 책으로 다탕(茶湯)과 백산차에 관해 썼다. 다관과 다종(茶鍾)에 관해서도 기록했다.

⑩ 세종 옹정 연간에 다세를 한 근의 은으로 정해진 양을 납부케 했다. 상인들이 차를 사서 국외로 반출할 때는 다법예관(茶法禮官)을 거쳐야 했다.

⑪ 육정찬: 청대 차인으로 〈속다경(續茶經)〉 3권, 부록 1권을 남겼다. 〈왕초당가설〉 〈오종선명설〉 등에서도 차 얘기가 실려 있다.

⑫ 왕사신(1686~1762): 전각, 예서, 화훼 등에 일가를 이룬 차인이다.

⑬ 고유외(1675~1763): 매다옹(賣茶翁)으로 알려진 차인이다. 61세부터 통선정에서 20여년간 차를 팔았다. 잎차에 관한 그의 다도정신은 뒤에 일본차에 큰 영향을 끼친다.

⑭ 〈다탕육종장전기〉: 원등원한(遠藤元閑)이 완성한 종장들의 전기.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727 진상다병 ① 1732 잠상을 엄단 @ 정선(鄭敾)의 활동 ② 1736 이긍익(李肯翊)의 출생 ③ 1740 〈성호사설〉 1741 이덕무(李德懋)의 출생 ④ 1744 진연의궤(進宴儀軌) ⑤ 1745 김홍도(金弘道)의 출생 ⑥ 이인문(李寅文)의 출생 ⑦ 1748 홍계희 등 475명 일본통신사 1749 유득공(柳得恭)의 출생 ⑧ @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⑨		
청대		1730 찻세 수납 ⑩ @ 육정찬(陸廷燦)의 활동 ⑪ @ 왕사신의 활동 ⑫ 1747 러시아에 차 수출	
강호시대			1730 추천의 회산(檜山)에 차 재배 1735 고유외(高遊外)의 매다(賣茶) 생활 ⑬ 1741 〈다탕육종장전기(茶湯六宗匠傳記)〉 ⑭ 1742 매다옹이 영곡(永谷)을 만나다 @ 영곡종칠랑

청주 관음사 제4기 불교기본교육 수강생 모집

www.gwanumsa.org



귀의 삼보하옵고, 청주 우암산(牛岩山) 관음사(觀音寺)에서 제4기 불교기본교육 정진대중을 모십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불자님들은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안내
- 교육내용 : 불자예절과 기초상식, 부처님 생애, 불교 교리, 수행방법 등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 수 강 료 : 5만원 (3개월 교육, 교재비 포함)
- 개 강 일 : 불기 2549년 9월 6일(입재식) 오전 10시
- 강 의 : 현진 스님(관음사 주지)

■접수안내
- 개강 한 달 전부터 개강일까지
- 구비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 사진 1매
- 접수장소 : 관음사 종무소 ☎ 043)256-6254

■강의일정

회차	주 제	내 용
1차	입문식 / 불교기본예절	관음사 소개
2차	예불문 강의 1	기도의식
3차	예불문 강의 2	예불의식
4차	찬불가 배우기	관음사의 노래 외
5차	부처님의 생애1	팔상성도
6차	부처님의 생애2	부처님의 발자취
7차	특 강	외부강사
8차	근본불교의 가르침 1	삼법인과 연기법
9차	근본불교의 가르침 2	사성제와 팔정도
10차	성지순례	강원도 낙산사
11차	발우공양	스님들의 식사법 체험
12차	회향식	수료증 수여 및 다과



2006학년도 대입수능 합격발원 백일기도
- 입재 : 불기 2549년 8월 16일 양력
  회향 : 불기 2549년 11월 23일 양력
- 기도비 10만원

※ 수험생 자녀를 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산 14-1번지 청주 우암산 관음사 ☎ 043)256-6254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자광스님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 친견 상담 환영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두암말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을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겠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원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람을 놀라게 하기고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이 세상 사는 게 본래 놓고 그냥 가는 것!

마음의 능력을 개발하려면

문 스님께서는 우리 안에 광력 · 전력 · 자력 · 통신력이 충만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신통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광대무변한 마음의 능력를 개발해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답 세계적으로 각 종교인들이 상대를 놓고 믿고 기도하게 만들고 상대를 놓고 신을 찾게 하는 고로 항상 우리는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볼 때 물주머니에서 오고 물주머니 어항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야만이 우리는 자유스럽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우주의 섭류를 전부 꿰뚫어서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이것은, 세상에 금덩어리를 태산같이 갖다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꼭 여러분의 마음, 마음으로서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깐 현실로도 따져 보라구요. 우리가 공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지요. 그러니깐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공기가 없는 삼천대천세계 암흑이라도 들어갈 수 있고, 땅 속도 들어갈 수 있고 물 속도 들어갈 수 있고, 어디든지 통과가 안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듣고 자성의 심검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물질세계에서, 즉 말하자면 학술적인 과학이다, 과학자다 하더라도, 과학이 아주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과학은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빠른 걸로 말하자면 '가고 옴이 없다,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은, 빛은 가다가도 잘못될 수가 있고 가다가도 막힐 수가 있고 가다가도 도로 올 수가 있고 이렇지만 이 마음의 빛이라는 건, 마음은 빛도 없고 색깔도 없으면서도 어디든지 멀고 가까운 게 없어요. 그렇게 훌륭하고 광대무변해요. 이 도리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하고 내 몸 속에 있는 자생중생들부터 제도를 해야 내가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혼자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혼자 생각하는 것도 없고 혼자 듣는 것도 없고, 혼자 일하는 것도 없고 혼자 먹는 것도 없잖아요.

생각해 봐요.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체들이 모두 우글우글한데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과 하나를 먹어도 모든 게 전체가 다 먹는 거지, 공식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했다, 너는 공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구조, 행을 하는데, 작용을 하고 사는데 이 원리부터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구조가 돼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로구나. 수십 억의 내가 있구나.' 그 도리를 알면 손가락, 내 몸뚱이가 손가락 하나라면 손가락 하나를 손가락 하나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외부적이나 내부적이나 모든 게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그랬어요, 주인공! 그래, 주인공이라고 그랬으니 그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건 고정된 게 없이, 우리가 지금 걸어 올라오는데도 그 발자국을 짊어진 것도 없고 고정된 것도 없고, 그냥그냥 놓고 왔다 이거예요. 놓고 걸어 올라왔지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것도 전부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 걸어오듯이 말이에요. 본래 놓고 가는 거라구요, 지금 우리가. 본래 놓고 가는 건데 마음으로 '놔야 된다, 안 놔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놓느냐' 이런 문제들이 결부되는 거예요. 본래는 놓고 가는 거예요. 고정된 게 하나나 있어요? 듣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그냥 들으면 또 고다음에 딴 소리 들어야 하고 또 들어야 하고 또 들어야 하구, 연방 딴 소리 들어가면서 돌아가는 거죠. 딴 소리 해 가면서 돌아가고 딴 행동 하면서 돌아가는 거고, 먹는 것도 고정되게 먹는 거 없이 그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돌아가고요.

그러니 어떤 것을 먹을 때 내가 먹었다 하며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했다고 하며 어떻게 움죽거렸을 때 내가 움죽거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 몸뚱이 속에 내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움죽거렸다고 할 수 있겠느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지수화풍은 그대로 지수화풍이 한데 흡수돼서 생명체가 된 거니까, 지수화풍이 그렇게 바탕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내 몸뚱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돼서 있기 때문에 즉, 전력이 물이 없으면 통과가 되지 않아요. 전력을 쓸 수가 없지요. 그렇듯이 지수화풍이 이렇게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마음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력, 즉 말하자면 광력 통신력 그 모두를 내가 자유스럽게 쓸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오신통은 즉, 눈으로 보는 것, 마음 안의 눈으로 보는 것,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둘이 아니다.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도 마음 안의 눈이 있기 때문에 육안의 눈이 있는 거지, 마음의 눈이 없는데 어떻게 육안의 눈이 뚫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보면 벌써 마음으로 생각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보는 순간 벌써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듣게 되고 순간순간 듣게 되고 하는 것도 모두가 알게 되고 내가 어디서 나온 거를 알게 되고 즉, 어디서 와서 이런 걸 보고 들었다는 것도 미리미리 알게 되잖아요. 알았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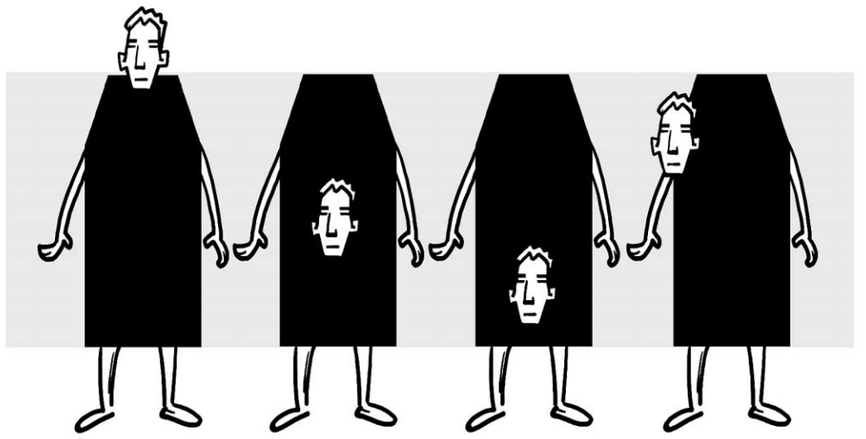
그래서 '오신통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런 것은 '보는 것, 아는 것, 가고 옴이 없이 마음이 가고 오는 것, 또 어디서 온 것인지 아는 것, 내가 듣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지, 개별적으로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밥을 하나 지어먹으려면 물도 있어야 하고 불도 있어야 하고 다 사람이 씻는 것도 있어야 하고 솥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가공이 돼야 밥을 해 먹죠. 그렇듯이 우리는 눈과 귀, 아는 것, 보는 것, 가고 오는 것 없이 모든 거를 동시에 쓰는 것이 오신통이다 이겁니다, 동시에. 저기서 꽹가리 소리가 나면 눈이 그쪽으로 가죠. 눈이 가는 데는 귀까지 가지 눈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남이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벌써 눈이 가서 보게 되고 귀가 가서 듣게 되고 동시에 벌써 누가 잘못한 거를 알게 되고 왜 싸웠는가를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니깐 그것이 바로 오신통이다 이거예요. 다섯 가지가 다 포괄돼서 알았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다섯 놈이 한데 합쳐져서 아는 거지 한 놈만 가서 안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안 게 아니에요. 다섯 놈이 한데 합쳐져서 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그놈이 바로 고정된 놈이 아니라 항상 바꿔 가면서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모두 판단하고, 그놈이 그냥 노냥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가거든요, 지금. 그러니 '그놈이 고정됨이 없이 그렇게 돌아가니 그놈이 바로 공했구나. 공했으니깐, 그놈이 공했으니깐 없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있는데 어찌 없게 되느냐. 너무 고정됨이 없이 찰나 찰나 화하면서 돌아가니까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서도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서도 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포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하나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포괄적으로 돌아가서 그 포괄적으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마음이, 둘 아닌 마음이 생기게 돼서 안에다가 모든 거를 '아, 이 내면의 모든 것들도 둘이 아닌데 나와 다른 게 있느냐, 둘이 아닌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둘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하나의 안테나한테 통신만 자꾸 넣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통신이 나와서 마음을 조절하고 주위 사람 마음 조절하고 또는 주위의 사람의 마음을 조절하니까 행동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이론으로 몸으로 이렇게 남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마음속의 마음으로 다스리면서 바로 말로 유하게 대치해 나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으로 대치를 하면서 이 안에서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전부 마음 공부하는 재료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천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혼은, 혼이 거기에 다 포함돼서 들어가서 그 심검이 되듯이, 심검이란 사람들을 건지고 살리는데 그 광력이 쳐들기만 해도 그냥 온 누리에 다 비칠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 심검이라는 거, 심검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단 얘기예요.

하물며 검을 만드는 데도 자기의 혼을 다 넣어서 심검을 만들어야 그 검이 그대로 써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툭 치기만 해도 부러지고 그 칼은 못 쓰는 칼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 공부를 해서 하늘을 받치고 굴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 한 번 나는 것도 천 년 만에 한 번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릇이 돼라

태아의 성 감별에 대해서

문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 가지고 뱃속에 있는 태아의 성을 감별을 해서 남자애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애들만 많이 태어나게 하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성 비율이 맞지도 않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답 예전에 한때 중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남자를 낳아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여자들을 낳으면 엎어 놓는 그런 예가 많았답니다, 예전에 어른들 말 들으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없었던 그 여자들하고, 지금 시대에 여자가 귀하다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 난폭해지고 외려 망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여자가 땅이라고 봅니다. 일체 만물만생을 다 소생시키고 키우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남자는 위에서 따뜻하게 태양을 주고 또는 물을 주고 바람도 주고 다 주지마는 이것을 서로 본래 땅에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 밀창도 역시 하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니라 만민의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죠. 땅이, 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중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도 위에서도 그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의 등불이 있듯이 태양보다 외려 마음의 근본이, 태양의 근본이 마음의 근본이라는 그 말과 똑같이 우리는 아래 위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물을 소생시키고 기를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상황을 보세요.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애들 기를 때는 주접이 들지 않게 기르지만,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기를 때는 애들 망가지기가 십중팔구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딴 어머니를 얻어도 올바르게 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잘 자란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감수하고 다 자라 가지고선 어느 때에 가면 '아, 이렇구나.' 하고 그 응어리를 풀고 이해하면서 사는 거지 다 자라기 이전에는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여자가 앞으로 말입니다, 여자가 아주 적다면 앞으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여자가 위력이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때는 남자가 구걸을 하러 다녀도 툭툭 튕겨야 할 지경이 돌아오겠죠. 지금 여자들이 천대받듯이 말입니다. 똑똑해도 여자들이 그냥 지금 많으니까, 앞으로는 점점 점점 여자가 적어 들어가서 그렇게 할 이치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양면이 다 갖추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똑같이. 너무 이쪽이 많아도 안 되고 이쪽이 적어도 안 되고 항상 고루 갖추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위기의 상황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문 우리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당장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뭐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내놓은 사람인데, 타 종교의 어느 기도처에서 기도를 해서 나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참 절실하게 거기 매달려서 병이 일단 낫게 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 정신없이 끌려가거든요. 그렇듯 자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병이 나거나 병자가 생기거나 이런다면 일단 자기 주인공에 놓으려고 하지 않고 벌써 병원이나 약국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자기가 누구를 의지해서 안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이 나를 알뜰히 보살펴 주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기계라면 조립한 장본인이 그 기계를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조립한 사람이 더 잘 알지 딴 사람이 더 잘 알지는 않아요. 아무리 의사나 박사들이 인체에 대해서 잘 알아서 의학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40%, 50%를 넘지 못해요.

내가 주인공에 놓고 관하면 '아! 여기서 이렇게 파워를 일으켰으니까.' 하고 알게끔 돼 있거든요.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 안 아프게 하는 그런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다른 거 아닌데도 약이 될 수 있는 건데, 똑 병원에 가서 그거보다 더 부작용이 나는 약을 해다 먹고야 마음이 편안하게끔 되거든요.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편안하다 이겁니다. 몸은 일어나고 마음은, 좀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해야 될 텐데, 마음은 말겠으니까 하면서도 몸은 몹시 아프니까 항상 이게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면 양면이 다 괴로운 거죠.

그런데 원주에 사는 어떤 분은 병원엘 다니다 다니다 못해서, 병원엘 다녀도 영 낫질 않으니 어떡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때에 무슨 꼭 낫는다 안 낫는다 그런 것도 없이 하여간에, 너무 기름 있게 먹지도 말고 자기가 조절을 해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것 하나도 먹지 말랬대요. 그러나 요구하는 대로 먹고 죽으나 요구하는 대로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는 거는!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먹어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결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돈 200원 버리고서 나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일 그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데 왜 굳이 나를 살려 달라고, 타의에다가 병을 낫게 해 달라고, 구원을 해 달라고 막 빌어야만 합니까? 자기를 형성시키고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이 있는데 왜 자꾸 바깥으로만 끄달리면서 사느냐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가 아니고 눈도 하나가 아니고 귀도 하나가 아니라니깐요.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 하나 가지고서 고정되게 하나만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루도 그 눈 하나 가지고 수십 개를 봤지 않습니까? 자꾸 바꿔 가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바꿔 가면서 듣죠, 바꿔 가면서 생각하죠, 바꿔 가면서 움죽거리죠, 바꿔 가면서 먹죠, 말하죠. 그것이 어떻게 고정되게 하나입니까?

그러니 모두 놔라 이거예요. 모두 맡겨 놔라 이겁니다. 놓으라니까 무슨 놓을 게 있어서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고 거기에서밖에는 해결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감사함을 주지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서 모두 품안으로 안을 수도 있고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거기밖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다' 하고 믿고 나가라 이거죠. 그것이 놓는 거라고요.

그것이 놓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놓고 두 번 놓고 자꾸자꾸 놓아 들어가면 업보로 뭉쳐진 중생들이 다 그냥 보살로 화해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거기에서 호법신도 생기고 수호신도 생기고, 화신도 생기고 법신도 생기고 모두가 수호가 없이 생기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냐고요.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는 일마다 귀인이 생기고 발이 넓어지고 속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져 떳떳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죠.

그냥 묵묵히 일체를 나와 같이 보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실천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 공부 하지만 사실 공부라는 이름도 붙이지 말고,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 그건 불쌍한 게 아니라 애처롭습니다. 여러분은 산 사람, 산 물질만 봐도 애처로운 일이 많은데, 죽은 영령들이 부모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마음, 애처롭게 끌고 다니는 그 마음, 세상에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연이 뭐고 사랑이 뭐길래, 자식이 뭐고 부모가 뭐길래, 남편이

☞30면으로 계속

자기 주인공밖에 없다고 진짜로 믿고 나가라!

☞29면에서 계속

뭐고 아내가 뭐길래 그렇게들 인연줄이 질기고 질겨서 그걸 놓지 못해 불들고, 애처롭게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도 살고 있고 저 별성에도 살고 있다. 여기 모습대로 거기도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그건 화신입니다. 여기는 이것이 육신이지만, 그 모습들은 화신으로서 모두 보현보살로 화해서 영계들이나 산 사람들이나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해서 직속 왕래를 해 보세요. 얼마나 땟땟한가.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러죠.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빛보다 더 빨리 왕래를 하는데. 그러니 여러분은 기복으로만 만날 빌고 '아이구, 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제발 좀 이러지 말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뭐 또 죽을까 봐 그렇게 살려 달라고 애를 씁니까?

그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팔랑개비대만 쥐고 다녔다고요. 그게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만 쥐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에 내가 대를 쥐면 나한테도 바람이 있죠. 지수화풍이 다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건 저절로 돌아갈 거라고요. 나는 그 대만 붙들고 다녔기 때문에 내 육신이 고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을 안 했으니까 고통이 없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진짜로 자기의 자성불을 믿고서 악과 선을 다 놓을 수 있다면 집안에서 병 문제가 생겼어도 스스로 해결하고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고통받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 몸을 아프게 하고, 누가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고,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뼈저리게 건건이 괴로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인연에 의해서 그게 업보가 되고 그래서 지금 견건이 거기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할 것 없고 누구 원망도 할 것 없이 내 탓으로 돌렸을 때, 바로 나로부터 그 일을 벌여 놓은 거니까 나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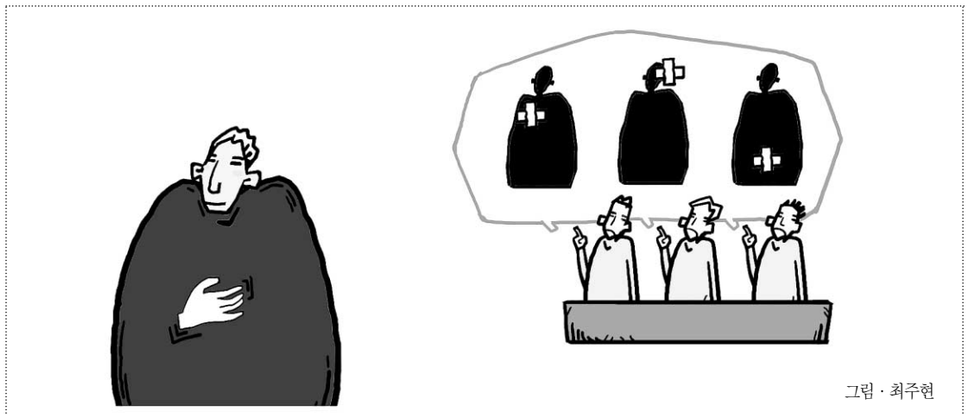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보는 순간 듣는 순간 한생각 잘하면 그게 법입니다

업을 소멸하며 살아가려면

문 우리가 한생각을 낼 때 주인공 불성 자리에서 내는 거하고 그냥 무명에서 낼 때가 있습니다. 만약 무명에서 한생각을 내면 그게 인제 고통의 원인이 되는데요, 그것을 12연기의 가르침에서 환멸 연기가 되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업을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업을 짓지 않고 업을 사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요.

답 무명에서 그러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내 몸이 있다고 인식하고 들어가면 그 생각하는 것도 전부 그렇게 어리석거든요. 전부 그렇게 미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외려 고를 태산같이 불러오는 거고 짊어지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는 대로 고정됨이 없이 화해서 돌아간다 이거를 알면 한생각을 내도 오히려 천만 가지가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전부 거기서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생각을 잘하면 육근이 여섯 개의 부처가 되고, 전체가 다 부처가 되고, 잘못 생각해서 바깥으로 끄달리면 여섯 개의 도둑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구니가 되는 거죠. 세세생생에 빠져나올 길이 없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생각을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한생각, 보는 순간 듣는 순간 한생각 잘하면 그게 법이 된다 이거예요. 법이 되면 우리가 가만히 한 발짝 떼 놓지 않고도 그 보살 응신들이 다 해결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한 발짝 떼어 놓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본래 한 발짝 떼어 놓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직결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한 발짝도 떼어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별나게 사는 그걸로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고 끝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할 거 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한 것이 되죠. 어디를 갈 때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진다고요. 우리 생활이 그런 생활이거든요. 그러니 발자국 떼어 놓는 동안에 어떠한 발자국을 떼어 놨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발은 떼어 놓을 때 내가 했고 어떤 발은 떼어 놓을 때 내가 안 했습니까? 떼어 놓은 대로 없어지는 것을.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도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도 바로 과거와 교차로에서 우리가 하기에 달렸고 마음먹기에 달렸고, 마음을 먹어도 한마음을 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내 몸속에도 생명들이 많으니까 한 개체를 더 불어 한마음, 이 모두가 우리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일이고 진리를 파악해야 할 일이고 진리 속에서, 악과 선, 그 가운데서 내가 악에는 어떡하고 선에는 어떡해야 하는 그 도리를,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 용법으로 모든 것을, 즉 말하자면 '공법'이라고 해도 되고 '용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도리가 있다면 어떠한 거든지 손색이 없을 겁니다.

실천을 항상 해 보십시오. 자기가 실천해야지 일체제불이 있다 하더라도 대신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을 해서 감응이 되고 감응이 되면 한생각 해 보시고 '아,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하고, 또 상대를 만나 보면 내가 차원이 얼마나 됐는지도 알게 됩니다.

불교계의 시련에 대해서

문 요즘 들어서 불교계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불법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밝아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러한 일들이 불교계 전체를 호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불교계의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 이것을 사람들이 넓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다 불상사라고 하지만 온기가 물 밑 찬 데까지 서로 대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고 대치를 해 주지 않고 소용돌이치지 않는다면 밑에 있는 게 못 삽니다. 그래서 밑의 것이 위로 올라오고 위의 것이 밑으로 내려가야만 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서로 주고 서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 물도 모든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생명들이 없으면 물도 죽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데도 역시 그렇습니다. 인간들뿐만이 아닙니다. 물에서 사는 것이든지 들에서 사는 것이든지 다 그렇죠. 들에서 풀을 태우는 일들도 다시 새싹이 나와서 다시 먹게 하기 위한 도리도 됩니다. 그게 자연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잘못해서 불이 났다 이러기보다는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태풍이 일어서 사람이 많이 죽는데 그거는 어쩐 일로 그러냐 이러겠죠. 넓게 본다면 그것 역시 마찬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외아들을 데려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숨모가 있기 때문에, 외아들이고 아니고 간에 다시 대치해서 내보낼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깐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자유스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기주머닐 한 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반면에 모든 게 자유스럽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치는 그런 것을 다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크게 돼라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대치를 다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보십시오. 바다의 물이 파도를 이루지 않고 곱게 잔잔한 대로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물속 깊숙하게 있는 그 고기들이 살 수 있으며, 위에서 다니는 고기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뒤집어 놔야 밑에 있는 양식을 위에서 먹고, 위에 있는 양식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태양열도 밑으로 내려보내고 온기와 찬 기를 서로 섞어서 다 공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용도 할 수가 있죠.

모든 게 교훈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이건 바로 공생 공심으로서 공용하기 위한 사부대중의, 즉 말하자면 순환이라고 그럴까요? 정맥 · 동맥이 서로 돌아가서 순환이 돼서 이 몸뚱이가 아주 건강하게 잘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깐 입 꼭 다물고 눈 지그시 감고 싱그레 웃으며 돌아서서 부지런히 정진하면 되는 일입니다. 말로 만들어진 일들은 자취없이 사그라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4시)
▶ 지선법사 직강◀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컴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무문관 선원 후원회원 모집공고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계룡산 대자암 무문관 선원을 1992년 4월에 개원한 후 2002년 7월까지 10년간을 1년에 2회씩 각각 5개월과 1개월씩 안거기간을 정하여 두문 불출 안거 정진을 마치고 새로 증설한 부여 제 2무문관에 함께 다시 1차 3년 결사안거를 2002년 8월에 시작하여 금년 2005년 오는 8월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2005년 8월부터 제 2차 3년 결사 안거를 하고자 하나 경제상 어려움이 많아 여러 선도님들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후원 회원을 모집코자 하오니 많은 동참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 간 : 2005년 10월 – 2008년 9월까지 (3년간)
◆회 비 : 1개월에 1만원
◆송금계좌번호 :
• 우체국 310623-02-033475 • 예금주 : 문판오(정영)
◆부여 제 2무문관
•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은산 초등학교 매화분교)
• 전화 041)833-4963

계 룡 산 대 자 암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갑사 대자암
전화 041)857-5880 / 857-3604

과일의 왕 **두리안**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두개 6.5KG이상 55,000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원
Sale!
후식으로
보이산차
장미차
국화차
중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향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1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건강을 완주한다

마라톤으로 건강 챙기기



더위가 가시면서 달리기 좋은 계절이 왔다. 한강둔치에 나가 봐도 여기저기 '뛰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다.

특히 올 가을엔 달마마라톤(10월 1일), 조선일보 마라톤(10월 23일), 동아일보 마라톤(11월 20일) 등 대규모 마라톤 대회가 많이 열릴 예정이다.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훈련한다면 완주는 못하더라도 하프코스 정도는 거뜬히 주파할 수 있다. 올 가을, 마라톤에 도전해보자.

□ D60~30일 계획대로 차츰 강도 높이고 근력운동 병행

마라톤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대한육상연맹 황규훈 전무는 "일주일 단위로 훈련 계획표를 작성해 볼 것"을 주문한다. 50분간 걷기(4일간), 하루 휴식, 다시 걷기 50분(1일간), 등산 60분(2일간)을 순서대로 일주일 동안 훈련하는 식이다.

처음부터 바로 뛰기에 들어가면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D-50일이 되면 훈련의 강도를 점점 높인다. 가볍게 워킹 후 50분간 달리고 10분간 워킹(3일간), 하루 휴식, 가볍게 워킹 후 50분간 달리고 10분간 워킹(3일간). 이때 달리는 속도와 거리는 의식하지 말고 5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부터는 보강운동도 필요하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쪼그려 뛰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등이 대표적인 근력보강운동이다.

D-40일이 되면 12km 달리기(3일간), 하루 휴식, 12km 달리기(2일간), 휴식 및 근력 보강훈련을 반복한다. 마라톤 경력 3년차인 서춘건(40 · 인천시 부평구)씨는 "12km를 경사 굴곡이 없는 운동장에서 달리게 되면 쉽게 지치고 지루해져서 기록이나 운동효율이 떨어지므로 달리기 코스에 변화가 있는 강변이나 공원 등지에서 달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고 조언한다.

특히 D-30일에 돌입하면 거리에 상관없이 1시간 30~50분 정도를 천천히 달리는 '시간주'에 도전한다. 격일로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간주를 한 다음날은 냉온욕과 스트레칭 등으로 피로를 완전히 풀어준 뒤 다시 운동에 들어간다.

□ D30~10일 올바른 주법 익혀 대회적응 훈련 시작

하프코스(21.0975km)로 시뮬레이션(모의레이스)을 해봄으로써 대회적응 훈련을 시작한다. 주말에는 마라닉(마라톤+피크닉: 하루 종일 여유 있게 걷거나 달리기를 번갈아가면서 달리는 마라톤 훈련 기법)을 통해 근력과 극기력을 기리는 것이 좋다. 또 이때부터는 달릴 때의 자세교정도 필요하다. 좋은 자세를 갖춰야 아마추어도 4시간 이상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주법은 주먹은 계란을 쥐듯이 약간 공간을 두고 팔은 좌우로 45로 각도로 가볍게 흔들어야 한다. 이때쯤 되면 슬럼프가 찾아 올수 있다. 마라톤이 힘들어졌거나 싫어졌다면 대체운동을 해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비가 오면 수영이나 자전거타기를 하든가, 가벼운 등산을 하는 식이다.

□ 일주일 전 조정단계 연습 · 충분한 영양분 섭취 필요

대회 일주일 전부터는 시간주의 운동량 60%정도의 부하로 훈련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조정단계의 연습으로 흙이나 잔디가 있는 길을 택해서 달리는 것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시기에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가정의학과 김동진 원장은 "마라톤 영양 밸런스는 탄수화물 7, 지방2, 단백질1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다"며 "찰밥, 빵, 면류 등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근육 내 글리코겐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어패류, 쇠고기, 돼지고기, 두부 등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 당일 시합 3시간 전 죽 · 스프 등으로 식사

식사는 시합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찹쌀을 넣은 닭죽이나 감자스프가 좋다. 7km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물과 이온음료를 섭취해 지속적으로 수분과 에너지를 체내에 공급해 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5km의 벽을 극복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42.195km를 완주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완주를 위해 중요한 것은 그 동안의 훈련을 토대로 20~30km의 구간에서 어떻게 페이스를 조절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구간은 훈련시 '도로 훈련'의 페이스를 유지하면 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대회 후반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글=노병철 기자

도움말=대한육상연맹 황규훈 전무, 하나가정의학과 김동진 원장



가을 전국 주요 마라톤 대회 일정

개최일	대회명	장소	종목	주최 및 문의
9월 25일	경향신문 제2회 마라톤	울산 일대	풀코스, 하프, 5 · 10km	경향신문사(02)3701-1601 marathon.khan.co.kr
	제4회 김제 지평선 마라톤	김제시민운동장	풀코스, 하프, 5 · 10km	김제시(063)545-1090 gimjemarathon.com
	제13회 서울특별시장기 단축마라톤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하프, 5 · 10km	국민생활체육전국육상연합회(02)416-8473 run.sportal.or.kr
10월 1일	달마마라톤	여의도 수변마당	하프, 5 · 10 · 30km	대한불교조계종 서울광역신도회(02)733-0271 http://www.hrfanta.com
	전국마라톤클럽 대항 역전마라톤	강원도 고성군	풀코스, 하프, 5 · 10km	강원일보사(033)258-1251 run.kwnews.co.kr
10월 23일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춘천종합운동장	풀코스	조선일보사(02)724-6333 marathon.chosun.com
10월 30일	동아일보 2005 경주오픈마라톤	경주시 황성공원 시민운동장	풀코스, 하프, 10km	동아일보사(02)2020-1630 marathon.donga.com
	국방일보 전우마라톤	한강시민공원	하프, 5km	국방홍보원(02)2079-3912 www.demamt.co.kr
11월 6일	중앙일보 서울마라톤	잠실운동장	풀코스, 10km	중앙일보사(02)751-9680 marathon.joins.com
11월 20일	동아일보 백제마라톤	공주시 종합운동장	풀코스, 하프, 5 · 10km	동아일보사(02)2020-1630 marathon.donga.com
	부산마라톤	다대포해수욕장	풀코스, 하프, 10km	국제신문사(051)500-5223 marathon.kookje.co.kr
12월 25일	제8회 울마클 하프마라톤	울주군 청량면	하프	울산마라톤클럽(011)583-2948 ulsanrun.com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31)

질병 404가지로 분류

크게 업·혼령·잘못된 섭생·가성으로 구분

티빠 균형 깨져 감기 발생, 따뜻한 물 좋아

티베트의학에서는 질병을 모두 404가지로 분류하고 그것을 다시 크게 네 갈래로 구분한다. 첫째는 전생의 업 때문에 생겨 치료할 수 없는 병으로 101가지가 있다. 그런 병들은 뚜렷한 원인이나 이유도 없이 나타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몰라갈 수도 있다. 꼭 자기 자신이 저지른 소행의 결과만은 아니다. 이 세상 저 혼자만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서로 물고 물려 얽혀있듯이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소행의 결과로도 생길 수 있다.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의 악업 특히 다른 유정물을 살상하는 악행을 저지르면 그런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본다. 티베트인들은 가족이 그런 병에 걸려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업보로 생각한다.

그래서 티베트인들은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불행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체투지로 성지를 순례하고 만트라(진언)을 외우며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선업을 쌓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스님들께 음식과 옷가지를 시주하여 끊임없이 공덕을 쌓는다.

아무리 시설 좋고 유명하다는 병원이나 명의를 찾아 별의별 치료를 다 받아보아도 차도가 없는 질병은 바로 전생의 업 때문에 생긴 병들이다. 선행을 통해서도 그 업장을 씻어낼 수 없다.

둘째는 혼령이 씌어 굿(푸닥거리)이나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 퇴치할 수 있는 병으로 역시 101가지 있다. 셋째는 현생의 잘못된 섭생과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병으로 치료 가능한 101가지 병이다. 마지막으로 별다른 손을 쓰지 않고도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겉모습만 병처럼 보이는 가성(假性) 질환 101가지이다. 이들 세 갈래 303가지 질병은 모두 치료 가능한 병들이다. 이제부터 티베트의학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흔한 질병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무래도 동서를 막론하고 가장 흔한 질병은 감기일 것이다. 감기는 너무 덥거나 추운 극단적인 날씨에 티빠 에너지의 균형이 깨져 생기는 병이다. 티빠는 체온조절 기능을 가진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먼지와 공해물질도 감기를 일으키는 병인이 될 수 있다.

감기는 티베트의학에서 목감기 폐(肺)감기 코감기 그리고 독감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고 있다. 목감기의 증상은 처음에 목구멍천장과 성대 안에 통증이 오고 이어 콧물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여파로 성대가 부어 목이 쉬고 심지어는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재채기가 계속된다.

폐감기는 목감기와 비슷한 증상에 더하여 기침 두통 가슴의 통증과 울혈이 수반된다. 폐감기는 서둘러 치료를 해야지 방치하였다가는 만성기관지염과 다른 고약한 폐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코감기의 증상은 콧구멍이 가렵고 염증이 생기며 콧물을 계속 흘려댄다. 독감은 두통과 온 뼈마디와 장딴지에 동통이 오고 목과 엉덩이가 뻣뻣하게 굳으며 식욕상실과 오한이 있고 입맛이 쓰디써지며 두들겨 맞은 듯이 밤이면 온몸이 쑤시고 환각과 비몽사몽 꿈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럴 때는 만사 제쳐놓고 푹 쉬는 것이 최선이다. 고단백 식품도 피하고 술도 삼가야 한다. 술을 먹으면 몸에 열이 나서 대사계가 망가져 심할 경우 죽기까지 할 수 있다.

감기치료는 먼저 약초를 달여 물에 녹은 수용(水溶) 성분을 추출한 '목향(木香)4'라는 정제(精劑)나 엠블리카 오피시날리스(Emblica officinalis)를 주성분으로 하는 칠보정(七寶精)을 쓴다. 엠블리카 오피시날리스는 오렌지보다 무려 24배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는 과일이다. 이런 정제들은 체열(體熱)의 균형을 바로잡고 면역계를 증진시켜 주는 약들이다.

그리고 티베트의학에서는 또 목감기에는 '정향(丁香)6' 폐감기에는 '용담15' 그리고 독감에는 '장뇌25'를 처방한다. 뭐니 뭐니 해도 독감에는 따끈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단식하는 것이 제일 좋다.

감기에 이어 심혈관질환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식습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현대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질병중의 하나가 바로 심장병이다. 티베트의학에서는 심장을 마음이 자리한 곳으로 본다. 심장은 범습룽(汎濕氣)의 도움으로 온몸의 혈액순환을 관장한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광고

당뇨, 한방으로 잡는다

- 합병증 예방 치료에 효과적 - 초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호전



혈당을 효과적으로 잡아주면서 합병증을 예방, 치료해주는 당뇨 한방치료제가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발병한지 3년이내의 초기 당뇨병은 치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로 인한 각종 합병증에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래한의원(원장 최선미 (02)512-2075)은 당뇨에 따른 각종 합병증을 예방, 치료해주는 당뇨 한방치료제 제당탕과 제당환(除糖丸)을 환자들에게 투여한 결과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미 원장은 "제당환을 3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에게서 혈당 정상화와 함께 피곤감, 시력저하, 혈압상승, 성욕감퇴, 손발 저림 등의 합병증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며 "특히 발병한지 3년이내의 환자들에게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호전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제당환'을 3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 가운데 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95%(83명)가 1개월 이내에 혈당이 현저하게 떨어져 정상혈당을 유지하고, 손발저림, 혈액순환장애, 피곤감, 시력저하 등의 합병증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치료효과를 보였다. 특히 이중에서 발병한지 3년미만의 초기 환자 20명은 혈당이 정상화되고 합병증세가 사라지는 등 더이상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태가 좋아졌다.

최원장은 "당뇨 환자 대부분이 해당근, 백강잠, 영지 등의 20여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약인 제당환을 복용한지 3일뒤부터 혈당이 잡히기 시작, 늦어도 15일 이내에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져 정상혈당을 찾아 일상 생활에 거의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 호전됐다"며 "특히 초기, 중기 환자들은 일주일만에 정상 혈당을 되찾는 등 증상의 회복속도가 무척 빨랐다"고 설명했다.

최원장은 "합병증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보여 10년 이상된 당뇨 환자 역시 한달 이내에 혈당이 정상화되고 합병증 증상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방에서는 인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분 성분인 진액을 보충해주고 탁해진 피를 맑게 하며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당뇨를 치료한다.

최원장은 "한방 당뇨치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별다른 부작용 없이 혈당을 안정시켜주면서 증세를 없애주고, 궁극적으로는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인체 스스로 인슐린 분비를 하도록 도와 준다는 점"이라며 "발견 즉시 또는 3년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다"고 설명했다.

www.storydang.com

급만성 위장질환, 한방으로 다스린다

- 부분 1~3개월만에 증상 개선 효과
- 위장, 대장의 염증 없애주고 뭉친 기운 고르게 펴는 작용

소화불량, 위궤양,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급,만성 위장질환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한방 치료법이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 스트레스가 원인인 이 위장질환들은 체질과 증상에 따른 한방 치료법으로 1~3개월 만에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 진선미 한의원((02)2273-8694) 신기돈 원장은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대장증상이나 소화불량, 위궤양 등 급,만성 위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재로 만든 한방환을 복용케 한 결과 대부분 1개월 내에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치료효과를 보였다"며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해 있는 위장이나 대장에 작용하여 염증을 없애주고 기(氣)를 고르게 하여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작용으로 위장질환을 치료한다"고 말했다.

이 한약은 창출, 후박, 진피, 곽향, 사인, 산사육, 백작약, 등 20여가지 약재를 체질과 증상에 따라 가감해 사용하는데, 만성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십이지장염, 복부팽만, 만성변비등 기타 위장, 대장질환에도 좋은 효과를 보인다.

신원장은 "현대인들의 위장질환은 대부분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음주, 불규칙한 식사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염증을 없애주고 위장이나 대장의 뭉친 기운을 고르게 하는 한약재를 쓰면 위장질환의 증상을 빠르게 개선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위장관계질환은 한방으로 수월하게 치료되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30-40%의 위장질환 환자들은 증상은 있으나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할 때 흔히 신경성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도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소화에는 비장, 위장뿐만 아니라 간장, 심장, 신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속으로 삭힐때는 간의 기가 울결되어 소화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는 간의 울결된 기를 풀어주는 방법을 쓰면 좋다. 이런 방법 외에 위장내 적체된 비소화물을 내려주거나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신음을 보충해 주는 방법을 응용해 볼 수 있다. 체질에 따라 자신에 맞는 섭생과 식이요법을 하면서, 침과 탕약 치료를 병행하면 사람과 증상에 따라 틀리지만 대략 1~ 3개월이면 치료가 가능하다.

본래 사람은 각자의 체질에 맞는 음식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인체는 자신과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오면, 설사나 구토를 통해 이를 빨리 몸 밖으로 내보 낼 수 있다. 그러나 음식을 제대로 가려주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보면 몸은 지치게 되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물이 그대로 적체되어 여러 질병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장관계 질환이 치료를 위해서는 체질에 따른 식이조절이 필요하다.

위장대장 질환을 올바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술은 절대 금물이며 담배 커피 등은 끊는 것이 좋다. 또한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을 바로 잡아야 된다.

마하몰 MAHAMALL www.mahamall.co.kr 한가위선물을 마하몰에서 미리 준비하세요~

마하몰 추석용품 지상기획전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전화 02-732-1520 2004-8218~9

M 수행과 함께하는 추석



▌범어시 설선대법회법문 테입세트
30,000원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문 없는 문을 열다'
· 구성 : 카세트 테이프 10개



▌심경(心經)
2CD 1세트 20,000원, 2MC 1세트 10,000원
풀세트(CD6,MC6) : 75,000원
[제품구성]
[C D]
1SET(2CD) 1.배우기 쉬운 힙합 불경 2.의미 있는 노래
2SET(2CD) 3.김하리 시인의 불경명상 4.옴나니 반메흠,관세음보살
3SET(2CD) 5.볼자가요메들리1 6.볼자가요메들리 2
[Tape]
1MC(2테잎) 1.배우기 쉬운 힙합 불경 2.의미 있는 노래
2MC(2테잎) 3.김하리 시인의 불경명상 4.옴나니 반메흠,관세음보살
3MC(2테잎) 5.볼자가요메들리1 6.볼자가요메들리 2

M 스님께 드리는 추천상품



▌희담석 좌복
~~396,000원~~ → 298,000원
· 색상 : 회색,살구색
· 크기 : 세로 720 mm × 가로 390 mm
※ 베개겸용 고급휴대용케이스 증정
· 특징 : "희담석 좌복"은 살아 숨쉬는 희담석의 뛰어난 생체 활성 메커니즘이 일상생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신체대사가 원활치 못한 직장인, 수험생, 스님, 운전자에게 매우 유익한 방석이 될 것입니다.



▌기능성 명상방석
38,000원
"스님들의 참선원리 그대로...."
장시간 결가부좌 상태로 참선을 하시는 스님들이나 신도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크기 : 36×32(cm) · 무게 : 1kg
· 소재 : 항균 폴리 우레탄
· 허리 곡선 "S"커브 유지을 위한 경사 설계
· 미골 보호를 위한 컷어웨이 섹션
· 압력 분산을 위한 인체공학적 경사면
· 항균제 및 피톤치드향 첨가
· 특수 연질 우레탄 소재 사용
· 편안한 착석감



▌연화 무선찻주전자K1
67,000원
독일 직수입품 !
한정수량 특별보급
· 300pes한정
· 220V/2000W
· 용량 : 1.7 ℓ
· 고급스테인레스 소재
· 초고속가열 1컵(30초)
· 360(도) 회전
· 찻잎 거름 필터
· 코드보관장치
· 순간 재가열 기능



▌연화 삭발기
58,000원
원터치 터보 장착 방식으로
날의 움직임이 빠르다
· 충전+전기식
· 원터치 터보
· 특수 MiM 합금날 및 초강력 티타늄 코팅
· 밋살캡 · 커트길이 조절
· ABS 소재의 초경량 제품
·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
· 충전시간 : 5시간
· 소비전력 : 5.5W
· 전원 : 110/220V

M 효도하는 추석



▌희담석 찜질팩(어깨, 허리팩)세트
~~110,000원~~ → 88,000원
희담석 찜질팩의 특징은 생명에너지 방사 능력입니다.
희담석 찜질팩의 특징은 생명에너지 방사 능력으로써, 희담원석 중에서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였다. 렌지에 데우거나 끓는 물에 끓여 수건이나 헝겊에 싸서 사용하는 이 제품은 아픈 부위에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활력을 높여주어 회복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심장안정 숯 목걸이
30,000원
최고의 효도선물 심장을 돕는 숯목걸이...
숯의 보석 비장탄이 원적외선의 방사와 음이온의 발생 그리고 탄소덩어리인 숯에서 유도되는 기(氣)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 사이즈 : 가로 18mm × 세로 65mm
· 모양 : 귀, ♡, ○, 법륜



▌요로모로 베개
일반형 26,000원 / 고급형 35,000원
베개와 등받이가 하나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YOROMORO PILLOW (요로모로 베개)
· 색 상 : 청녹색,진분홍
· 재 질 : 폴리우레탄 폼(PUR FOAM)
· 사이즈 : 35cm × 35cm × 10cm
[특징]
· 어느곳에서나 휴대가능 · 두개의 베개가 하나로
· 부드러운 탄력성 · 정밀하게 규정된 견고함
· 코골이 예방 · 위생적인 제품
· 고급형 – 40°C 이상의 전열을 가하여야만 원적외선이 방사되던 기존의 제품과는 달리 체온만으로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기(氣)암석(Life Soul)이 28개 부착되어 누울때 마다 건강이 증진 됩니다.



▌숯베개 (음이온800)
40,000원
· 베개는 단순한 잠자는 도구만은 아니다. 기능이 있고 내장재의 효능이 있어야 자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다
· 숯베개의 특징과 효능
① 후두부, 목, 어깨의 혈액순환 원활촉진.
② 뇌신경 안정으로 숙면할 수 있음.
③ 수면중 공기정화효과
④ 숯베개는 머리냄새가 나지 않는다.(숯의 탈취효과)
⑤ 습기제거.(수면중 수분을 한컵반 배출)
⑥ 신변 이온바란스의 개선.(음이온 발생효과)
⑦ 목과 뒷머리의 인체구조적으로 설계된 베개.
(목부분은 높고 뒷머리부분은 낮다)
⑧ 후두부 경혈자극효과.(풍지, 뇌호, 옥침)
※ 숯베개의 약간 딱딱한 느낌을 극복하면 수면건강이 보인다.



▌건강지압봉 (은행나무봉)(옥봉)
3개 1세트 18,000원
은행나무 건강봉이 온 몸의 기[氣]를 활성화 시켜 줍니다.
혼자서도 전문인의 손길처럼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몸의 피로는 그때그때 풀어버립시다.
[특징]
1. 자기가 원하는 곳을 스스로 자극 할 수 있다.
2. 강도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자극 할 수 있다.
3. 손으로 할 때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도 자극의 효과가 크다.
4. 손잡이가 있어 편한 자세로 자극 할 수 있으며, 氣의 전달이 우수하다.
5. 손으로 氣血을 풀어주듯이 건강봉의 적절한 자극은 온 몸의 氣血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6.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 3종세트(1호봉,2호봉,3호봉)

M 연꽃차 선물세트



▌연인다인 백련차3종세트
102,000원
· 원산지 : 전남 무안
· 구성 : 연화차 50g+백련차 50g+백련근(연근) 200g



▌연마을백련차 부부다기 2호
54,000원
· 백련차 50g+연문양 부부수제다기 (토담 장용덕선생 작품)



▌연마을백련차 1인 2벌다기 2호
32,000원
· 백련차 50g+귀알무늬 1인다기 2벌세트



▌연향차
30,000원
· 재료 : 연잎 100%
· 중량 : 40g



▌연인다인 벽련차 1호
1호 13,000원
▌연인다인 벽련차 2호
2호 26,000원
· 백련잎 100% , 25g, 50g



▌연인다인 백련근분말차
26,000원
· 백련근100%, 분말 200g
▌연인다인(連人茶人)-연화차
50,000원
· 백련꽃12%,백련잎88%,혼합침출차 50g



▌연마을백련차 3인다기특선
102,000원
· 연화차 50g+연문양 3인 수제다기
▌연마을백련차 3인다기 2호
83,000원
· 백련차 50g+연문양 3인수제다기



▌백련차-우전
50g:50,000원 100g:100,000원
▌백련차-세작
50g:30,000원 100g:60,000원
▌백련차-중작
50g:20,000원 100g:40,000원

M 가정용 불기



▌가정용 촛대세트 (6015) (6039)
30,000원
· 재질 : 놋쇠
· 규격 : 7cm(넓이) X 8.4cm(높이) X 6.5cm(밑넓이)
8cm(넓이) X 7cm(높이) X 7cm(밑넓이)



▌가정용 촛대세트 (6031) (6004) (6003)
(6031)(6004) 45,000원 / (6003) 75,000원
· 규격 : 9.2cm(넓이) X 12cm(높이) X 6.5cm(밑넓이)
8.3cm(넓이) X 5.5cm(높이) X 6.4cm(밑넓이)
10cm(넓이) X 6cm(높이) X 7.9cm(밑넓이)



▌반야심경 개인향로 (1409K)
30,000원 · 재질:청동
· 사이즈 : 4.5cm(높이) x 6cm(지름)
▌개인용 향로(백자, 청자)
12,000원
· 크기 : 지름 90 mm x 높이 55 mm



▌놋쇠불기 (小)
30,000원
· 사이즈 : 폭 90mm, 높이 115mm
▌놋쇠다기 (小)
36,000원
· 사이즈 : 폭 90mm, 높이 110mm



▌황옥 촛대향로 세트
(小) : 570,000원
· 촛대 : 13cm(넓이) × 31.5Cm(높이)
· 향로 : 20cm(지름) × 15Cm(높이)
(大) : 750,000원
· 촛대 : 13.5cm(넓이) × 46Cm(높이)
· 향로 : 25cm(지름) × 19.5Cm(높이)

M 마하몰 홈피개편기념 특판상품



▌반야심경 최고급 손목시계
~~77,000원~~ → 55,000원
불자님을 위해 스위스 론다 최고급 무브먼트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 재질 : STAINLESS STEEL
· 무브먼트 : Swiss Ronda Move
· 원산지 : 한국
· 종류 : 라운드브라운, 라운드블랙, 아크브라운, 아크블랙
· 기능 : 고급다이얼, 3기압방수
※ 손목시계를 구입하시는 모든분께 '단청문양알람시계' 증정



▌운상관음도
~~150,000원~~ → 100,000원
고통받는 이 중생이 당신을 따르오니 대자대비(大慈大悲)를 내리고, 해달하게 하소서..
불화보급을 위해 참선하는 마음으로 조성하였습니다.
· 그림크기 : 가로 40cm x 세로 100cm
· 족자크기 : 가로 52cm x 세로 140cm
· 형태 : 최고급 족자 완제품
· 작가 : 조중일



▌운월달마족자
~~100,000원~~ → 50,000원
달마의 기운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마다 복과 지혜를 구족하게 하여지이다..
· 그림크기 : 가로22cm x 세로43cm
· 족자크기 : 가로28cm x 세로92cm
· 재질 : 운용지(한지중에 제일 질기고 튼튼한 재료) 최고급 족자
· 작가 : 청곡 이한동 화백

M 추천 불교음반



▌생명의소리 (김영동)
15,000원
대금으로 만나는 명상음악의 진수
대금과 단소 독주곡과 낭송과
음악이 함께한 '나를 닦는 108배'
등이 수록되있다.



▌하늘바람 (명상음악CD)
10,000원(1장)
1집 : Ocarina오카리나/Erhu얼후
2집 : Cello첼로/Erhu얼후
3집 : Erhu얼후/Daegum대금
/Ocarina오카리나
4집 : Haegum해금/Daegum대금



▌열반의아침 (명상음악CD)
10,000원
대금, 가야금, 아쟁이 어우러진
국악명상음악



▌보현십원가 普賢十願歌 (CD)
13,000원
음악을 공양하는 사람들 – 보현십원가 1000년 전 고려의 고승 균여스님이 모든 이들에게 불법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노래로 만들게 되었다. 문헌으로만 전하던 옛 노래를 가사를 현대어 가사로 옮기고 곡을 붙여 제작하였습니다.



▌금강경 오디오북 (CD)
CD : 13,500원 / Tape : 10,800원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세련된 금강경이다.
자연스럽고 담담하게 들려주는 한글 금강경 오디오북(CD1)
듣다보면 금강경과 불교문화의 이해가 절로되는 알기쉬운 금강경 용어풀이(CD2)



▌[DVD]]순선법문(純禪法門) – 청화스님
Ⅰ편 54분 / Ⅱ편 61분 / Ⅲ편 71분
20,000원(1장)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